

2004 연구보고서 230-18

여성 전문인력의 창업 활성화 방안

연구책임자 : 양 인 숙 (본원 연구위원)
공동연구자 : 장 미 혜 (본원 연구위원)
 김 난 주 (본원 연구원)
 이 윤 화 (본원 위촉연구원)

 한국여성개발원

발 간 사

최근 우리 경제의 지식산업화가 빠르게 진전되면서, 여성인력의 활용이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핵심 과제의 하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기업인은 고용창출과 산업 고도화를 촉진하는 성장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OECD는 여성기업의 국가경제 기여도가 40%에 육박하면서 여성기업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성기업의 활성화는 경제·사회·정치적 측면에서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여성인력의 고용창출을 통해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정치·사회적으로는 남녀 불평등을 해소하고 여성의 실질적 지위향상을 이루는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여성기업은 전통적 여성업종인 음식 및 숙박업과 도소매업에 집중되어 있고, 90%이상이 5인 미만의 영세한 규모에 머물러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고부가가치 성장산업에서의 여성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여성기업인을 육성하기 위한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지식기반산업에서의 고급 여성인력의 창업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여성기업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수행되었습니다. 모쪼록 본 연구가 우리나라의 유능한 여성 전문인력들의 창업을 촉진하는 실질적인 지원시책을 마련하는 데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본 연구를 위한 조사에 응하여 주신 분들과, 자문 및 평가에 참여하여 연구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좋은 연구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한 연구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2004년 12월

한국여성개발원
원장 서명선

연구요약

1. 서론

우리 경제는 외환 위기를 계기로 재무구조가 취약한 중소기업의 부도가 급증하고 신규 창업이 꺾일 수준으로 증가하는 등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특히 새로이 대동하는 산업을 중심으로 전체적 창업기업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1990년대 후반 벤처 붐과 더불어 기술집약형 벤처기업을 중심으로 한 소규모 중소기업의 활발한 창업은 우리 경제의 지식 기반경제로의 이행을 가속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우리나라 여성의 창업활동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2년 현재 여성기업의 수가 1,117천여 개로 전체 사업체 수의 35.7%를 차지하고 있다. '90년대 이후, 우리나라 여성 사업체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데, 전체 사업체의 증가폭보다 훨씬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여성기업의 확대는 고용창출의 원동력이 되고 있는데, 여성 사업체에 고용되어 있는 종사자의 비중이 전체 사업체 종사자의 40.3%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여성기업의 국가 경제적 기여도가 증대되면서, 여성기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여성기업의 양적인 확대가 경쟁력 있는 여성 기업이 증가하는 질적 성장으로 이어지고 있지는 못한 실정이다. 우리나라 여성기업은 여전히 전통적으로 여성집중 산업인 숙박 및 음식점업과 도매소매업에 60% 이상이 집중되어 있고, 5인 미만의 영세규모 사업체가 92.3%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여성 기업인의 학력분포에서도 선진국의 경우는 고학력 여성 기업의 비중이 50%~70에 달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전문대졸 이상이 40%에 불과하여 고부가가치 산업에서의 여성기업의 성장기반이 상당히 취약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고부가가치 산업에서의 여성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여성 전문인력의 창업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여성창업 및 여성기업의 일반 현황을 살펴보고, 지식기반산업에서의 여성 전문인력의 창업활동을 분석할 것이다. 아울러 국내외 여성창업 지원정책을 조사하여, 우리나라 여성 창업활동에 적합한 지원방안을 도출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할 것이다.

II. 여성 창업활동에 관한 이론적 논의

본 연구에서는 여성 전문인력의 범위를 고학력, 직업경력이 있는 경우로 설정하였다. 우리나라 여성 창업활동의 특징을 보면, 우선 창업동기에 있어 직장생활에서의 한계, 구직의 어려움, 육아와 가사와의 병행의 어려움 등의 밀어내는 요인에 의해 사업을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여성 벤처창업자와 같은 전문인력 집단은 기술적 아이디어의 사업화나 시장기회의 인식으로 창업하는 것으로 나타나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창업자 유형은 기회창업과 기술창업의 분류가 일반적인데, 기술창업자는 기술적인 일을 선호하고 일차적인 동기요인으로 가지고 있으며, 위험을 회피하고 다양한 투자자와 파트너를 선호하지 않는 특성을 가진다. 반면에 기회창업자는 폭넓은 경험과 고학력 출신이며, 미래지향적이고 관리적, 도전적인 성향으로 설명될 수 있다. 이러한 논의에서 여성 전문인력의 창업자들은 기술창업자보다는 기회창업자의 특성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벤처기업의 성공요인을 창업자 특성, 조직특성, 전략특성, 환경특성으로 구분하고, 이를 기업성장단계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창업기의 창업자특성으로는 자율성과 일에 대한 의욕이, 조직특성에서는 보상제도가, 환경특성에서는 구매자의 집중도가, 전략특성에서는 제품라인의 현 시장과의 적합성이, 의미 있는 변수로 추출되었다. 성장기에는 확고한 경영이념의 유지와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더 경쟁력이 있고, 현장과 마케팅 기법들이 적합할수록 성과가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성숙기에는 사업의 유연성과 권한이 잘 분산되어 정보가 자유롭게 흐를 수 있고, 해당 기업의 경쟁우위를 확보함으로써 경쟁자의 수가 적고 현 시장과 제품라인이 적합하고 품질우위 전략을 추구할 때 성과가 좋게 나타났다. 이러한 요인들 중에서 여성창업의 성공가능성은 해당 산업에서의 취업 경험의 여부가 더욱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는 현장의 경험을 통하여 창업하려는 사업에 대한 지식획득의 차원뿐만이 아니라, 사회적 네트워크가 부족한 여성들에게 직장생활을 통한 인맥확보가 창업 후 기업경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성의 창업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은 자금문제와 가사와 기업경영의 균형 유지 문제로 나타났다. 이는 사업아이디어 발굴, 직원고용 문제, 사업부지 선정문제, 시장 발견 등의 실질적 기업경영 요인들보다 더 심각한 장애요인으로 나타나, 창업활동에 있어서 여성적 특성이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여성의 전통적 성역할과 여성기업인에 대한 낮은 사회적 인식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여성기업의 창업관련 애로사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사노동/사업 병행으로 인한 이중노동이 19.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자금조달(18.6%), 인력확보(8.8%), 남성위주의 접대문화(8.2%), 판매처 확보(8.2%), 부정적 사회인식(7.7%), 성차별(5.7%), 제품개발(5.2%), 시설 및 설비확보(4.2%), 사업아이디어 발굴(3.6%)의 순으로 나타났다.

III. 여성기업 및 여성창업의 현황

『2002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통계청) 기준 전국에 여성이 대표로 있는 사업체수는 총 1,117,664개사로 전체 사업체의 35.7%를 차지하다. 한편, 남성사업체에 종사하는 여성 비율은 32.2%에 불과한 반면, 여성 사업체에 종사하는 여성의 비율은 75.4%로 높게 나타나 여성 사업체일수록 여성 고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사업체의 조직형태별 분포는 95.7%가 개인사업체이고 회사법인은 2.1%이다. 여성 사업체의 산업별 분포를 보면 '숙박 및 음식점업'이 38.6%로 가장 많았고 규모는 '5인 미만'이 92.3%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의 『2003년 여성기업실태조사』의 원자료를 이용하여 여성 기업인의 창업과정과 기업현황에 관해 분석을 하였다.

창업 당시 여성 기업인 평균 연령은 39세였고 연령 분포는 30대가 42.1%로 가장 많고, 창업 당시 학력분포는 고졸이 55.1%로 가장 많았다.

여성 기업인의 창업 당시 회사와의 관계는 '법적 소유주이면서 경영에 참가'가 84.3% 가장 많았고 사업을 시작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는 '자신이 직접 창업하였다'가 61.1%로 가장 많았다.

여성 기업인들의 창업 전 경력은 '가정주부/무직'이 35.5%로 가장 많았다. 창업이전 기업체에서 종사했던 여성 기업인을 대상으로 기업체에서 담당했던 업무와 창업업종과의 연관성에 대해 조사한 결과 '연관성이 많다'가 51.5%로 가장 많았고 창업 당시의 기업형태에 대해서는 '개인기업'이 76.8%로 가장 많았다.

창업을 결심하고 실제적으로 창업을 하기까지 소요된 기간은 '6개월'이 내가 41.5%로 가장 많고, 여성 기업인들이 창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느낀 애로점에서 대해서는 '자금 조달'이 전체 응답자의 49.1%로 가장 많았다.

여성 기업인들에게 창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창업을 지원해주는 기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29.4%만이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창업 지원 기관을 안다고 응답한 여성기업인을 대상으로 창업지원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거나 창업정보, 상담의 도움 등을 받은 적이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 전체 27.1%가 '도움을 받았다'고 응답하였다. 창업 지원 기관으로부터 도움을 받은 경험이 있는 여성기업인들이 창업지원기관 이용시 느낀 애로점은 '지원기관 지원 내용 불충분'이 52.2%로 가장 많았다.

여성 기업인들의 평균 창업 자금 규모는 2천 1백만원이었고 창업 자금을 조달은 '본인·공동경영인의 출자'가 58.4%로 가장 많았다.

여성기업의 성과 분석으로 매출액의 집단별 차이를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을 통하여 살펴보고 매출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는 회귀분석을 하였다.

학력, 경력 두 집단으로 나누어 매출액에 대해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한 결과 '전문대졸이상'의 집단과 '경력있음'의 집단의 평균 매출액이 높았으며 이러한 차이는 유의하였다. 학력과 경력을 동시에 고려한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 분석에서는 '전문대졸이상·경력없음', '전문대졸이상·경력있음', '고졸이하·경력있음', '고졸이하·경력없음' 집단의 순서로 평균 매출액이 높았으며 이러한 집단간 차이도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여성기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회귀분석 결과 연령이 높을수록, 고졸 학력에 비해 대졸, 대학원졸, 기업규모가 클수록, 중장기계획이 있는 기업과 자기자본이 큰 기업일수록 매출액도 상승하였고 연구개발액 투자액의 상승은 매출액의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더미 변수에서 고졸학력에 비해 전문대졸과, 경력있는 집단이 경력없는 집단에 비해 매출액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IV. 여성 전문인력의 창업활동 조사

본 연구는 여성 전문인력들의 고부가가치 산업에서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정책을 발굴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장에서는 앞 장에서의 여성 창업에 대한 일반 현황을 토대로 여성 전문인력들의 창업활동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지식기반산업에서의 여성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식기반산업에서의 여성 창업활동은 창업업종과 관련된 분야에서의 경력이 관련 전공 즉, 전문지식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해당 분야에서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창업자 자신의 노력이 필요하며, 여성 전문인력들이 자신의 전문분야에서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둘째, 자영업 위주의 생계형 창업이 많은 일반 여성 창업의 특성과는 달리 지식기반산업에서의 여성 창업자들에게는 독립성, 자아실현, 기업가 정신 등과 같은 유인 요인이 사업을 시작하는데 더 큰 영향을 미치는 동기요인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창업업종에서의 전문성과 적극적인 창업동기에도 불구하고, 창업준비기간이 짧고 사업성 평가와 구체적인 자원 확보 계획 없이 창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칫 창업실패로 이어지거나 창업 후 안정적 기업성장을 더디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여성 창업의 실패를 감소시키고, 안정적 기업 성장단계로의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서 철저한 창업 준비과정을 거쳐서 기업을 설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지식기반산업에서의 여성 창업자들의 창업관련 능력에 대한 자기평가 결과를 보면, 집념, 의지, 신뢰성, 혁신성, 구성원 통제능력 등을 높게 평가하였고, 모험성, 리더십, 경영능력, 자금능력을 낮게 평가하였다. 특히 자금 확보 및 관리능력은 월등히 낮은 점수를 보이고 있어, 여성 창업자들 스스로 이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여성 창업자들에게 '기업가 정신(entrepreneurship)'을 고취시키고, 기업 경영능력을 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요구된다. 특히 여학생들의 창업활동에 대한 관심과 의욕을 높이기 위한 훈련 프로그램과 창업 실험학습 등의 개발 및 보급은 향후 여성 창업자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기반이 될 것이다.

넷째, 창업 당시의 애로사항과 현재 기업경영상의 애로사항을 기업 성장 단계별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는데, 공통적으로 창업 당시에 겪었던 성차별과 남성위주의 접대문화로 인한 어려움은 창업 후에 상당히 극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 후 초기단계와 성장단계, 성숙기 단계의 기업들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어려움은 자금조달의 문제였으며, 기업이 성장할수록 인력 확보, 판매처 확보, 사업 아이디어 발굴, 신제품 개발 등의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여성 창업자 또는 기업가에 대한 교육이 창업 준비과정, 창업 후 성장단계별로 차별적으로 전문적인 프로그

램이 갖추어져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여성 창업자에게 창업 성공요인에 대해 조사한 결과, 기업경영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기업가 정신'이라고 가장 중요한 성공요인이라고 응답하였다. 그 밖에 창업분야의 지식과 경험, 인맥, 신뢰, 사업 아이템, 인재 확보 및 관리, 기술력, 투명 경영 등을 성공요인으로 꼽았다. 여성 창업자들은 자신들에게 부족한 부분이 위험감수성과 리더십이라고 평가한 반면, 창업기업의 성공요인이 '기업가 정신'이라고 응답하여 상반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최근 창업 확산에 있어서 '기업가 정신'의 중요성이 널리 인식되고 있는 것과 발맞추어, '여성 기업가 정신'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V. 국내외 여성 창업지원정책

5장에서는 국내외 여성창업 지원정책에 대해 조사하였으며, 해외 여성창업지원정책과 국내 여성창업지원정책에 대해 비교·분석을 수행하였다. 국내외 여성창업지원정책은 창업기간구축정책, 창업자금지원정책, 창업교육 및 훈련정책, 여성기업의 판로확대정책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창업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책인 여성창업보육센터는 우리나라의 정부와 대학, 연구소, 민간 등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그 수는 2003년 기준 총 291개 에 달한다. 그러나 창업보육센터 수의 양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의 인식부족과 지원인프라의 부족으로 창업성공률은 72.6%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한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기업의 대부분은 제조업이며 서비스업의 경우는 전체 입주기업의 8.9%밖에 되지 않는다는 문제점도 지니고 있다.

둘째, 여성창업자금 지원정책은 여성창업자만을 대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직접적인 여성창업지원정책과 일반창업자를 대상으로 자금을 지원하되 창업자금 지원 시 여성을 우대하는 간접적인 여성창업지원정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창업자금에 대한 지원은 여성기업의 창업과 생존을 제고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여성창업자금 지원비율에 대해 살펴보면 중소기업창업자금의 경우 2003년 기준 전체 수혜자 중 여성기업의 비율은 단지 10%정도 밖에 차지하고 있지 않으며, 소상공인정책자금을 통해서 지원을 받는 여성기업인의 비중 역시 전체의 40%로 자금지원정책의 수혜를 받는 여성의 비중은 매우 낮은 편이다. 또한 여성은 차별적 편견이나 담보요구로 인한 어려움으로 인해 창업자금을 지원받기란 결코 쉽지 않은 현실이다.

셋째, 여성창업자를 대상으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는 정책으로는 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여성가장훈련과 중소기업청에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여성창업강좌 등이 있다. 여성가장훈련은 취업 및 창업이 용이한 직종을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는 제도로 훈련비 전액을 국고지원으로 부담하여 운영하고 있다. 여성창업강좌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과 창업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제도를 말한다. 이러한 창업교육 및 훈련정책은 단계별로 세분화되어 있지 않으며 전문화된 창업교육프로그램이 개설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넷째, 여성기업의 판로확대를 위한 대안으로 정부는 생산한 제품의 판매시장을 개척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창업가들을 돕기 위해 공공기관이 여성창업기업에서 생산된 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여성기업이 생산한 신제품 구매율은 0.06%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다음으로 국외(주로 미국)의 여성창업지원정책에 대해 살펴보면, 첫째, 창업자금지원정책의 경우 미국은 중소기업청(SBA) 산하에 있는 여성기업센터(WBC)에서 자체적으로 창업의 시작에서부터 창업과정, 시장개척, 마케팅 등과 관련된 전반적인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여성소유기업에 대한 대출시 기준요건을 살펴보면 미국은 대출이나 담보능력 보유여부보다는 근무경력, 기업의 성장잠재력 등과 같은 것에 중점을 두고 자금

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 비율은 1990년 이후 지난 10년 동안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국제기구와 NGO의 창업지원정책으로는 빈곤한 여성기업가나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자금을 지원하고 있는 Women's World Banking, ACCION, FINCA 등이 있으며, 개발도상국의 창업지원정책으로는 방글라데시의 Grameen Bank, 인도네시아의 BRI, 멕시코의 NAFIN 등이 있다.

둘째, 선진국(미국)의 창업교육 및 훈련프로그램은 단계별로 세분화되어 있으며, 1년에 걸쳐서 체계적으로 계획되어 있다. 현재 21주에 걸친 21개 강좌 프로그램이 개설되어 있으며 강좌는 성공한 여성기업인이나 전문가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셋째, 미국의 여성기업인의 판로확대정책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여성중소기업에서 생산된 물품을 일정량 구매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여성소유기업이 정부와 맺은 조달계약총액의 비중을 살펴보면 4.5%에 이르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국내와 해외의 여성창업에 대한 지원정책을 토대로 하여 얻을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창업보육센터의 경우 향후 지식기반서비스업종에서의 여성 예비창업자 비중을 확대하기 위하여, 입주자격 요건을 보완하는 동시에 여성 창업보육센터 등에 전문지식을 갖춘 창업 상담사를 배치하여 예비 창업자 및 보육센터를 졸업하는 여성기업인에게 종합적인 상담기능을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해보아야 한다.

둘째, 앞에서 언급한 현재 여성창업에 대한 자금지원정책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여성 전문인력 대상의 창업자금 규모를 확대하고,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신기술 창업자금 등의 지원대상에서 여성 창업자를 30% 할당하는 제도를 잠정적으로 실시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해볼 수 있다. 이와 관련된 해외정책의 예로서 여성에 대한 신용대출기준을 담보능력에 두지 않고, 창업지원자의 조직 내 경험이나 창업계획서를 통해서 평가하는 미국의 WBC의 사례를 들 수 있다.

셋째, 여성창업자를 대상으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는 정책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성장단계별 자금운용계획 교육프로그램, 재창업 준비프로그램 등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육 콘텐츠를 발굴하고 전공별 세분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를 여성창업 관련기관들에게 보급할 필요가 있다. 특히 여성들의 지리적 시간적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온라인상의 창업강좌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는데, 참조할만한 해외정책의 사례로는 미국의 중소기업청(SBA)에서 운영하고 있는 Online Women's Business Center를 들 수 있다.

넷째, 우리나라의 경우 여성기업인의 판로확대를 위해 정부에서는 여성창업기업에서 생산된 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기업이 생산한 신기술제품 구매율은 0.06%로 매우 저조한 편이다. 미국의 경우 여성소유기업이 정부와 맺은 조달계약총액의 비중이 4.5%에 이른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여성기업에서 생산된 제품을 정부에서 의무적으로 구매하게 하는 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VI. 요약 및 정책제언

본 연구에서는 여성창업과 관련한 연구문헌을 검토하였고, 2차 통계자료를 통하여 여성창업의 일반 현황을 재분석하였다. 여성 전문인력 집단의 창업활동은 심층면접 조사를 통하여 살펴보았으며, 선진국 및 개발도상국의 여성창업 지원정책의 사례들을 점검함으로써 우리나라 시장 환경에 적합한 정책방안들을 도출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 여성창업 관련 연구는 창업자의 특성과 창업 동기, 창업기업의 경영특성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여성 창업자의 특징은 크게 남성 창업자에 비해 개인적 동기요인에 의한 것이기 보다 상황적 요인, 또는 방출(push) 요인으로 구분되는 양상을 보인다. 즉, 직장생활에서의 한계, 구직의 어려움, 육아와 가사와의 병행의 어려움에 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숙련된 기술자 중심의 기술창업보다는 폭넓은 경험과 관리능력에 의한 기회창업 중심의 창업유형의 특성을 보인다. 여성창업의 애로사항으로 주로 지적된 내용들은 가사와 사업병행으로 인한 이중노동, 자금조달, 인력확보, 남성위주의 접대문화 등이다.

우리나라 여성창업 현황의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창업자의 창업 연령은 30대가 가장 많고, 학력분포는 고졸이 55.1%로 가장 높았으며, 창업전 경력은 가정주부가 가장 많았다.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여성 창업자의 계열별 분포를 보면, 사회계가 25.0%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자연계 15.2%, 교육계 15.1%, 예체능계 11.1%, 인문계 10.5% 순이었다.

창업을 결심하고 실제적으로 창업을 하기까지 소요된 기간은 '6개월'이 내가 41.5%, '6개월~1년' 24.7%로 '1년 미만'이 66.2%를 차지했다. 여성 기업인들이 창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느낀 애로점에서 대해서는 '자금 조달'이 전체 응답자의 49.1%로 가장 많았으며 학력별로 고졸의 경우는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느낀 비율이 다른 학력에 비해 높게 나타났고 대졸은 '인력확보'가 어려웠다고 느낀 비율이 다른 학력에 비해 높았다. 학력이 높을수록 '경영에 대한 교육훈련 미비'가 창업 준비시 가장 큰 애로점이었다고 말한 비율이 높아져 고학력 여성들에게 적합한 경영 관련 교육훈련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여성 창업자를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조사 결과, 지식기반산업의 여성 창업자의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 및 경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전문성 확보한 여성 전문인력의 창업 촉진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여성 창업자의 창업동기 요인은 독립성, 자아실현 등의 유인 요인으로 나타났으나, 이러한 적극적 창업동기와는 다르게 창업 준비기간이 짧고 준비과정이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기업의 성장단계별 애로사항을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자금조달의 문제를 안고 있으며, 창업 초기단계의 기업들이 더 심각하게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기업이 성장할수록 인력확보, 판매처, 사업 아

이디어, 신제품 개발 등의 어려움에 직면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지식기반산업의 여성 창업자들은 자신의 창업 성공요인으로 '기업가 정신'이 가장 중요한 영향요인이라고 응답하였다. 그 밖에 창업분야의 지식과 경험, 인맥, 신뢰, 사업 아이템, 인재 확보 및 관리, 기술력, 투명 경영 등을 성공요인으로 꼽았다.

우리나라 여성 대상의 창업 지원정책은 창업자금지원과 창업기반구축 지원, 창업교육훈련으로 구분할 수 있다. 창업자금지원은 노동부(근로복지공단)의 실직여성가장자영업지원사업, 중소기업청(한국여성경제인협회)의 저소득 여성가장 생계형 창업지원, 여성부의 여성기술인력 창업자금 지원과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이 있다. 창업기반구축 지원정책으로는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산하의 전국 14개소의 여성창업보육센터를 통하여, 입주공간과 시설설치비, 공동사무기기를 제공하고 있다. 여성창업강좌는 한국여성경제인협회(일반창업강좌, 전문창업강좌, 컴퓨터 강좌, 창업세미나 등)뿐만 아니라 여성인력개발센터 등 다양한 기관에서 경로의 강좌가 개설되고 있다.

미국의 여성 창업자금 지원정책의 특징은 자금지원시 담보능력의 보유 여부를 기준으로 하기 보다는 자금지원을 요청한 여성의 근무경력을 가지고 있는가, 사회경제적으로 취약계층인가, 재정적으로 안정성을 지니고 있는가, 지리적으로 어디에 소재해 있는가 등의 다양한 기준에 근거해서 자금지원을 한다는 점이다. 개발도상국의 여성 창업지원정책에서 유의할 점은 소액의 자금지원을 유동적 대출방식으로 지원한다는 점이다. 이와 같이 각국은 여성의 창업기회를 확대하고 창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여성 전문인력 집단이 새로운 창업기회를 인식하고 체계적으로 창업을 준비하여 성공적 창업기업을 설립·경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여성창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보호정책에 그칠 것이 아니라, 여성 창업기업의 생존력 및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강화될 수 있도록 개선되어 나가야 할 것이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아래와 같은 정책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 고부가가치 산업에서의 여성 창업자 육성

- 대학, 연구소, 지자체 산하의 기술혁신형 창업보육시설에 여성전용 인큐베이터를 설치하고 지원을 강화한다.

- 여학생들의 창업 마인드 확산을 위하여 교과과정에 창업관련 내용을 포함시키고, 미래의 여성 기업가 후보인 여학생들의 창업준비 활동을 지원·장려한다.

- 여성 유망 업종에서의 종합적 보육기능을 지원하는 전문여성 창업보육기관을 신설한다.

- 지식기반서비스업종에서의 여성 예비 창업자의 보육시설 입주를 확대하고, 여성창업보육센터의 시설 및 보육기능을 확충한다.

○ 여성 전문인력 대상의 창업자금 지원방안

- 여성 전문인력 대상의 창업자금 규모를 확대하고, 기존의 창업자금 지원을 지식집약형 산업에서의 여성창업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유도한다.

- 여성창업 지원기금(가칭)을 조성해서 지식집약형 산업중심으로 여성창업자에 대한 자금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 여성 공동 창업자에 대한 소액 대출제도를 마련하고, 유동적 상환방식을 도입한다.

○ 여성창업가의 정보 및 네트워크에 대한 접근성 증대

- 「여성기업 종합지원센터」의 내실화를 통하여 여성창업자에 대한 종합 상담 및 전문교육 기능을 제공한다.

- 온라인 여성창업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창업정보를 제공하고, 국내외 여성기업인 연결망 구축을 지원한다.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내용 및 방법	5
3.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방향	6
II. 여성 창업활동에 관한 이론적 논의	9
1. 창업의 정의 및 의의	11
2. 우리나라 창업환경 및 창업활동의 특성	13
가. 창업환경	13
나. 우리나라 창업활동의 특징	14
3. 창업과정과 창업 핵심요소	15
가. 창업의 과정	15
나. 창업 핵심요소	18
다. 창업 추진세력	21
4. 여성 전문인력의 창업활동의 특징	25
가. 여성 전문인력의 창업동기	25
나. 창업자 유형 분류	27
다. 창업 성공요인	29
라. 여성창업의 애로사항	30
III. 여성기업 및 여성창업의 현황	33
1. 여성기업 현황	35
2. 여성창업 현황	41
가. 창업활동 관련 현황	43
나. 여성 창업기업의 경영일반 현황	57

다. 교육의 필요성 및 내용	64
라. 여성기업인으로서의 애로점	66
마. 정부의 지원정책에 대한 인식	71
바. 여성기업의 경영성과	74
사. 여성기업인의 학력·경력 성과분석	81
3. 소결	83

IV. 여성 전문인력의 창업활동 조사 87

1. 심층면접 조사개요	89
가. 조사개요	89
나. 조사내용	90
다. 조사대상자의 특징	91
라. 조사사업체의 현황	93
2. 심층면접 조사결과	95
가. 창업자의 해당 분야 전문성	95
나. 창업동기 및 창업유형	97
다. 창업 준비과정 및 경영능력	100
라. 창업 당시 및 현재의 애로사항	104
마. 창업 성공요인	106
3. 소결	109

V. 국내외 여성 창업지원정책 111

1. 국내의 창업지원정책	113
가. 창업기반구축정책	113
나. 창업자금지원정책	114
다. 창업교육 및 훈련정책	119
2. 해외의 창업지원정책	126
가. 해외의 여성기업현황 및 실태	126
나. 해외의 여성창업지원정책	136
3. 소결	147

VI. 요약 및 정책제언 151

1. 요약 153
2. 정책제언 155
가. 기본방향 156
나. 정책과제 158

참고문헌 167

부 록 173

<부록 1> 여성 전문인력의 창업활동 심층면접 설문지 175
<부록 2> 해외 여성창업 지원기관 184

<부표 1> 남녀 사업체의 종사상 지위 및 산업별 분포 187
<부표 2> 남녀 사업체의 규모 및 산업별 분포 188
<부표 3> 남녀 사업체의 지역 및 산업별 분포 189

표 목 차

<표 II-1> 남녀 벤처창업자의 창업동기	26
<표 II-2> 창업유형에 대한 선행연구	28
<표 III-1> 여성 대표자 사업체수	35
<표 III-2> 남녀 사업체의 회사형태 분포	37
<표 III-3> 남녀 사업체의 산업별 분포	38
<표 III-4> 남녀 사업체의 규모별 분포	38
<표 III-5> 남녀 사업체의 지역별 분포	39
<표 III-6> 조사대상 여성 기업 분포	42
<표 III-7> 전문대졸 이상 학력자의 전공계열별 분포	45
<표 III-8> 대표이사의 학력별 소유와 경영 형태	45
<표 III-9> 학력별 창업 동기	46
<표 III-10> 학력별 창업 이전 경력	47
<표 III-11> 학력별 창업 이전 기업체 근무 분야	48
<표 III-12> 학력별 창업 결심에서 창업에 소요된 기간	50
<표 III-13> 학력별 창업준비시 가장 큰 애로점	51
<표 III-14> 학력별 창업 자금 지원을 거절당한 이유	57
<표 III-15> 학력별 기업 형태	58
<표 III-16> 학력별 기업입지 형태	59
<표 III-17> 학력별 중장기 계획이 있는 여성기업의 중점 목표	61
<표 III-18> 학력별 중점 경영부문	62
<표 III-19> 학력별 기업정보 수집 통로	63
<표 III-20> 학력별 경영상 문제점 의논 상대	63
<표 III-21> 학력별 기업활동상의 애로점	64
<표 III-22> 학력별 필요한 교육내용	65
<표 III-23> 학력별 여성 기업인을 위한 교육에 참가 의향	66
<표 III-24> 학력별 여성 기업인으로서 불리한 점	68
<표 III-25> 학력별 여성 기업인으로서 유리한 점	68
<표 III-26> 학력별 자금조달시 금융기관 이용상의 애로점	69

<표 III-27> 학력별 정부의 기업활동지원 제도 인지도	72
<표 III-28> 학력별 정부의 기업활동지원 제도 이용비율	72
<표 III-29> 학력별 여성 기업인을 위해 필요한 정책	73
<표 III-30> 학력별 2001년 대비 2002년 매출액 성장률	74
<표 III-31> 학력별 2002년 자기자본 경상이익률	75
<표 III-32> 학력별 경영 성과 요인	75
<표 III-33> 학력별 창업 이후 부도 경험 여부	76
<표 III-34> 학력별 장래 구조조정 계획	77
<표 III-35> 학력 집단별 매출액 비교	78
<표 III-36> 경력 집단별 매출액 비교	79
<표 III-37> 학력·경력 집단별 매출액 비교	80
<표 III-38> 여성기업의 성과 분석 변수 설명	82
<표 III-39> 여성기업의 성과 분석 결과	83
<표 IV-1> 면담조사 영역별 조사항목	90
<표 IV-2> 면담조사 대상자의 특성	91
<표 IV-3> 조사 사업체 현황	94
<표 IV-4> 창업 업종과 전공 및 경력과의 관련성	96
<표 IV-5> 창업 동기	98
<표 IV-6> 창업유형	100
<표 IV-7> 창업능력에 대한 자기평가	103
<표 IV-8> 창업 당시 및 현재의 애로사항	105
<표 IV-9> 창업 성공요인	106
<표 V-1 > 연도별 여성창업지원센터 운영현황	114
<표 V-2> 창업자금지원자의 채권확보별 현황	115
<표 V-3> 중소·벤처기업창업자금중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비율	116
<표 V-4> 소상공인 정책자금중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비율	117
<표 V-5> 현행 국내의 여성대상 창업자금지원정책	118
<표 V-6> 여성부의 창업자금 지원대상 기업 업종별 현황	119
<표 V-7> 여성 창업강좌 참여 현황	121
<표 V-8>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서 개설한 창업강좌의 연도별 참가인원 및 강좌내용	122

<표 V-9> 현재 여성벤처협회에 개설된 무료교육과정	122
<표 V-10> 여성벤처협회에 개설된 유료 창업강좌	123
<표 V-11> 한국여성단체협의회에서 실시하는 창업교육	124
<표 V-12> 2004년도 여성기업지원예산(중소기업청)	125
<표 V-13> 국가별 여성소유기업의 기업적 특성	128
<표 V-14> 국가별 여성소유기업의 개인적 특성	129
<표 V-15> 여성소유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원프로그램	131
<표 V-16> 여성소유기업의 성장추세(국제비교)	132
<표 V-17> 국가별 남성소유기업과 여성소유기업의 개인적 특성의 차이 ..	134
<표 V-18> 여성기업소유주들이 당면하고 있는 현안문제	135
<표 V-19> SBA의 중소기업 대상 재정지원액 규모	136
<표 V-20> SBA의 중소기업 자금지원액 중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액의 비중	137
<표 V-21> WBC의 자금지원시 평가기준	138
<표 V-22> 1992년에서 2003년 사이의 ACCION의 Partner Program	142
<표 V-23> 2003년도 ACCION의 지역별 대출현황	142
<표 V-24> Grameen Bank의 대출자수 및 대출액(2002년 기준)	144
<표 V-25> Grameen Bank의 산업별 대출자수 및 대출액(2002년 기준) ..	145
<표 V-26> WBCs에 개설된 창업지원 프로그램	146
<표 V-27> 중소기업에 대한 미국정부의 조달계약 프로그램	147

그 립 목 차

<그림 II-1> 창업의 추진 세력	21
<그림 III-1> 남녀 사업체의 종사자 성별 분포	36
<그림 III-2> 남녀 사업체의 조직형태별 사업체 분포	37
<그림 III-3> 남녀 사업체의 종사상 지위 분포	40
<그림 III-4> 여성 기업인의 연령별 분포	43
<그림 III-5> 여성 기업인의 학력별 분포	44
<그림 III-6> 학력별 기업체 종사 분야와 창업 업종과의 연관성	48
<그림 III-7> 학력별 창업당시 기업 형태	49
<그림 III-8> 학력별 창업지원 기관의 인지 여부	52
<그림 III-9> 학력별 창업 지원 기관으로부터 도움을 받은 경험	53
<그림 III-10> 창업시 도움 받은 기관	53
<그림 III-11> 창업지원기관 이용시 애로점	54
<그림 III-12> 학력별 평균 창업 자금 규모	55
<그림 III-13> 학력별 창업 자금 조달 방법	55
<그림 III-14> 학력별 제도권 창업 자금지원기관에 자금지원을 거절당한 경험	56
<그림 III-15> 본사 및 공장 소유 현황	59
<그림 III-16> 학력별 여성기업의 매출액 현황(2002년 기준)	60
<그림 III-17> 학력별 중장기 경영 계획 여부	61
<그림 III-18> 학력별 여성기업주만을 위한 교육과정의 필요성	65
<그림 III-19> 학력별 여성기업인과 남성 경영인과 기업경영활동 비교	67
<그림 III-20> 학력별 여성기업인으로 금융기관 이용	70
<그림 III-21> 학력별 여성경제단체 가입 여부	71
<그림 III-22> 여성 기업인 지원을 위한 별도의 제도 마련 필요성 여부	73
<그림 III-23> 학력별 평균 매출액	78
<그림 III-24> 경력별 평균 매출액	79
<그림 III-25> 학력·경력별 평균 매출액	80
<그림 V-1> 여성소유기업의 비중	127

<그림 V-2> 국가별 여성기업의 컴퓨터 사용 비중	129
<그림 V-3> 국가별 여성기업인의 연령별 분포	130
<그림 V-4> 국가별 여성기업인의 교육수준	131
<그림 V-5> 국가별 여성기업인이 필요로 하고 있는 프로그램	132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내용 및 방법	5
3.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방향	6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 경제는 외환 위기를 계기로 재무구조가 취약한 중소기업의 부도가 급증하고 신규 창업이 꺾어질 수준으로 증가하는 등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특히 새로이 태동하는 산업을 중심으로 전체적 창업기업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1990년대 후반 벤처 붐과 더불어 기술집약형 벤처기업을 중심으로 한 소규모 중소기업의 활발한 창업은 우리 경제의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을 가속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우리나라 여성의 창업활동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2년 현재 여성기업의 수가 1,117천여 개로 전체 사업체수의 35.7%를 차지하고 있다. '90년대 이후, 우리나라 여성 사업체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데, 전체 사업체의 증가폭보다 훨씬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여성기업의 확대는 고용창출의 원동력이 되고 있는데, 여성 사업체에 고용되어 있는 종사자의 비중이 전체 사업체 종사자의 40.3%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여성기업의 국가 경제적 기여도가 증대되면서, 여성기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여성기업의 양적인 확대가 경쟁력 있는 여성 기업이 증가하는 질적 성장으로 이어지고 있지는 못한 실정이다. 우리나라 여성기업은 여전히 전통적으로 여성집중 산업인 숙박 및 음식점업과 도매소매업에 60% 이상이 집중되어 있고, 5인 미만의 영세규모 사업체가 92.3%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여성 기업인의 학력분포에서도 선진국의 경우는 고학력 여성 기업의 비중이 50%~70에 달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전문대졸 이상이 40%에 불과하여 고부가가치 산업에서의 여성기업의 성장기반이 상당히 취약함을 알 수 있다.

여성창업의 특징은 최근 우리나라 소규모 창업의 전반적인 현상이기는 하지만, 그동안 창업활동이 남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고, 여성기업인의 대부분이 준전문직, 또는 사무직으로 일하다 결혼·출산으로 퇴직하고 노동시장에 재진입하지 못하여 창업을 선택하였기 때문에 전문분야에서의 창업이 매우 어

려운 실정이다.

최근 우리 정부는 고용 문제의 해결과 신산업 분야의 육성을 위하여 적극적인 창업지원 정책을 전개해 왔다. 그러나 정부의 창업지원 정책은 제조업에 편중되어 있으며, 규모가 중기업 중심의 지원을 우선으로 하고 있다. 또한 첨단 기술산업에 대한 지나친 기대가 자원의 적절한 배분과 균형 있는 산업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일부 서비스 업종에 집중되어 있는 여성 창업은 정부 지원의 혜택에서 그동안 소외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정부의 여성창업에 대한 관심은 1999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구체화되기 시작한다. 이 법률에 근거하여 여성창업자를 우대하거나 우선 지원하는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으며, 특히 여성창업을 돕기 위한 여성전용 창업보육센터의 설치는 여성 예비창업자들에게 새로운 창업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창업지원정책은 크게 창업기반 지원사업과 창업자금지원, 창업교육훈련으로 분류할 수 있다. 창업인프라 지원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산하 전국 14개소의 여성창업보육센터의 운영으로 지원되고 있으며, 창업자금지원은 여성가장 및 저소득층 여성의 생계형 창업에 집중되어 있다. 또한 여성 창업교육도 단기 자격증반을 중심으로 한 직업훈련과 이론 중심의 일반적 창업강좌로 구성되어 있다. 이것은 여성대상의 창업지원정책이 생계형 창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여성을 취약계층으로 분류하는 정책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고부가가치 산업에서의 여성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여성 전문인력의 창업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여성창업 및 여성기업의 일반 현황을 살펴보고, 지식기반산업에서의 여성 전문인력의 창업활동을 분석할 것이다. 아울러 국내외 여성창업 지원정책을 조사하여, 우리나라 여성 창업활동에 적합한 지원방안을 도출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여성 전문인력의 창업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폭넓은 문헌조사를 실시하여 창업관련 이론을 점검하였다. 또한 원자료를 활용한 여성창업 및 여성기업의 현황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여성 전문인력 집단의 창업활동을 분석하기 위해서 지식기반산업에서의 여성 창업기업가를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조사가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는 자문회의와 정책포럼 개최를 통하여 연구방향과 정책제언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각 장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2장에서는 여성창업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창업동기와 창업자의 특성, 창업 애로사항 등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여성 전문인력의 창업활동 관련 특징들을 정리하였다.

3장은 통계청 「전국사업체 기초통계조사보고서」와 중소기업청·한국여성경제인협회 「여성기업 실태조사」의 원자료를 활용하여 여성창업 및 여성기업의 일반 현황을 재분석하였다. 「전국사업체 기초통계조사보고서」 원자료를 통하여 전체 사업체 중 남녀 사업체의 업종, 규모, 종사자의 성별 분포 등을 재분석하여 여성기업의 일반 현황을 파악하였다. 중소기업청의 「여성기업 실태조사」는 여성기업의 창업현황, 기업현황 전반에 관하여 문항을 포함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여성기업 실태조사」의 원자료를 통하여 여성 창업자의 학력수준별로 창업동기, 창업준비기간, 창업시 애로사항 등을 재분석하였다. 또한 여성 전문인력 집단의 창업활동을 살펴보기 위하여, 여성 기업인을 학력과 경력을 기준으로 4집단으로 재분류하여, 기업성과에 대한 집단간 차이에 대해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

4장에서는 여성 전문인력 집단의 창업활동을 조사하기 위하여 여성 취업자의 학력수준이 높고, 경력년수가 다른 산업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긴 지식기반업종을 조사대상 업종으로 선정하고, 해당 업종에서 창업한 여성기업가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표본은 여성기업인 명부에서 무작위로 추출하였고, 추출된 표본의 여성 기업가에게 전화 연락을 취하여, 인터뷰를 허락한

여성 기업인을 방문하여 1시간에서 1시간 30분 가량 심층면접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내용은 창업자의 전문성, 창업준비과정과 창업유형, 창업초기와 현재의 경영 문제점 등을 포함한다.

5장은 국내외 여성 창업지원 정책을 정리하였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의 지원정책과 개발도상국의 창업지원정책을 우리나라 여성 창업지원 정책과 비교하였다. 우리나라의 시장 환경에 부합하는 지원정책을 모색하기 위하여 선진국뿐만 아니라 소규모 영세기업을 지원하는 개발도상국의 지원정책도 벤치마킹의 자료가 될 것으로 판단하였다.

마지막 6장에서는 연구의 내용 및 조사결과를 요약하고, 여성 전문인력의 창업 활성화 지원정책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고, 우리나라 환경에 적합한 방안을 도입하고, 이를 제도화시키기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3.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방향

본 연구에서는 여성 전문인력의 창업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여성 창업 및 여성기업에 대한 전반적 현황 분석과 국내외 여성창업 관련 정책을 정리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용한 몇 가지 연구방법론 상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우선, 여성 전문인력의 창업활동을 파악하기 위하여 「전국사업체 기초통계조사」와 「여성기업 실태조사」의 원자료를 활용하였는데, 이러한 분석으로는 여성 전문인력의 전반적 창업활동의 특징을 파악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고학력의 직업경력을 가지고 창업한 여성 기업인을 추출하기 위하여, 타 산업군에 비해서 여성 취업자의 학력수준이 높고, 경력년수가 긴 지식기반산업에서 여성 기업인을 대상으로 하여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지식기반제조업의 여성 기업가 응답자 중 66%가 고졸 학력의 소유자였기 때문에, 고학력자의 범위에서 벗어나 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조사표본의 구성이 창업 후 생존해 있는 여성기업인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

에, 창업에 실패한 여성기업인 문제를 파악할 수가 없었다.

여성창업과 관련된 해외 정책조사에서는 여성 전문인력만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제도를 파악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여성창업이나 여성기업의 지원정책에 대해 폭넓게 조사하여 정책발굴의 기초자료 활용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여성 전문인력들의 창업 현황과 창업활동 상의 문제점들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여성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제를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여성 전문인력 집단의 창업활동을 업종별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각 업종에서의 여성 창업활동을 향상시키기 위한 구체적 방안이 제시되어야 하겠다. 또한 고부가가치 산업에서의 여성 창업활동, 즉 지식집약형 산업에서의 여성창업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러한 연구는 여성 전문인력들이 진로선택의 과정에서 창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데 기초가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여성창업이 우리 경제에 기여하는 효과를 거시적으로 분석하여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은 여성창업과 여성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는 유익한 자료가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Ⅱ



여성 창업활동에 관한 이론적 논의

1. 창업의 정의 및 의의	11
2. 우리나라 창업환경 및 창업활동의 특징	13
3. 창업과정과 창업 핵심요소	15
4. 여성 전문인력의 창업활동 특징	25

Two horizontal decorative bars at the bottom of the page. The top bar is a thin line with a fine grid pattern. The bottom bar is a thicker, solid black bar with a dense grid pattern.

1. 창업의 정의 및 의의

창업은 일반적으로 미래의 이윤을 목적으로 새로이 사업을 시작하는 것으로, 개인이나 집단이 사업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업목표를 세우고 적절한 시기에 자본, 인원, 설비, 원자재 등 경영자원을 확보하여 제품을 생산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의미한다.

새로이 기업을 설립하는 창업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고 있다(김철교, 2001). 첫째, 창업결정은 전형적인 불확실성 하에서의 의사결정이다. 창업은 이제까지 전혀 경험하지 못한 미지의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한 예측이 어렵고 불확실할 수 밖에 없다. 둘째, 창업은 많은 자원의 투입을 전제로 하는 투자의사결정이다. 즉, 창업은 다수 인적자원의 투입을 필요로 하여, 많은 자본의 희생을 통해서 가능하게 된다. 셋째, 창업은 본질적으로 진취적이고 창조적이며 모험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사업가적 자질을 갖고 있는 야심가, 자기사업을 통해 자아실현을 추구하려는 사람, 그리고 성장 및 성과개선을 추구하는 기업들의 변신수단으로 추진된다는 특성을 갖고 있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2000년 1월 개정)에서는 창업을 '새로이 중소기업을 설립하는 것으로서, 새로운 사업자(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서 기존 사업과 연관이 없이 원시적이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정부의 창업지원법상 창업이 아닌 구체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다¹⁾. 이런 경우에는 형식상의 절차만 있을 뿐 창업의 효과가 없는 순수한 창업이 아니므로 창업지원 혜택이 부여되지 않는다. 원시적으로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지 않고 기존의 사업을 인수하여 동종사업²⁾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는 중소기업을 신규

-
- 1) 창업이란 함은 새로이 중소기업을 설립하는 것으로서 창업지원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말하며, 창업에 해당하는 업종은 숙박 및 음식점업(55), 부동산업(70), 무도장 운영업(88991),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88331, 88332), 도박장 운영업(88995), 미용·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등 기타 서비스업 (산업용 세탁업 제외 93), 기타 제조업이 아닌 업종으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 해당한다.
 - 2) 동종사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동일한 세분류(4단위)에서 정하는 업종의 사업을 말

로 창설하는 효과가 없으므로 다음과 같은 경우는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되고 있다(이규금 외, 2003). 첫째, 타인의 사업을 승계하여 동종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둘째, 법인전환, 조직변경 후 동종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셋째,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본 연구에서의 창업은 중소기업 지원법률에 해당되는 업종에서 새로이 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여성집중 산업인 숙박 및 음식점업을 비롯한 미용 등의 서비스업종은 엄격하게는 본 연구의 창업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창업기업은 경제의 활성화와 성장의 원동력으로 우리 경제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우리나라에서 창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된 시기는 외환위기 이후이다. 정부는 폭발적으로 증가한 실직과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적 대안으로 신규 창업을 지원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선진기술 분야에서의 벤처기업에 대한 전폭적 지원으로 이른바 벤처 붐을 맞이하기도 하였다.

신규 창업의 국가 경제에 대한 기여도는 선진 국가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럽 OECD 국가는 신규 창업에 대한 추진이 미흡하여 높은 실직률과 낮은 경제성장이 지속되었으며, 일본도 역시 창업과 중소기업육성에 대한 효과를 보지 못함에 따라 30년만의 최고의 실직률을 경험하게 되었다. 반면에, 미국의 경우는 신규 창업기업이 고용창출에 대한 기여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기업가 정신과 신규 창업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적인 사례와 결과가 지속적으로 축적되고 있는데, 그 결과에 따르면 고용창출의 효과와 더불어 전 산업분야를 걸쳐 기업의 평균 규모가 점점 작아졌음을 보고하고 있다(박윤재 외, 2001).

21세기는 정보소프트웨어산업,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등과 같은 지식기반 산업이 주도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1990년대 중소기업의 구조변화 과정에서 신산업에서의 소규모 창업기업이 신산업 분야의 선도자 역할을 담당해 왔다. 이러한 창업기업의 증가는 대기업 중심의 산업구조로부터 중소기업 위주의 산업구조로의 재편을 가져오고 있다(권명중, 2000).

한다.

이와 같이 소규모 창업기업의 증가는 신규 고용 및 부가가치 창출이라는 중요성 이외에도 기술집약형 산업구조로의 전환과 신산업의 창출, 그리고 중소기업의 구조고도화를 촉진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2. 우리나라 창업환경 및 창업활동의 특성

우리 정부는 외환위기 이후, 급증하는 실업문제를 해소하고 미래지향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으로 창업 활성화를 정책과제로 설정하였다. 이는 신규 창업이 우리 경제의 촉진제가 되어 고용문제와 신기술 산업을 이끌고 가리라는 기대에서 비롯된 것이다.

가. 창업환경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벤처창업을 통한 고용창출과 더불어 경제 활성화의 일환으로 정책적인 창업지원이 활발히 일어났으며, 이에 따른 벤처창업과 코스닥의 열풍은 우리 경제와 사회에 많은 파장을 일으켰다. 이러한 과열로 인하여 창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창업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오히려 창업여건을 어렵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였다.

한편 21세기를 맞이하여 전개되는 경영환경의 변화는 중소기업에게 매우 큰 도전으로 작용하는 동시에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로 기대되고 있다. 우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다품종 소량생산 체제로의 진입은 유연한 생산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역할을 확대시키고 있다. 또한 산업구조가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업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이 고용측면에서 중소기업의 역할 증대 요인일 수 있으며, 대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따른 노동력 수요 감소가 중소기업의 고용비중 증대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경제의 양적 성장을 뒷받침해 온 대기업 중심의 대규모 사업추진 방식으로는 경제활력의 유지와 고용 증가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

에, 우리나라도 기술집약적인 중소기업이 경제발전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단계에 와 있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정부는 중소기업을 경제발전의 주역으로 육성한다는 취지 하에, 중소기업 육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시점이고, 따라서 중소기업의 창업환경은 어느 때보다 성숙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나. 우리나라 창업활동의 특징

우리나라 창업활동에 대한 연구에 의하면(박윤재 외 2001), 일반 창업계획을 가진 사람의 연령별 분포는 40대가 17.8%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고, 그 다음으로 30대가 16.2%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직업별로는 자영업자(12.3%), 단순 노무직 종사자(13.2%) 등이 높은 창업계획을 가지고 있어 전문직을 가진 사람들보다 창업에 대한 욕구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에 대한 인식을 보면, 창업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전체의 68.7%로 나타났으며, 국내 창업에 대한 인식은 연령별로는 큰 차이는 없었으나 30대를 기준으로 이전 세대가 이후 세대보다는 좀더 창업을 호의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창업기업의 지배구조에 대한 선호도를 살펴보면, 61.8%가 전체 소유를, 35%가 일부 소유 등 직접적인 소유형태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개 국가의 창업활동 지수를 비교한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는 브라질(16%)에 이어 2위(13.8%)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성인 7명 중 1명 꼴로 창업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수치는 향후 창업계획을 가진 사람들에게 의해서 보다는 주로 최근 창업한 신규 기업의 경영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우리나라의 창업활동이 경제 및 경영환경의 악화에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선진국의 창업형태는 제조업 및 첨단 산업분야로의 진출이 두드러지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생계형 창업'의 특성을 보이고 있다. 업종도 음식점이 다수이며, 단순 노무직 등 노동 집약적인 창업을 위주로 하고 있고, 운영

형태도 가족중심으로 운영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또 다른 특성은 남성 위주의 창업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창업활동을 성별로 비교해 보면, 남성들의 창업계획(75.7%)에 비해 여성들의 창업계획(24.3%)이 1/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수치는 남성 창업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비율이 외국에 비해 저조한 수준임을 고려해 본다면, 창업부문에서는 오히려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요약하면, 우리나라 창업활동의 두드러진 특성은 서비스업 위주의 생계형 창업이라는 것이다. 창업 업종에 있어서 제조업에 비해 서비스업을 선호하는 자가 압도적으로 많은데, 일반 국민 대다수가 제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고, 비교적 신속하고 수월하게 창업할 수 있는 서비스업을 선택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3. 창업과정과 창업 핵심요소

가. 창업의 과정

창업 경영에 대한 문헌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기는 하지만 창업기업의 생성 과정에 대해 개념적으로 중요한 범주와 하부 과정을 탐색하고 확인하는 경험 연구는 많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각 산업 특성에 따라 창업 시 일반적으로 거치게 되는 순서가 여러 연구자에 의해서 제시되었다.

베이브(Mahesh P. Bhawe)는 미국 뉴욕 북부에 소재하는 27개 창업기업의 창업자를 대상으로 한 면담을 바탕으로 창업 기업의 생성 과정에 대한 모형을 제시하고 있다³⁾. 이 연구를 통해 제시된 모형은 기회 인식에 대한 자극, 물리적 창조 활동에의 몰입, 생산 기술의 정비, 시장과의 연계, 그리고 고객에 의한 피드백과 같은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요소를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로 묶어 창업 과정을 분석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 ①기회의 단계

3) 정승화(1999). 「벤처 창업론」, 박영사: pp.12-13 요약정리.

(Opportunity Stage): 사업 개념의 체계화, ②기술 구축과 조직창조의 단계 (Technology Set-up and Organization Creation Stage): 생산기술의 구축, ③교환의 단계(Exchange Stage): 제품/서비스의 생산과 유통.

콜린스와 무어는 미국 중서부에 소재하는 100여 개의 제조업 창업자에 대한 조사 결과, 그들이 창업을 생각하기 오래 전부터 이미 현장의 배움을 통하여 창업자가 되게 하는 영향 요인이 있었음을 추적해 냈다. 이들이 조사한 창업자는 기계 가공 등 생산현장에서 출발한 사람들이었다. 콜린스와 무어가 발견한 창업의 과정은 다음과 같이 7개의 단계로 구성된다⁴⁾.

(1) 배움(schooling): 배움단계의 특징은 고생스러운 경험이다. 하찮은 일을 하면서 바닥생활을 하는 기간으로 자영하는 부모 또는 권위적인 상사 밑에서 고생스러운 과정을 겪는다. 이런 과정 속에서 기술 측면의 경험을 쌓고 높은 수준의 능력을 발휘하게 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진 기회는 주어지지 않는다. 독립에의 열망은 크지만 구체적이지 못하고 좌절되며, 아직 벗어날 형편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사업의 뜻을 조금씩 이해하게 되고, 돈이 어떻게 벌리는지 눈이 열리게 된다.

(2) 역할 악화(role deterioration): 이 단계에 이르러서는 자신이 몸담고 있는 환경에 물릴 정도로 싫어지는 때이다.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창업자가 다니던 직장이 싫어지는 과정을 겪는다.

(3) 사업구성(projecting): 배움의 단계에 이어 창업 구상이 떠오르는 일이 일어난다. 이 단계에서는 매우 중요한 아이디어였음이 나중에서야 밝혀지지만, 창업을 형성하게 하는 아이디어의 파편들이 떠오른다. 어떤 창업자의 경우는 먼저 발명에 관한 아이디어가 먼저 떠오르고, 다음 단계에야 비로소 이것을 생산하고 판매할 조직을 만들 구상이 떠오르기도 한다. 어떤 창업자의 경우는 반대로 먼저 조직을 만드는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그 다음에 생산 문제로 넘어가기도 한다. 어떤 경우는 시장에서 무엇이 요구되는가를 먼저 생각하기도 하며, 또 다른 이들은 단순히 동업의 권유를 받기도 하고, 고용주를 승계해야 하는 경우도 생긴다. 어떤 때는 아이디어와 제품이 딱 맞아 떨어져 아주 손쉽게 많

4) 문근찬(2002). 「벤처창업과 기업가 정신」, 대응: pp. 72-75 요약정리.

은 돈을 벌게 되기도 한다.

(4) 창조(creation): 앞의 구상이나 아이디어를 ‘번역’하여 사업으로 실체화하는 단계이다. 사람을 구해오고, 건물이나 장소를 마련하고, 자금을 확보하고, 집기도구를 사오고, 고객을 물색하며, 사업 승인을 받기 위해서 동분서주한다. 사업의 실체화는 흔히 질서정연하게 진행되기 보다는 대체로 온갖 사건이 겹치기로 밀려들어오는 과정이다.

(5) 난관통과(through the knothole): 사업체가 생존위기에 처하게 되는 단계이다. 일이 엉망으로 꼬이고, 도저히 성사될 기미가 없어 절박하게 느껴지고, 계속 매달리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솟아오를 수 있는 단계이다.

(6) 재순환(maybe recycling): 난관극복에 실패해서 망하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 그럴 경우에는 지금까지 겪은 온갖 어려움은 소중한 경험으로 교훈을 준다. 이 체험적 배움은 후에 재차 창업 때 강점으로 작용한다. 어떤 때는 한번이 아니라 여러 번 실패하는 경험을 겪고, 마지막 도전에 성공을 하는 경우도 많다.

(7) 사업 장악(taking full charge): 난관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창업자는 사업을 죽이지 않기 위해 고객, 공급자, 돈을 가진 사람, 동업자, 심지어 자기가 고용한 사람들에게까지도 모두 열세적인 자세를 취한다. 그러나 일단 위태한 단계를 넘어서면, 창업자는 이들 압력에서 벗어나 자신의 자금을 축적하고, 동업자를 축출하기도 하며, 지휘 통솔권을 장악하게 된다.

전통적인 제조업 창업자들과 마찬가지로 하이테크 제조업 창업자들과 마찬가지로 하이테크 제조업 창업자의 경우도 자신의 직무에 불만을 갖는 것이 창업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은 동일하다. 앞서 생산 현장의 경험을 거쳐 창업한 사람들에 비해서 이들은 대개 기술 및 설계 부문에서 근무하다가 창업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앞의 생산 분야 창업자들보다 더 우수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많고, 전통적 제조업에 비해 고생스러운 어린 시절을 덜 거치고 있으며, 어떤 경우는 일련의 예비적 창업과정을 거쳐 비교적 덜 고생스럽게 창업하는 경향이 있다.

오스본(Osborne)과 드보락(Dvorak)은 마이크로 컴퓨터 산업에 대한 실증연구를 바탕으로 하이테크 컴퓨터 하드웨어 사업을 시작하는 데 네 단계가 필요하다고 결론지었다. 그들이 제시한 절차는 다음과 같다. (1)표준시제품을 설계하고 완성시킨다, (2)벤처자본을 모금한다, (3)전문인력을 확보한다, (4)사업을 가시화시키고, 고객기반을 개발한다.

하이테크 기술에 기반한 창업은 일반 제조업의 패턴과 상당히 다름을 알 수 있다. 특히 창업 초기에 대량의 투자자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아 벤처자본가들의 도움을 얻어야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창업을 준비하는 과정을 3단계로 구분하여 1단계 '창업준비기', 2단계 '회사설립기', 3단계 '개업준비단계'로 설명할 수 있다. 창업의 제 1단계 '창업준비기'는 창업하고자 하는 업종을 우선 선정하는 일부부터 이루어진다. 업종을 선정할 때에는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품목인지, 고정설비투자가 적은 업종인지, 기술적으로 발전가능성이 있는 업종인지, 자금조달가능성은 충분한지, 시장에서 수요의 증가추세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선택하여야 한다.

업종선택이 이루어지면 그 선정업종의 성공여부를 사전에 분석하는 사업성 분석을 통하여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단계 '회사설립기'는 타당성이 입증된 아이디어가 사업활동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해당관청에서 법적인 인·허가 등을 받으며, 개인기업이나 법인기업형태로 사업주체를 결정하며, 사업자등록이나 법인설립등기를 하게 된다. 3단계는 '개업준비단계'로 회사를 운영하는 관리규정 제정 및 조직구성을 한다. 업종의 선택은 평소의 관심이 있던 분야이거나 전공, 경험, 취미가 사업으로 연결된 경우와 과거의 직장생활 때의 경험이 사업으로 연결된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나. 창업 핵심요소

창업의 과정을 처방하는 대신 창업에서 고려하지 않으면 안되는 절대적 요소를 고려해 보는 것도 중요하다. 기본의 기업을 통제하는 것은 일정 비율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가능할 수 있지만, 창업기업을 세우는 것은 기업 경영의 제반 구성요소를 체계적으로 갖추어 나갈 때만 가능하다. 칼 베스퍼는 창업기업을 세우는 데 요구되는 핵심 구성요소로서 다음의 다섯 가지를 들고 있다.

(1) 기술적 노하우(technical know-how): 창업에 성공적이기 위해서는 제품이나 용역을 생산해 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창업하는 사업의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져야 한다. 창업자 자신이 기술적으로 훈련되어 스스로 터득하고 있는 편이 가장 좋으나 만약 기술이 자신에게 없다면 그 기술을 고용하는 방법으로 획득할 수 있어야 한다.

(2) 제품·서비스 아이디어(product or service idea): 사업의 개시에 무엇보다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잠재적 시장과 고객에게 제공할 제품이나 용역의 특징에 대한 아이디어이다. 창업이 성공하려면 먼저 제품·서비스 개념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한다. 물론 한 아이디어에서 실패했다고 해서 실패한 아이디어에서 파생한 다른 아이디어로 성공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니다. 창업 아이디어는 기업이 커 나가면서 상황의 전개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

(3) 사람 접촉(personal contacts): 창업자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사업에 성공하는 사람은 없어 보인다. 사업의 추진은 진공상태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창업이 시도되고 진행되는 동안 모든 국면에서 사람들과의 접촉이 미치는 영향은 절대적이다. 특히 아이디어를 획득하는 데 있어서 인맥에 의한 접촉은 가장 효과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사업구상 단계부터 성장기에 이르기까지 창업자는 주변의 친지와 가족으로부터 영향을 받게 된다. 창업을 위해서는 이러한 인적인 관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인맥은 창업 과정에서 자신의 사회적 자본이 되어 창업자로 하여금 보다 효과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한다.

사람 접촉의 양상은 창업의 단계별로 다르게 나타난다. 사업 추진의 초기 단계에는 가족이나 친지 등의 비공식적 인맥을 많이 접촉하고, 자금 조달을 시작하는 후기에는 주로 금융인, 회계사, 변호사, 공무원, 부동산업자 등의 공식적인 인맥을 구축하는 경향을 보인다. 기존의 회사에서 사업과 관련된 경험을 쌓

고 회사를 떠나 창업을 시도하는 퇴사 창업사의 경우, 이전의 회사에서 다양하고 효과적인 인맥을 구축할수록 창업에 성공할 확률이 높아지게 된다.

(4) 실물 자원(physical resources): 어느 사업이든 종자돈, 운전자본, 설비자산 등의 물리적 자원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사업 규모나 업종에 따라 자원의 유형별로 그 중요도가 틀리며, 제조업과 같이 대규모의 자원을 필요로 하기도 하고, 서비스업이 같이 매우 적은 자원만으로도 가능한 경우도 있다. 실물 자원을 유치하고 적절히 배치하는 것도 창업자의 주요 역할 중의 하나이다.

(5) 고객의 주문(customer orders):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주려는 고객이 없다면 어떤 창업도 불가능하다. 주문을 찾아내는 방법의 창의성이 창업자들에게는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어떠한 기업도 고객과 시장으로부터의 지속적인 호응이 없이는 생존하고 성공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직접, 간접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창업기업에 있어서 창업자가 수행하여야 할 특히 중요한 요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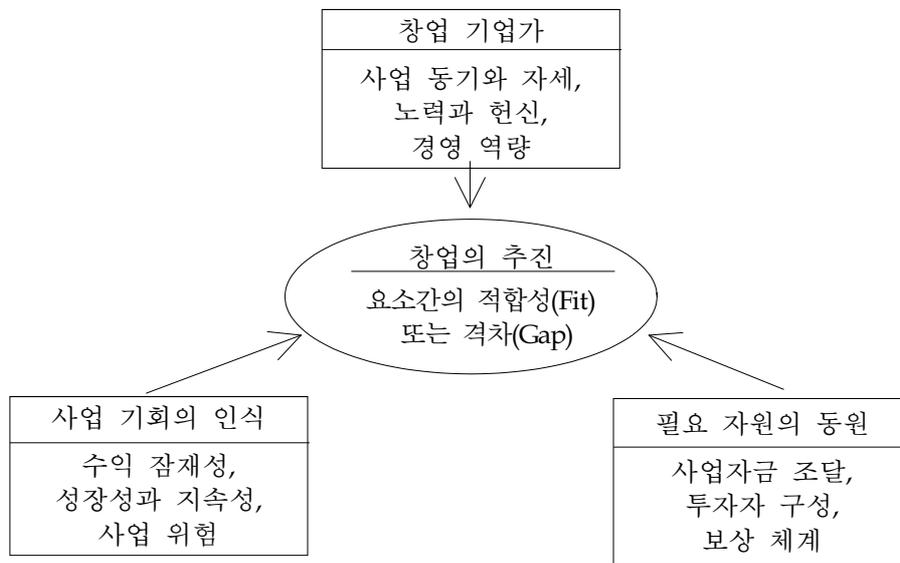
이 다섯 가지 요소들이 모두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창업자들은 이 요소들을 균형있게 챙기지 못하고 어느 한 부분을 간과함으로써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투자자로서의 창업가는 아이디어에 초점을 맞추며, 계약이나 주문에는 중요성을 덜 둔다. 프로모터들은 반면에 자원의 획득을 중시하면서 노하우에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경향이 있다. 판매에 기반한 창업가는 일반적으로 주문을 따내는 데 관심이 있고, 자원획득이나 주문을 수행하는 일에 덜 주의를 기울인다. 기능이나 기술자로 출발한 창업자는 노하우에 강점이 있지만, 창업 아이디어를 명확히 개념화하는 데는 약하다. 이들 구성요소들은 한꺼번에 필요한 것도 아니고, 사업추진의 단계에 따라 어떤 구성요소가 더 중요한지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창업자는 위와 같은 구성요소를 늘 염두에 두고 있으면서 자신이 부족한 요소가 어떤 것인지를 평가하고 보완함으로써 실패의 가능성을 줄여야 한다.

기존의 기업을 관리, 통제하는 것은 일정 비율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가능할 수 있지만, 창업기업을 세우는 것은 기업 경영의 제반 구성요소를 체계적으로 갖추어 나갈 때만 가능하다. 이때 요구되는 핵심적 구성 요소를 따져보면

제품/용역의 아이디어, 기술적 노하우, 물리적 자원, 고객의 주문, 인맥 등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와 같은 창업의 핵심적 구성 요소가 한 번에 갖추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그 중에서 무엇이 사업 추진의 초기 조건이 되고 어떠한 순서로 구성 요소가 구비될지는 창업자와 사업의 배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단지 창업자는 위와 같은 창업의 핵심적 구성 요소를 늘 염두에 둬으로써 어디에 사업의 노력을 집중할 것인가를 파악할 수 있다.

다. 창업 추진세력

일찍이 경제학자 조셉 슈페터(Joseph A. Schumpeter)는 경제 발전의 원동력은 내부로부터 옛 것을 쇄신하는 창조적 파괴(creative destruction)의 과정이며, 그 과정에서 창업 기업가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고 제시한 바 있다.



자료: 정승화(1999). 「벤처 창업론」, p.5에서 재인용.

<그림 II-1> 창업의 추진 세력

그에 의하면 경제 발전은 결국 생산방법의 새로운 조합을 창출하는 것이다.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1) 신제품의 개발, (2) 새로운 생산 방식의 도입, (3) 신시장의 개척, (4) 새로운 공급자의 확보, 그리고 (5) 독점과 같은 새로운 산업 조직 또는 경쟁 체제의 구축을 들 수 있다.

새로운 기업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창업자의 땀과 노력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주변 여건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창업 과정에 있어 주요 추진 세력(driving force)은 크게 세 가지로 집약될 수 있다.

<그림 II-1>에서 보듯이 창업 기업가, 사업기회의 인식, 그리고 요구되는 자원의 동원 등이 바로 그것이다. 즉, 창의적인 발상과 추진력을 지닌 기업가가 새로운 사업 기회를 인식하고 그것을 포착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효과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창업 기업이 성공적으로 설립되고 성장의 바탕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다.

1) 창업 기업가

창업의 성공적 추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창업 기업가(entrepreneur) 자신이다. 많은 연구결과가 이를 입증하고 있으며, 특히 고도의 기술력이 요구되는 첨단 기술 벤처기업의 경우에 있어서도 이를 지원하는 모험 자본가(venture capitalist)들은 기술력 그 자체보다 창업자와 벤처팀의 자질과 과거의 입증된 성공력에 가장 높은 비중을 두고 있다. 인텔, 애플 컴퓨터, 페어차일드 반도체 등에 선도적으로 투자를 해 온 저명한 모험 자본가 아더 록(Arthur Rock)은 “좋은 인재를 찾아낸다면 제품을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 내가 지금까지 늘 범해왔던 실책은 그릇된 아이디어를 골랐던 것보다는 사람을 잘못 골랐던 것이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경험적으로 볼 때 생계유지에 우선을 두는 단독 창업자(solo entrepreneur)에 비해 창업자와 창업 동지의 팀워크에 의한 창업은 사업 그 자체를 번창케 하는 데 더 기여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자기의 사업을 고수익의 대규모 사업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창업자는 팀워크를 신중히 생각하고 관리할 줄 아는 능력을 지녀야 한다. 이러한 팀워크 관리 능력이 부족할 때 창업자는 스스로 투

자와 재무 기획을 용의주도하게 실행하여야 나름대로의 시장 틈새를 엮어내고 부를 창출할 수 있다. 사업의 규모가 어느 정도 대규모화하기 시작할 때 단독 창업자는 기업의 경영 일선에서 물러남으로써 사업의 성장을 지속할 수 있다. 반면 팀워크로 사세가 팽창된 기업은 시의 적절한 권한 위양과 점진적 전문화에 의해 창업자가 기업을 지휘하는 상태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유지하기가 보다 쉬워진다.

그동안 창업 기업가에 대한 다양한 정의가 존재해 왔고, 현재도 성공적인 창업자의 공통적인 특징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의문이 지속되고 있다. 기존의 다양한 정의에서 나타나는 공통적 특징은 (1)창의성과 혁신력, (2)자원 획득과 경제적 조직의 창설력, (3)위험과 불확실성 하에서의 수익 잠재성 추구 등이다.

2) 사업기회의 인식

창업 추진상 두 번째의 주요소는 사업 기회를 정확하고 시의 적절하게 인식하는 것이다. 사업 기회를 발견해내는 데 있어 좋은 도움이자 원천이 되는 것은 소비자, 유통업자, 기술자 등이다. 소비자들은 일상 생활과 업무상 이러한 제품이나 서비스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지 하고 표현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러한 잠재 수요를 정확하게 포착하면 좋은 사업 기회가 될 수 있다. 한편, 사업 기회를 인식하는 데 있어 기반이 되는 것은 창의적 사업 아이디어라고 하겠다. 하지만 아이디어 자체가 바로 가치 창조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기업가, 회사원, 발명가, 연구원, 대학생 등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사업화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무수히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반드시 좋은 사업 기회를 제공하지는 못한다. 요컨대 아이디어가 반드시 기회가 되지 않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유망 업종과 신종 사업 등에 관해서 많은 창업 관련 서적들이 언급하고 있고, 실제로 사업 아이디어를 평가하고 추출하는 수많은 방법론이 존재한다. 이렇게 난무하는 사업 아이디어에도 불구하고 수십 억 이상의 외형으로 성장하는 회사는 전체 회사 수의 반의 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창업자는 다음 두 가지 점을 고려해야 한다. 먼저 제반 상황의 변화, 예컨대 기술의 진보, 시장 특성의 변동, 정부 규제의 개혁, 경쟁 구도의 변화 등은 균

형을 이루어 왔던 시장에 이윤 추구의 틈새가 생기는 것을 의미한다. 즉 시장이 불완전하게 됨으로써 자원이나 정보 배분상의 불균등, 불일치, 격차 등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사업 기회도 늘어나게 된다. 불완전 시장의 포착 능력은 적시성이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기회를 너무 늦게, 또는 너무 일찍 발견하는 것은 이윤 창출의 기반을 약화시킨다. 여기서 기회의 창(window of opportunity)이라는 개념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사업 기회는 다분히 상황적이며, 특정한 상황 속에서 주요 플레이어들, 즉 벤처팀의 장단점, 경쟁자의 반응, 고객의 요구 등이 어우러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며, 그에 따라 사업 위험의 부담도 달라진다.

사업 기회를 실제로 추구할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추상적인 수준의 사업 구성에 대한 신중하고 체계적인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기회 분석(opportunity analysis), 또는 기회 평가(opportunity assessment plan)이라고 부른다.

3) 필요 자원의 동원

사업 기회를 실행에 옮기는 데 요구되는 자원을 파악하고 유치하며 관리해 나가는 것도 창업자 및 사업 기회와 더불어 창업의 주요 추진 요소 중의 하나이다. 창업자들은 자원을 활용하는 데 있어 일반적인 경영자들에 비해 독특한 입장을 지니는 것이 보통이다. 즉 창업자는 최소한의 자원으로도 사업 추진을 감행하고 주어진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자 각별한 노력을 한다. 대부분의 경우 창업자 자신의 초기 자본금 기여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발로 뛰는 소위 땀의 자본(sweat equity)을 투여하게 되고, 고객으로부터 선수금을 받아내거나 물물 교환거래를 하는 등 자력으로 살아남는 각종 방법을 모색한다. 이렇게 스스로 희소 자원을 독특하게 활용하고 외부 자원을 확보하려는 각별한 노력을 보임으로써 성공적인 창업자는 자신의 사업 계획서가 사업 자원을 제공하는 이들에게 보다 매력적으로 받아들여지게 한다.

창업 초기에 대부분의 창업자가 경험하는 지상 최대의 과제이자 애로 사항은 자금조달의 문제이다. 중소기업청이 접수하는 민원 사항의 평균 2건 중 1건

은 자금과 관련된 것이다. 이에에는 자금 지원, 신용 보증, 거래 관행개선 등이 포함된다. 다른 모든 기업과 마찬가지로 창업기업도 당연히 자금이 없이는 추진될 수 없다. 하지만 창업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는 능력은 결국 사업성과 수익성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다른 부문들이 어떻게 잘 구성되어 있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다. 즉 훌륭한 경영진과 기술진이 좋은 사업 기회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신뢰감을 심어줄 수 있다면 자금 조달이 이에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된다.

3. 여성 전문인력의 창업활동의 특징

가. 여성 전문인력의 창업동기

창업활동에서의 전문인력의 범주는 전문지식과 경험을 소유한 인력으로 구분할 수 있다. 양인숙 외(2003)의 연구에서는 여성 지식근로자를 고학력, 고숙련 여성인력으로 정의하였는데, 근로자의 인적 특성을 기준으로 분류한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전문인력의 범위를 고학력, 직업경력이 있는 경우로 설정하였다.

여성창업의 동기에 관한 초기 연구들은 창업동기를 밀어내는(push) 요인과 끌어당기는(pull) 요인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밀어내는 요인이란 필요에 의해 창업을 하게 되는 경우인데, 이전 직장이나 소득에 대한 불만, 실업, 유동적 스케줄을 선호하기 때문에, 그리고 가족에 대한 걱정 등으로 인한 창업을 말한다. 끌어당기는 요인은 적극적 이유 때문에 창업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데, 독립성, 자아실현의 동기, 기업가적 충동, 더 많은 소득에 대한 욕구, 사회적 사명, 사회적 지위와 권력 추구 등의 이유로 창업을 하는 경우이다.

우리나라 여성의 창업동기에 대한 연구들에서, 여성의 창업동기는 남성과 차이가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남성 창업자는 남성 창업가는 독자적으로 일을 하고 싶거나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 보다 높은 통제력을 얻기 위해

서, 또는 보다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창업을 하려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여성 창업가는 직장생활에서의 한계, 구직의 어려움, 육·가사와의 병행의 어려움으로 인한 것으로 나타난다(김영옥 1998; 문숙재 외 2001; 전방지 2002).

이러한 특성은 우리나라 여성창업이 생계형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내재적 요인보다는 외재적 요인 즉, 소득이나 가족 등의 이유로 사업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여성 전문인력의 창업은 일반 여성의 창업동기와 다른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여성 벤처창업자는 아이디어의 사업화, 시장기회의 인식, 창업욕구 등을 이유로 창업동기를 꼽고 있어(<표 II-1 참조>), 남성 벤처창업자와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이할 만한 것은 기술적 아이디어의 사업화의 이유로 창업한다는 비율이 여성 벤처창업자(44.8%)가 남성 벤처창업자(41.7%)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전문업종에서의 여성창업은 일반 여성창업과는 달리 아이디어의 사업화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경우에 사업을 시작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II-1> 남녀 벤처창업자의 창업동기

(단위: 명, %)

창업동기	남성	여성	계
창업욕구(창업자체가 목적)	682(12.2)	20(9.5)	7.2(12.1)
기술적 아이디어의 사업화	2,300(41.7)	94(44.8)	2,424(41.8)
신규시장 형성에 대한 기회인식	1,954(34.9)	68(32.4)	2,022(34.8)
주위의 사업화 권유로	151(2.7)	8(3.8)	159(2.7)
퇴직, 은퇴에 따라 일자리 확보	100(1.8)	5(2.4)	105(1.8)
유휴자본의 사업기회 모색	63(1.1)	5(2.4)	68(1.2)
기존 직장보다 고소득 위해	188(3.4)	5(2.4)	193(3.3)
기타	126(2.3)	5(2.4)	131(2.3)

주: 총 3,195명(무응답자 397명)의 복수응답 항목임(최대 2개까지 가능)

자료 : 중소기업청(2000). 「1999년 벤처기업 실태조사」.

한정화 외(2003)의 연구에서도 선행연구를 통하여 여성 벤처창업자는 직장에서의 제한된 승진기회나 불안정한 직장생활과 같은 부정적 창업촉진요인(push factor)보다는 긍정적 창업촉진요인(pull factor)에 의해 창업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그의 연구에서는 여성 벤처창업자의 창업동기 유형을 독립욕구, 개발욕구, 호의적 여건(환경적 측면)으로 분류⁵⁾하여 조사한 결과를 밝히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개인적 동기요인을 주로 강조한 연구들과는 달리, 여성창업의 경우 상황적 요인, 즉 사회적 인식이나 주변·가족들의 지원에 의한 요인이 매우 주요한 창업동기로 작용함을 발견하였다.

나. 창업자 유형 분류

창업유형은 창업배경, 목적, 관리방법을 포함한 다양한 특성을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다. 최근까지의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어떤 하나의 특정한 형태의 분류에 대해서 의견일치를 보이고 있지는 않으며, 관점에 따라 벤처기업의 성과, 관리적 특성, 기업구조, 혁신정도, 창업과정, 기회의 인식 등으로 여러 유형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상석(2003)의 연구는 창업자 유형을 기회창업자(general/opportunistic entrepreneur)와 기술창업자(technical/craftsman entrepreneur)로 분류한 기존 연구들의 개념을 정리하였다<표 II-2>. 그의 연구를 재인용하면, Schinedehutte 외 (2000)는 창업자의 유형을 기회창업자(general/opportunistic entrepreneur)와 기술창업자(technical/craftsman entrepreneur)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이론의 발전적 연구들에서는 기술창업자는 교육적, 관리적 경험이 부족한 생산직(blue-collar) 출신이며, 관리적인 임무를 수행하기 보다는 기술적인 일을 선호하며, “부를 축적하는 것(making a lot of money)”보다는 “안락한 삶을 영위하

5) 독립욕구는 누구의 지시를 받기보다는 자신이 독자적으로 자신의 일과 생활을 수행하고자 하는 욕구를 말하며, 개발욕구는 자기자신에 대한 개발욕구, 지역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욕구를 말한다. 창업동기요인 중 호의적 여건에 의한 요인은 여성창업자가 지각하는 창업여건의 호의성 정도를 말한다. 즉, 여성창업에 대한 사회전반적인 분위기와 가족들의 지원정도, 이전 직장이나 사회에서의 성차별 정도에 대한 환경적 측면을 다루고 있다(한정화 외, 2003).

는 것(making a comfortable living)“에 일차적인 동기요인으로 가지고 있다. 또한 그들은 위험을 회피하고 다양한 투자자와 파트너를 선호하지 않는다. 따라서 고성장 사업을 경험하지 못하고 변화를 수용하지 않으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

<표 II-2> 창업유형에 대한 선행연구

연구자	분류기준	내용
Filley & Aldag(1980)	-	기술/추진/관리
Dunkelberg & Cooper(1982)	-	기술자/성장중심창업자/독립창업자
Smith & Miner(1983) Lorraine & Dussault(1987) Davidsson(1988) Lee & Osteryoung Schindehutte(2000)	창업자 배경, 교육, 경험, 이전직업 퇴직사유, 사회적 지위, 창업자의 특성	기회창업/기술창업
Braden(1977)	창업목표	관리자/경영자
Filley & Aldag(1980)	경영자의 태도/목표, 전략, 경영시스템, 경영스타일, 이사회	기술/추진/관리 창업자
Dunkelberg & Cooper(1982)	목표, 태도, 경영스타일, 사업특성	기술자/성장중심/독립창업자
Stewart, Watson, Carland(1999)	성취동기, 위험감수성향, 혁신선호도	중소기업소유자/창업가
Lafuente & Salas(1989)	창업목표	기술/가족/관리적/위험창업자
Miner(2000)	졸업전 창업자 성향과 사업계획 능력, 졸업 후 창업자 활동	개인성취자/판매관리자/실제경영자/아이디어전문가
Longenecker(2003)	관리적/교육적 관점	장인창업/기회자창업

주: 이상석(2003), “여성기업의 성장단계별 컨설팅에 관한 연구”, 「중소기업연구」, 제25권 제3호, p. 135 수정보완.

반면에 기회창업자(opportunists)는 폭넓은 경험과 고학력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미래지향적이고 관리적, 도전적인 성향으로 설명될 수 있다. 따라서 그들은 환경에 대한 적응능력에 자신감을 가지고 있으며 변화를 기꺼이 수용한다. 그들의 조직은 급속히 성장하며 다양하고 혁신적인 전략을 추구하

고 외부 자금조달에 적극적이다. 이들 창업자들은 재무적 이득과 성공적인 조직을 구축하기 위한 기회에 의해서 동기유발된다고 볼 수 있다.

이상석(2003)의 창업유형의 두 가지 분류에 대한 기본적인 차이는 관리적, 교육적 관점의 차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기술창업은 가부장적인 방식으로 사업을 시도하려는 경향이 있는 숙련된 기술자 중심의 창업이며, 기회창업과는 대조적으로 더 전문적인 방식으로 사업을 시도하고 비기술적 문제에 대해서는 특정교육을 통하여 보완하려는 경향이 있는 창업으로 보았다.

이러한 논의에서 우리나라 창업환경 및 여성기업인의 특성을 감안할 때, 여성 전문인력의 창업유형은 전문지식을 갖추고, 새로운 환경에 도전하는 기회창업의 유형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다. 창업 성공요인

정성한 외(2001)은 소상공인의 창업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세 가지 요인으로 분류하여 설명하였다. 첫째, 개인특성 요인에서는 창업자의 경험을 나타내는 업종경험과 창업 및 경영경험, 그리고 창업자의 심리학적 특성으로 성취욕구, 행동통제위치, 위험감수성향, 모호성 수용력이 포함되었다. 두 번째 성공요인은 창업자금의 양과 원천, 자금부족 등 자금조달과 관련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경영관리요인으로서 자금통제, 계획, 상담, 가격, 촉진, 입지, 품질이 다루어졌다. 그의 연구에서는 개인적 특성의 성취욕구가 소상공인의 만족도와는 정적인 관계를 보였으나, 매출액과 순수익의 성과와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성취욕구가 높은 창업자일수록 보다 큰 만족을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창업자금액이 클수록 매출액이 높게 나타났으며, 순수익에서는 창업자금과 자기자본율이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즉 창업자금과 창업자금에 대한 자기자금이 높을수록 순수익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경영관리요인에서는 품질이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다른 결과변수와는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한편, 배병렬 외(2001)의 연구에서는 벤처기업의 성공요인을 창업자 특성,

조직특성, 전략특성, 환경특성으로 분류⁶⁾하고, 기업성장단계별 (창업기, 성장기, 성숙기) 성공요인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창업기의 창업자특성으로는 자율성과 일에 대한 의욕이, 조직특성에서는 보상제도가, 환경특성에서는 구매자의 집중도가, 전략특성에서는 제품라인의 현 시장과의 적합성이, 의미 있는 변수로 추출되었다. 성장기에는 확고한 경영이념의 유지와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더 경쟁력이 있고, 현장과 마케팅 기법들이 적합할수록 성과가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성숙기에는 사업의 유연성과 권한이 잘 분산되어 정보가 자유롭게 흐를 수 있고, 해당 기업의 경쟁우위를 확보함으로써 경쟁자의 수가 적고 현 시장과 제품라인이 적합하고 품질우위 전략을 추구할 때 성과가 좋게 나타났다.

위 연구들은 여성창업의 성공요인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지만, 창업에 성공하기 위한 요인들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요인들 중에서 여성창업의 성공가능성은 해당 산업에서의 취업 경험의 여부가 더욱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정성한 외 2001; 전방지 2002). 이는 현장의 경험을 통하여 창업하려는 사업에 대한 지식획득의 차원뿐만이 아니라, 사회적 네트워크가 부족한 여성들에게 직장생활을 통한 인맥확보가 창업 후 기업경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 여성창업의 애로사항

선행연구에서의 여성 창업과정의 애로사항은 크게 자금조달과 가사와 기업 경영의 균형유지라는 두 가지 문제점으로 밝히고 있다(최영숙, 2000; 문숙재 외, 2001; 전방지 2002). 이는 사업아이디어 발굴, 직원고용 문제, 사업부지 선

6) 창업자 특성에 대한 내용은 성취욕구, 위험감수, 모호성에 대한 인내, 자율성, 자부심, 독립성, 일에 대한 의욕, 직장/사업경력, 전문가 자문, 파트너쉽, 사업의 유연성, 비전과 목표, 경영이념을 포함하고 있으며, 조직특성은 공식도, 권한 집중도, 조직의 유연성, 의사결정의 참여도, 부문간 통합정도, 보상제도, 기업문화, 전문인을 포함함. 전략특성은: 품질우위 지향, 비용우위 지향, 기술능력, 마케팅 능력, 자금조달 능력, 현 기술과의 적합성, 현시장과의 적합성, 연구·개발을 말하며, 환경특성은 시장의 성장성, 기업의 규모, 경쟁강도, 경쟁자의 수, 진입장벽, 구매자의 집중도를 말함.

정문제, 시장 발견 등의 실질적 기업경영 요인들보다 더 심각한 장애요인으로 나타나, 여성들의 창업활동이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즉, 여성의 전통적 성역할과 여성기업인에 대한 낮은 사회적 인식은 여성의 기업경영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여성기업의 창업관련 애로사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사노동/사업병행으로 인한 이중노동이 19.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자금조달(18.6%), 인력확보(8.8%), 남성위주의 집대문화(8.2%), 판매처 확보(8.2%), 부정적 사회인식(7.7%), 성차별(5.7%), 제품개발(5.2%), 시설 및 설비확보(4.2%), 사업 아이디어 발굴(3.6%)의 순으로 나타났다(문숙재 외, 2001).

미국의 여성창업은 1980년 이후부터 활발히 전개되었는데, 초기 전통적 여성창업은 서비스업종에서의 소규모 창업이 다수를 차지했다. 전통적 여성창업가들은 대학에서 경영이나 기술보다는 인문분야를 주로 전공하였기에 (Stevenson, 1986) 창업 후 경영관리나 재무, 마케팅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며, 열악한 자금사정 문제가 나타났다(Pellegrino & Reese, 1982).

여성 전문인력 집단을 대상으로 한 창업과정의 애로사항을 조사한 연구는 없었다. 앞서 설명한 창업동기나 창업 성공요인에 있어서는 여성 전문인력 집단이 일반 여성의 창업과 다른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성창업과정의 애로사항으로 위에서 밝혀진 요인과 유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요인들은 성역할과 사회적 인식 등의 외재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여성들 스스로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이다.

Ⅲ



여성기업 및 여성창업의
현황

1. 여성기업 현황	35
2. 여성창업 현황	41
3. 소결	83



1. 여성기업 현황

통계청에서 발간된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⁷⁾의 2002년 기준 원자료를 이용하여 파악한 2002년 기준 여성이 대표로 있는 사업체수는 총 1,117,664개 사로, 전체 사업체의 35.7%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대비 4.8% 증가하여 전체 사업체수 증가율 2.8%보다 컸다.

전체 종사자수 규모는 14,608,322명으로 이중 여성 사업체 종사자 수는 5,892,187명으로 전체의 40.3%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8,716,135명, 59.6%는 남성 사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 여성 대표자 사업체수

	2001년	2002년	전년대비
전체 사업체수(A)	3,046,554개	3,131,963개	2.8%
여성 사업체수(B)	1,066,375개	1,117,664개	4.8%
여성사업체비율 (B/A×100)	35.0%	35.7%	0.7%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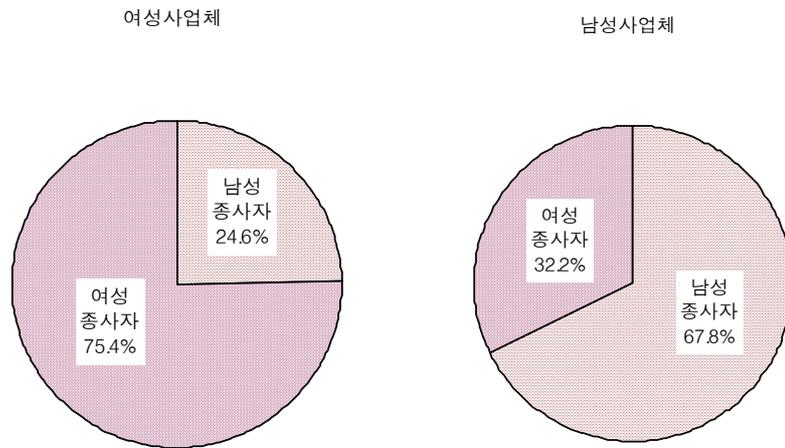
자료 : 통계청(2003), 『2002 사업체기초통계조사 보고서』.

전체 종사자의 14,608,322명 중 여성은 2,745,755명으로 전체의 18.8%를 차지하고 있다. 종사자 분포를 사업체 대표자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남성사업체에 종사하는 여성 종사자 비율은 32.2%에 불과한 반면, 여성 사업체의 여성 종사자 비율은 75.4%로 남성 사업체보다 무려 43.2%p나 높게 나타났다. 여성 사업체의 조직형태별 분포는 95.7%(1,060,417개)가 개인사업체이고 회사법인은

7) 사업체기초통계조사는 조사기준일(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의 행정권이 미치는 전 지역에 소재하는 모든 사업체를 조사대상으로 하되 다음의 업체는 제외한다.

- 개인이 경영하는 농림·어업사업체
(법인 및 비법인 단체가 경영하는 사업체는 조사대상)
- 국방 및 가사서비스업
- 국제기구 및 외국기관
- 고정설비가 없거나 영업장소가 일정치 않은 간이 판매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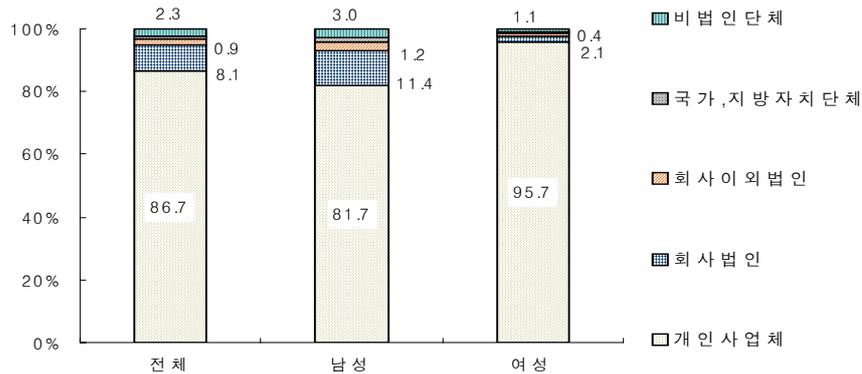
2.1%(23,056개)에 불과하였다. 남성 사업체의 경우는 개인사업체 비율이 81.7%(1,646,605개)이고 회사법인비율은 11.4%(229,781개)로 여성 사업체에 비해 회사법인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자료 : 통계청(2003), 『2002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원자료.

<그림 III-1> 남녀 사업체의 종사자 성별 분포

회사 법인의 경우 사업체 형태 분포는 '단독사업체'가 전체 회사법인의 62.8%로 가장 많은데 여성 사업체의 경우는 59.2%로 그 비율이 약간 낮았고 여성 사업체의 '본사, 본점, 본부'의 비율도 4.5%로 전체 6.2%, 남성 6.1%에 비해 낮았다. '공장, 지사, 영업소'의 경우는 36.3%로 전체 사업체와 남성 사업체에서의 비율 31.1%, 30.6% 보다 높게 나타났다.



자료 : 통계청(2003), 『2002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원자료.

<그림 III-2> 남녀 사업체의 조직형태별 사업체 분포

<표 III-2> 남녀 사업체의 회사형태 분포

(단위 : %, 개)

	단독사업체	공장, 지사, 영업소	본사, 본점, 본부	전체
여성대표	59.2(13,652)	36.3(8,360)	1,044(4.5)	23,056(100.0)
남성대표	63.2(145,179)	30.6(70,334)	14,268(6.2)	229,781(100.0)
전체	62.8(158,831)	31.1(78,694)	15,312(6.1)	252,837(100.0)

자료 : 통계청(2003), 『2002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원자료

여성 사업체의 산업별 분포를 보면 '숙박 및 음식점업'이 38.6%(431,178개) 비율로 가장 많았고 '도소매업'이 30.1%(335,969개)로 그 다음으로 많아 두 산업이 여성 사업체에 차지하는 비율이 6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남성 사업체의 경우는 '도소매업'은 27.9%를 차지하고 있고, 여성 사업체와 달리 '운수업'과 '제조업'이 각각 14.8%, 14.0%로 높게 나타났다. 여성 사업체의 '제조업' 비율은 4.6%(51,264개)로 낮게 나타났다. 여성 사업체와 남성 사업체의

산업별 분포를 비교하였을 때, 여성 사업체에서의 비율이 높은 산업은 '숙박 및 음식점업'과 '도소매업' 이외에 '교육서비스업'으로 나타났다.

<표 III-3> 남녀 사업체의 산업별 분포

(단위 : %, 개)

산업	여성	남성	전체	여성	남성	전체
농업 및 임업/어업/광업	0.0	0.2	0.2	178	4,091	4,269
제조업	4.6	14.0	10.7	51,264	282,657	333,921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0.0	0.1	0.0	13	1,473	1,486
건설업	0.5	3.6	2.5	5,947	72,635	78,582
도소매업	30.1	27.9	28.7	335,969	562,905	898,874
숙박 및 음식점업	38.6	10.1	20.3	431,178	204,319	635,497
운수업	0.9	14.8	9.8	9,656	298,697	308,353
통신업	0.1	0.3	0.3	1,204	6,902	8,106
금융 및 보험업	0.3	1.6	1.2	3,256	32,941	36,197
부동산업 및 임대업	2.3	3.8	3.3	25,542	76,761	102,303
사업서비스업	0.8	3.5	2.5	8,392	71,249	79,641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0.0	0.6	0.4	172	11,852	12,024
교육 서비스업	5.8	2.4	3.6	65,039	47,970	113,009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1.8	2.3	2.1	19,855	46,198	66,053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산업	3.4	3.9	3.8	38,376	79,135	117,511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10.9	10.6	10.7	121,623	214,514	336,137
전산업	100.0	100.0	100.0	1,117,664	2,014,299	3,131,963

자료 : 통계청(2003), 『2002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원자료.

<표 III-4> 남녀 사업체의 규모별 분포

(단위 : %, 개)

	5인 미만	5~9	10~19	20~49	50~99	100~299	300인 이상	전 규모
여성 대표	92.3 (1,031,527)	5.6 (62,437)	1.4 (15,523)	0.6 (6,408)	0.1 (1,310)	0.0 (391)	0.01 (68)	100.0 (1,117,664)
남성 대표	79.6 (1,603,845)	10.9 (218,872)	5.2 (103,749)	2.9 (59,391)	0.9 (17,616)	0.4 (8,420)	0.12 (2,406)	100.0 (2,014,299)
전체	84.1 (2,635,373)	9.0 (281,309)	3.8 (119,272)	2.1 (65,799)	0.6 (18,926)	0.3 (8,811)	0.08 (2,474)	100.0 (3,131,963)

자료 : 통계청(2003), 『2002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원자료.

여성 사업체의 규모별 분포는 '5인 미만'이 92.3%(1,031,527개)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5~9인'이 5.6%(62,437개)로 그 다음으로 많았다(<표 III-4> 참조). 두 규모를 합하여 '10인 미만'으로 보면 97.9%를 차지하여, 남성 사업체 '10인 미만'의 비율 93.1%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여성 사업체의 '300인 이상' 규모 비율은 0.01%로 남성의 0.12%의 1/10 수준이다.⁸⁾

여성 사업체의 지역별 분포는 서울이 20.0%(223,969개)로 가장 많고 이어 경기와 경상도 지역이 각각 16.7%(186,784개), 13.5%(151,241개)로 많이 분포하고 있었다. 사업체가 가장 적게 분포하고 있는 지역은 제주로 1.6%(17,916개)에 불과하였다. 남성 사업체 분포도 이와 유사하여 지역별 사업체 분포에서는 여성 사업체와 남성 사업체 간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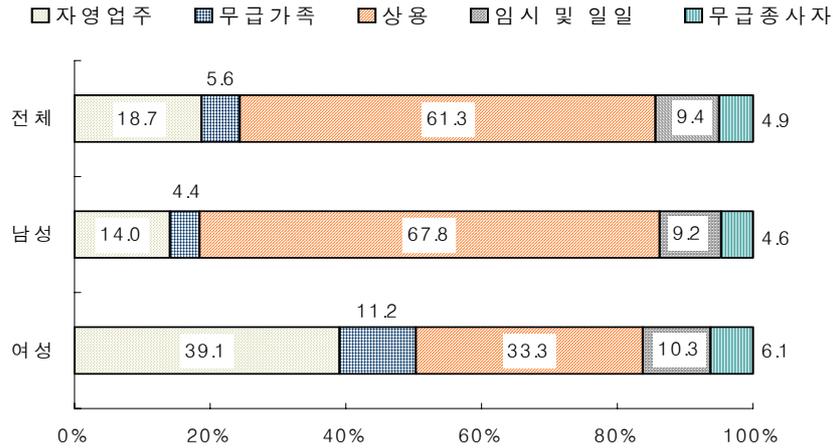
<표 III-5> 남녀 사업체의 지역별 분포

(단위 : %, 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청	전라	경상	제주	전국
여성	20.0	9.2	5.7	4.9	3.1	3.0	2.5	16.7	4.2	7.1	8.4	13.5	1.6	100.0
	223,969	102,395	63,434	54,426	34,973	34,043	27,840	186,784	47,325	79,650	93,668	151,241	17,916	1,117,664
남성	25.4	8.3	5.9	4.9	2.9	2.9	1.8	17.6	3.3	6.8	7.7	11.5	1.2	100.0
	511,289	166,389	119,142	99,108	58,188	57,807	35,338	353,970	65,951	136,796	154,292	232,189	23,840	2,014,299
전체	23.5	8.6	5.8	4.9	3.0	2.9	2.0	17.3	3.6	6.9	7.9	12.2	1.3	100.0
	735,258	268,784	182,576	153,534	93,161	91,850	63,178	540,754	113,276	216,446	247,960	383,430	41,756	3,131,963

자료 : 통계청(2003), 『2002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원자료.

8) '300인 이상' 규모에서 종사자수 '1,000인 이상' 사업체 수는 여성 사업체 10개사, 남성 사업체 360개사로 남성이 36배가 많다 (통계청(2003), 『2002 사업체기초통계조사 보고서』).



자료 : 통계청(2003), 『2002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원자료.

<그림 III-3> 남녀 사업체의 종사상 지위 분포

여성 사업체 종사자들의 지위별⁹⁾ 분포를 보면, ‘자영업주’가 39.1%(1,072,987명)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상용종사자’ 33.3%(915,479명), ‘무급가족종사자’ 11.2%(306,864명), ‘임시 및 일일종사자’ 10.3%(281,564명), ‘무급종사자’ 6.1%(168,861명) 순서로 많았다. 이를 남성 사업체와 비교하면 ‘자영업주’ 비율은 약 2.8배 가량 높은 반면, ‘상용근로자’ 비율은 남성의 절반 수준으로 적었다.

9) 통계청의 『사업체기초통계조사 보고서』상의 종사상 지위별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자영업주 : 동업자를 포함한 개인사업체의 소유주
 · 무급가족종사자 : 자영업주의 가족으로서 정상작업(영업)시간의 1/3이상 종사하거나, 봉급 혹은 임금을 받지 않는 자
 · 상용종사자 : 1년 이상 고용되어 일정한 급여를 받는 자를 말하여, 자영업주를 제외한 모든 유급임원도 여기에 포함.
 · 임시 및 일일종사자 : 1년 미만 고용되었거나 일일수당제로 고용된 자
 · 무급종사자 : 일정한 급여 없이 봉사료 또는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수수료만을 받는 자 (예 : 접대부, 외판원, 배달원, 무보수 근로자 등)

여성 사업체의 '자영업주' 비율이 남성 사업체에 비해 높은 것은 앞서 살펴본 사업체 형태에서 여성 사업체의 '개인사업체' 비율이 95.7%로 남성의 81.7%보다 높다는 점에서 예상할 수 있는 결과이다.

종사상 지위의 산업별 분포를 여성 사업체와 남성 사업체와 비교해 보면 여성 사업체의 경우 '자영업주' 비율이 전 산업에 걸쳐 전반적으로 높은 가운데 '도소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의 49.2%, 44.6%로 가장 높았다(<부표 1> 참조). '제조업', '교육서비스업'은 '상용 종사자'의 비율이 높은 산업에 속하였고 '건설업'은 산업의 특성상 '임시 및 일일 종사자' 비율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남성 사업체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금융 및 보험업'의 경우는 '무급종사자' 비율이 높았는데 이는 보험업의 '보험판매원' 종사자가 많기 때문에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규모별로 산업의 분포를 살펴보면 앞서 살펴보았듯이 여성사업체의 경우 '4인 이하'가 전체의 92.3%로 가장 많은 가운데 역시 여성사업체가 많이 속한 '숙박 및 음식점업'과 '도소매업'의 '4인 이하' 규모가 차지하는 비율은 95.9%, 93.2%에 달하였다. '4인 이하' 규모가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여성 사업체는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사업'으로 97.0%였다(<부표 2> 참조).

남성 사업체의 경우도 '4인 이하' 규모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남성 사업체의 79.6%로 가장 많고 '4인 이하'가 90%이상을 차지하는 산업은 '운수업'(94.8%),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사업'(92.8%),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90.6%)로 나타났다.

2. 여성창업 현황

한국여성경제인협회는 통계청의 『2001년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의 여성기업 약 103만개 사업체를 모집단으로 농업, 임업, 어업, 광업을 제외한 사업체를 제외한 2,043개 여성사업체를 추출하여 여성기업의 창업현황, 기업현황 전반에 관하여 여성기업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의 『2003년 여성기업실태조사』의 조사대상기간은 2002년 1월1일~12월31일이었으며 실제 조사 실시는 2003년 5월17일~6월30일 기간 동안 여성 기업인에 대해 이루어졌다. 본 연구는 한국여성경제인협회의 『2003년 여성기업실태조사』 원자료를 입수하여 여성기업의 창업과정과 기업현황에 관해 분석을 하였다.

조사 기업의 업종별 분포는 제조업이 758개사, 37.6%로 가장 많고 도소매업 219개사, 10.9%, 교육/보건 서비스업 202개사, 10.0%이다.¹⁰⁾ 규모별 분포는 5인 미만이 40.6%, 818개사로 가장 많고 5~19인 미만이 36.8% 741개사로 그 다음으로 많았다.

<표 III-6> 조사대상 여성 기업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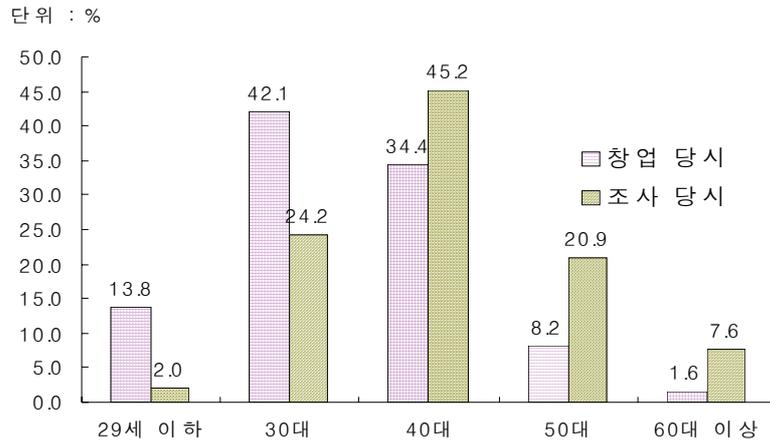
구분		개	%
전체		2,014	100.0
업종	제조업	758	37.6
	건설업	160	7.9
	통신업	67	3.3
	도소매업	219	10.9
	음식·숙박업	119	5.9
	운수업	79	3.9
	금융보험업	39	1.9
	부동산·임대업	63	3.1
	사업서비스업	188	9.3
	교육/보건서비스업	202	10.0
	기타	120	6.0
규모	5인 미만	818	40.6
	5~19인 미만	741	36.8
	20~49인 미만	336	16.7
	50~99인 미만	77	3.8
	100~299인 미만	33	1.6
	300인 이상	9	0.4

자료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2003 여성기업실태조사』 원자료.

10) 전국에 있는 여성기업의 전체 업종별 분포를 보면 '숙박·음식점업'이 38.6%, '도·소매업'이 30.1%로 가장 많고 '제조업'은 4.6%에 불과하다(통계청, 『2002년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

가. 창업활동 관련 현황

창업 당시 여성 기업인의 연령 분포는 30대가 847명, 42.1%로 가장 많고, 40대 34.4%(692명)로 30~40대가 여성창업연령의 70%이상을 차지했다. 조사 시점에서 연령별 분포는 40대가 910명, 45.2%로 가장 많고 30대가 24.2%(488명), 50대가 20.9%(421명)이며 29세 이하는 2.0%(41명)에 불과해 창업 당시 연령 분포와 비교하여 기업의 연수가 더해짐에 따라 여성기업인의 연령도 전반적으로 높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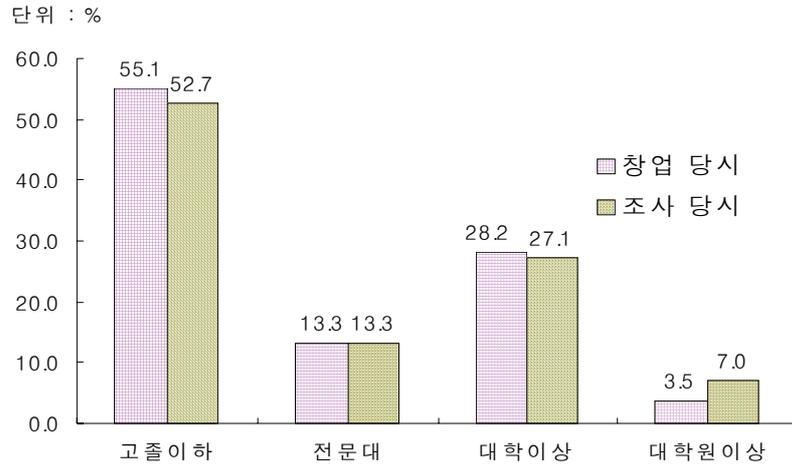


자료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2003 여성기업실태조사』 원자료.

<그림 III-4> 여성 기업인의 연령별 분포

창업 당시 학력분포는 고졸이하가 55.1%, 1,109명으로 가장 많았고 나머지 대졸과 전문대졸에 각각 28.2%(567명), 13.3%(267명) 분포하고 있었다. 조사 당시 여성기업인의 학력 분포는 고졸이하가 52.7%(1,061명)이고 대졸이 27.1%(546명), 전문대졸이 13.3%(267명) 등으로 나타났다. 창업 당시 학력 분포와 비교해 보면 고졸이하의 비율은 약간 낮아지고 대학원 이상의 학력 비율이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여성기업인들이 창업 이후 상위

학교로 진학하여 학력 수준이 높아진 결과로 볼 수 있다.¹¹⁾



자료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2003 여성기업실태조사』 원자료.

<그림 III-5> 여성 기업인의 학력별 분포

전문대졸이상의 학력을 가진 여성기업인들의 계열별 분포를¹²⁾ 보면 사회계가 25.0%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자연계 15.2%, 교육계 15.1%, 예체능계 11.1%, 인문계 10.5% 분포가 컸다. 가장 많은 학과 단위로 살펴보면 사회계는 경영학, 자연계에서는 가정학과, 교육계는 유아교육과, 예체능계는 디자인, 인문계는 국어국문, 의학계는 약학과, 공학계는 건축관련학과 출신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1) 이후 학력별 분석에서의 학력은 창업 당시 학력이 아니라 조사 당시 학력 변수를 이용하였다.

12) 전공계열별 분포는 한국교육개발원 발행 『교육통계연보』의 계열 분류를 참고하여 『여성기업실태조사』에 나타난 약 87개학과를 인문계, 사회계, 교육계, 공학계, 자연계, 의학계, 예체능계 등으로 재분류한 것이다.

<표 III-7> 전문대졸 이상 학력자의 전공계열별 분포

계열	% (명)	주요 학과명
사회계	25.0 (238)	경영학과(137) 회계학(14) 사회복지(13) 행정학(11) 법학(10) 호텔경영학/관광경영학(8) 등
자연계	15.2 (145)	가정학과(50) 의상학과(27) 식품영양(20) 생물학(8) 등
교육계	15.1 (144)	유아교육(106) 교육학(29) 등
예체능계	11.1 (106)	(산업)디자인(28) 회화전공(24) 피아노(12) 응용미술(10) 체육학(5) 등
인문계	10.5 (100)	국어국문학(33), 영어영문학(25), 불어불문학(10), 일어일문학(9) 사학(7)등
의학계	6.7 (64)	약학과(28), 간호학(19), 의예과(7) 등
공학계	6.6 (63)	건축(인테리어)(18), 전자계산학/통계학(13) 정보처리(7) 기계공학(6) 전자공학(6)
무응답	9.8 (93)	-
전체	100.0 (953)	

자료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2003 여성기업실태조사』 원자료.

<표 III-8> 대표이사의 학력별 소유와 경영 형태

(단위 : %, 명)

	법적 소유주면서 경영에 참가한다	법적 소유주는 따로 있으며, 경영을 책임지고 있다	기타 (무응답)	전체
고졸이하	82.7 (878)	5.7 (60)	11.6 (123)	100.0 (1,061)
전문대	82.0 (219)	6.0 (16)	12.0 (32)	100.0 (267)
대학	87.5 (478)	4.0 (20)	8.4 (46)	100.0 (546)
대학원	87.1 (122)	7.1 (10)	5.7 (8)	100.0 (140)
전체	84.3 (1,697)	5.4 (108)	10.4 (209)	100.0 (2,014)

자료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2003 여성기업실태조사』 원자료.

여성 대표와 회사와의 관계에 대해 여성기업인의 84.3%가 '법적 소유주이면서 경영에 참가한다'가 가장 많았고 '법적 소유주는 따로 있으며, 경영을 책임지고 있다'는 소유와 경영 분리형은 5.4%에 불과하였다. 학력별로 큰 차이가 없는 가운데 대졸이상의 학력이 '법적 소유주이면서 경영에 참가한다'의 비율

이 전문대졸 이하 학력자들에 비해 약간 높게 나타났다.

사업을 시작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는 '자신이 직접 창업하였다'가 61.1%로 가장 많았고 나머지는 기존의 사업체를 승계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체 승계의 경우는 '남편의 사업을 승계하였다'가 17.7%, '다른 사람과 동업을 하다가 승계하였다'가 4.9%, '투자한 기업이 도산하여 인수하게 되었다'가 3.6%, '부친의 사업을 승계하였다'가 2.1%로 각각 분류되었다.

학력별로는 대학원 학력의 여성기업인들의 '직접 창업' 비율이 70.0%로 가장 높았고 대졸도 65.9%로 대졸 이상의 여성기업인의 직접 창업 비율이 전문대 이하의 학력에 비해서 높았다. 반면 '남편의 사업 승계'는 전문대졸과 고졸 이하가 각각 21.7%, 19.9%로 대졸이상의 학력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표 III-9> 학력별 창업 동기

(단위 : %, 명)

	남편의 사업 승계	부친의 사업 승계	다른 사람과 동업을 하다가 승계	투자한 기업이 도산하여 인수	자신이 직접 창업	기타	전체
고졸 이하	19.9 211	1.7 18	5.4 57	3.6 38	58.5 621	10.9 116	100.0 1,061
전문 대졸	21.7 58	1.5 4	4.1 11	3.4 9	56.6 151	12.7 34	100.0 267
대학졸	13.6 74	2.9 16	4.2 23	3.7 20	65.9 360	9.7 53	100.0 546
대학원 졸이상	10.0 14	3.6 5	5.7 8	3.6 5	70.0 98	7.1 10	100.0 140
전체	17.7 357	2.1 43	4.9 99	3.6 72	61.1 1,230	10.6 213	100.0 2,014

자료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2003 여성기업실태조사」 원자료.

<표 III-10> 학력별 창업 이전 경력*

(단위 : %, 명)

	가정주부/무직	현회사의 임직원	기술생산 기능직 종사자	도소매 자영 사업주	급여생활자	전문직 종사자	전문경영인	판매서비스직	기타	전체
고졸 이하	45.8 518	4.6 52	3.5 40	10.4 117	11.6 131	1.7 19	0.1 1	11.0 124	11.3 128	100.0 1130
전문대졸	28.6 82	6.3 18	3.1 9	11.5 33	32.4 93	7.3 21	0.0 0	8.0 23	2.8 8	100.0 287
대졸	24.6 145	6.6 39	4.2 25	9.2 54	30.6 180	10.9 64	0.0 0	7.5 44	6.5 38	100.0 589
대학원졸 이상	15.5 23	7.4 11	11.5 17	10.8 16	30.4 45	16.2 24	0.0 0	2.7 4	5.4 8	100.0 148
전체	35.5 768	6.0 130	4.2 91	10.2 220	20.7 449	5.9 128	0.05 1	9.0 195	8.4 182	100.0 2,164

주 : 복수 응답

자료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2003 여성기업실태조사』 원자료.

여성 기업인들의 창업 전 경력은 '가정주부/무직'이 35.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급여 생활자'가 20.7%로 많았다. 한편, 여러 경력에서 사업체를 경영한 사람의 비율은 '도소매자영사업주', '전문경영인'으로 볼 수 있는 데 이들을 합한 비율은 10.24%에 불과하였고 기타를 제외한 나머지 '현 회사의 임직원', '기술생산 기능직 종사자', '급여생활자', '전문직 종사자', '판매서비스직'을 직장인으로 간주하면 이들이 차지한 비율은 45.8%였다. 여성 기업인들의 창업 전 경력은 '직장인', '가정주부/무직', '사업체경영' 순서로 많다고 볼 수 있겠다.

창업자의 학력별 경력 분포를 보면 전문대졸 이상 학력의 경우 '급여생활자'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고졸이하의 경우는 '가정주부' 비율이 45.8%로 가장 높았다. 학력이 높을수록 '전문직 종사자' 비율은 높은 반면 '판매서비스직'은 학력이 낮을수록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III-11> 학력별 창업 이전 기업체 근무 분야

(단위 : %, 명)

	연구소	기술 개발	생산 구매	재무 회계	영업 판매	인사 총무	사회 복지	서비스	기타	전체
고졸 이하	0.5	13.5	24.0	17.8	29.6	9.6	0.7	1.7	2.6	100.0
전문대졸	1.8	20.7	4.5	24.3	21.6	20.7	2.7	1.8	1.8	100.0
대학졸	5.8	29.0	2.9	13.0	8.7	17.4	14.5	1.4	7.2	100.0
전체	1.9	17.8	13.7	18.3	24.7	15.0	2.5	1.6	4.6	100.0
	16	147	113	151	204	124	21	13	38	8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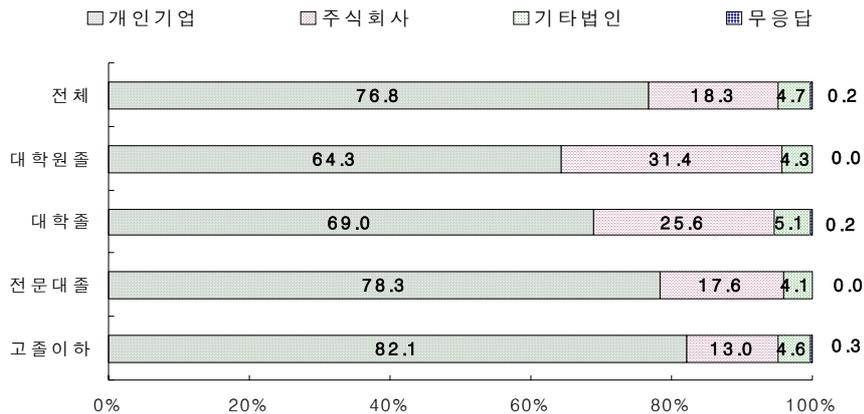
자료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2003 여성기업실태조사』 원자료.



자료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2003 여성기업실태조사』 원자료.

<그림 III-6> 학력별 기업체 종사 분야와 창업 업종과의 연관성

창업 이전 경력에서 기업체에 근무했던 여성기업인을 대상으로 근무한 분야에 대해 알아본 결과 <표 III-11>에서와 같이 '영업 판매'가 24.7%로 가장 많았고 '재무 회계'(18.3%), '기술 개발'(17.8%), '인사 총무'(15.0%), '생산 구매'(13.7%) 등 고르게 분포하고 있다. 학력별로는 고졸이하의 경우 '영업 판매'(29.6%)와 '생산 구매(24.0%) 분야 종사자가 많았고 전문대졸의 경우는 '재무 회계'(24.3%), '영업 판매'(21.6%), 대졸은 '영업 판매'(22.1%), '인사총무'(21.2%)에 종사 비율이 높았다. 대학원졸의 경우는 유일하게 '기술 개발' 종사 비율이 29.0%로 가장 높게 나타나서 여성 고학력자의 경우 R&D 분야에 창업하는 비중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자료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2003 여성기업실태조사』 원자료.

<그림 III-7> 학력별 창업당시 기업 형태

창업이전 경력에서 기업체에 종사했던 여성기업인을 대상으로 담당했던 업무와 창업업종과의 연관성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체 조사대상자 중 '연관성이 많다'에 응답한 여성기업인이 51.5%로 가장 많았고 '연관성이 있는 편이다'는 25.0%로 76.5%가 기업체에서 담당했던 업무 분야와 연관성이 있는 업종으로

창업한 것으로 <그림 III-6>에서와 같이 나타났고 ‘연관성이 없다’는 20.7%로 낮았다. 학력별로는 대졸 이상의 학력에서 ‘연관성이 많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전문대졸의 경우는 ‘연관성이 없다’는 비율이 다른 학력층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창업 당시의 기업형태에 대해서는 ‘개인기업’이 76.8%(1,547명)로 가장 많았고 ‘주식회사’ 18.3%(369명), ‘기타법인’ 4.7%(94명)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개인기업’ 창업 비율이 높은 가운데 학력이 높을수록 ‘개인기업’으로 창업하는 비율은 낮아지고 ‘주식회사’ 형태로 창업하는 비율이 높아졌다.

창업을 결심하고 실제로 창업을 하기까지 소요된 기간은 응답자의 66.2%가 대부분 1년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6개월’이내가 41.5%로 가장 많았고, ‘6개월~1년’ 24.7%, ‘1년~2년’ 14.8%, ‘2~3년’ 7.6%로 그 비율이 낮아졌고 그 다음 ‘5년 이상’ 소요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6.2%로 많았다.¹³⁾

<표 III-12> 학력별 창업 결심에서 창업에 소요된 기간

(단위 : %, 명)

	6개월 이내	6개월~1년	1년~ 2년	2~3년	3년~ 5년	5년 이상	무응답	전체
고졸이하	43.6 463	23.7 251	13.1 139	6.9 73	4.9 52	7.2 76	0.7 7	100.0 1,061
전문대졸	40.8 109	24.7 66	18.4 49	6.4 17	2.2 6	5.2 14	2.2 6	100.0 267
대학졸	40.7 222	25.5 139	15.9 87	8.2 45	3.7 20	4.9 27	1.1 6	100.0 546
대학원졸	29.3 41	30.0 42	17.1 24	12.9 18	3.6 5	5.0 7	2.1 3	100.0 140
전체	41.5 835	24.7 498	14.8 299	7.6 153	4.1 83	6.2 124	1.1 22	100.0 2,014

13) 여성 기업형태별로 창업소요기간을 살펴보면 개인기업의 경우 ‘6개월이내’가 44.5%, ‘6개월~1년’이 23.9%로 1년 미만이 68.4%이고 주식회사의 경우는 ‘6개월이내’ 31.7%, ‘6개월~1년’ 27.6%로 1년 미만이 59.3%로 나타났다. 평균적으로 주식회사의 창업소요기간이 개인기업보다 긴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여성 기업인들이 창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느낀 애로점에서 대해서는 ‘자금 조달’이 전체 응답자의 49.1%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판로개척’(7.9%), ‘인력확보’(7.6%), ‘행정절차’(6.6%), ‘입지선정 및 확보’(5.5%), ‘사업 타당성 분석’(4.2%), ‘경영에 교육훈련 미비’(4.2%), ‘사업업종의 선정’(2.9%), ‘사업정보 획득’(2.4%) 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기타가 5.7%였으며¹⁴⁾ 애로점이 ‘없다’는 비율은 4.0%였다(<표 III-13>).

학력별로 고졸이하의 경우는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느낀 비율이 다른 학력에 비해 높게 나타났고 대졸은 ‘인력확보’가 어려웠다고 느낀 비율이 다른 학력에 비해 높았다. 대학원 학력자의 경우는 ‘입지 선정 및 확보’가 어려웠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또한 학력이 높을수록 ‘경영에 대한 교육훈련 미비’가 창업 준비시 가장 큰 애로점이였다고 말한 비율이 높아 고학력 여성들에게 적합한 경영과 관련된 교육훈련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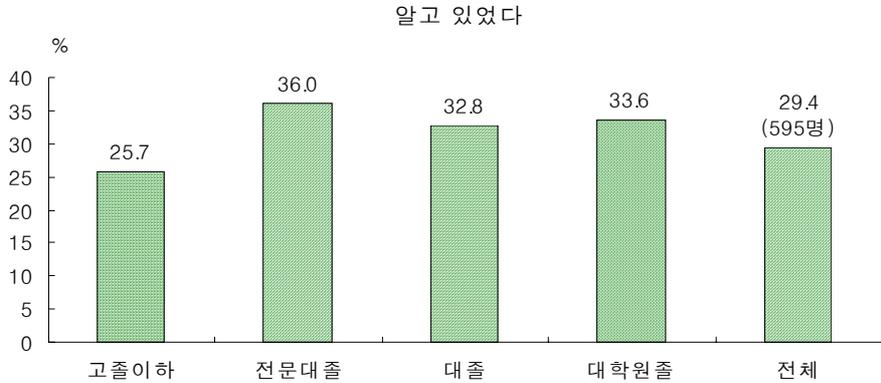
<표 III-13> 학력별 창업준비 시 가장 큰 애로점

(단위 : %, 명)

	자금 조달	판로 개척	인력 확보	행정 절차	입지 선정 및 확보	사업 타당성 분석	경영에 대한 교육훈련 미비	사업 업종의 선정	사업 정보 획득	기타	없다	전체
고졸 이하	52.6 558	8.8 93	7.4 78	6.0 64	5.3 56	3.4 36	2.5 26	3.6 38	2.1 22	4.5 48	4.0 42	100.0 1061
전문 대졸	45.7 122	6.7 18	7.5 20	7.5 20	3.4 9	6.0 16	5.2 14	1.1 3	3.4 9	9.0 24	4.5 12	100.0 267
대학 졸	43.8 239	7.5 41	8.1 44	7.0 38	6.0 33	5.3 29	6.2 34	2.9 16	2.6 14	6.4 35	4.2 23	100.0 546
대학 원졸	49.3 69	5.7 8	7.9 11	7.1 10	9.3 13	2.9 4	7.1 10	1.4 2	2.1 3	5.0 7	2.1 3	100.0 140
전체	49.1 988	7.9 160	7.6 153	6.6 132	5.5 111	4.2 85	4.2 84	2.9 59	2.4 48	5.7 114	4.0 80	100.0 2014

자료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2003 여성기업실태조사』 원자료.

14) 기타 응답의 주된 내용을 살펴보면 ‘기술개발’(40명), ‘가족 친지의 반대’(29명), ‘신용정보 획득’(20명), ‘동업자간 마찰’(18명) 등이었고 소수의견으로는 ‘육아’가 2명, ‘사회적 인식’에 1명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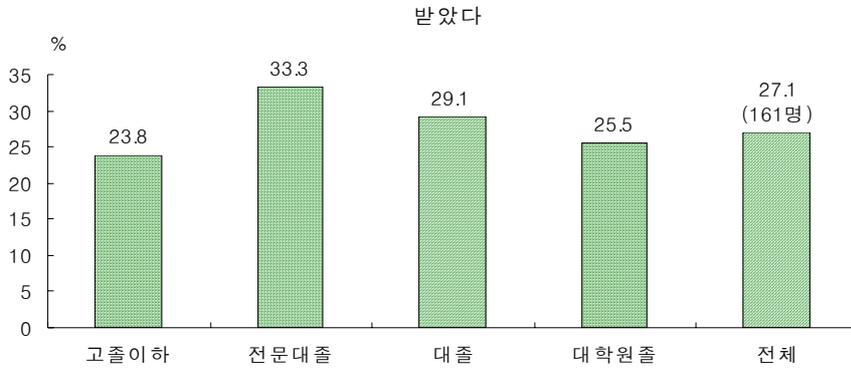


자료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2003 여성기업실태조사』 원자료.

<그림 III-8> 학력별 창업지원 기관의 인지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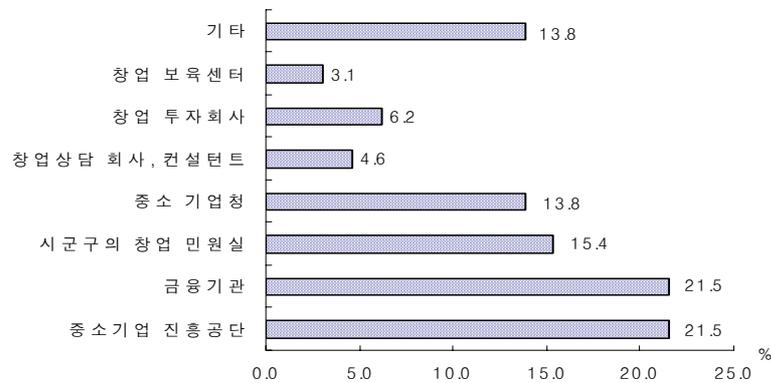
여성 기업인들에게 창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창업을 지원해주는 기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지를 조사한 결과 <그림 III-8>과 같이 전체 응답자의 29.4%만이 '알고 있다'고 응답했고 학력별로는 고졸이하가 25.7%로 가장 낮았고 전문대졸이 36.0%로 가장 높았다. 전문대졸이상의 학력에서는 알고 있는 비율이 30%이상으로 나타났다.

창업지원 기관을 안다고 응답한 여성기업인 595명을 대상으로 창업지원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거나 창업정보, 상담의 도움 등을 받은 적이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 전체 27.1%가 '도움을 받았다'고 응답하였고 학력별로는 고졸이하 학력이 도움 받은 비율이 23.8%로 가장 낮았고 전문대졸이 33.3%로 가장 높았다(<그림 III-9> 참조).



자료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2003 여성기업실태조사』 원자료.

<그림 III-9> 학력별 창업 지원 기관으로부터 도움을 받은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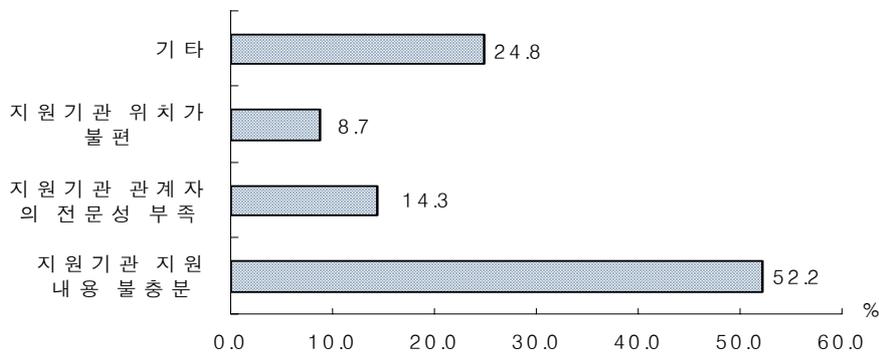


자료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2003 여성기업실태조사』 원자료.

<그림 III-10> 창업시 도움 받은 기관

창업지원 기관으로부터 도움을 받았다고 응답한 여성기업인 161명으로 대상으로 창업 준비시 가장 많은 관련 정보나 자문을 받은 기관에 대해 알아본 결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이 25.5%로 가장 많았고 ‘금융기관’ 24.2%, ‘시군구의 창업민원실’ 13.7%, ‘중소기업청’ 11.8%, ‘창업상담회사컨설턴트’ 7.5%, ‘창업투자회사’ 5.0%, ‘신용보증기금’ 4.3%, ‘창업보육센터’ 2.5%, 기타 9.9%¹⁵⁾로 나타났다(<그림 III-10>, <그림 III-11> 참조).



자료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2003 여성기업실태조사』 원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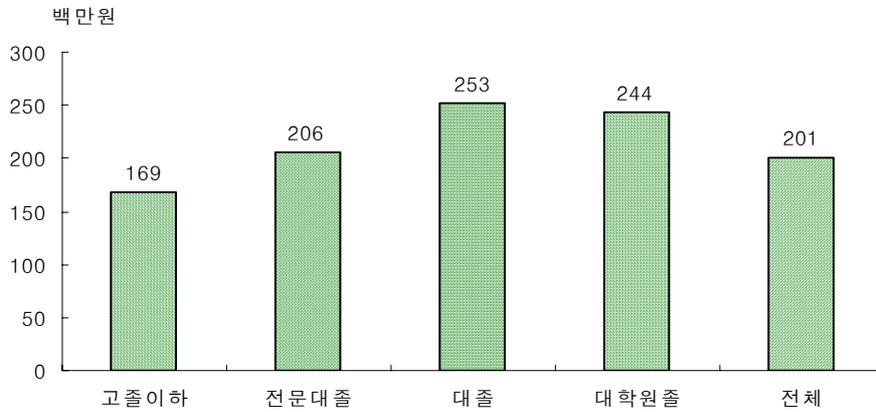
<그림 III-11> 창업지원기관 이용시 애로점

역시 창업지원 기관으로부터 도움을 받았다고 응답한 여성기업인 161명에게 창업지원기관 이용시 느낀 애로점에 대해 알아본 결과 <그림 III-11>과 같이 ‘지원기관 지원 내용 불충분’을 전체 응답자의 52.2%가 지적하여 가장 많았고 ‘지원기관 관계자의 전문성 부족’ 14.3%, ‘지원기관 위치 불편’ 8.7%, 기타(무응답 포함)¹⁶⁾ 24.7%로 나타났다.

여성 기업인들의 평균 창업자금 규모는 2억 1백만원이었고, 학력별로는 고졸이하 학력이 1억6천9백만으로 가장 적었고 대출자의 창업 자금이 평균 2억5천3백만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III-1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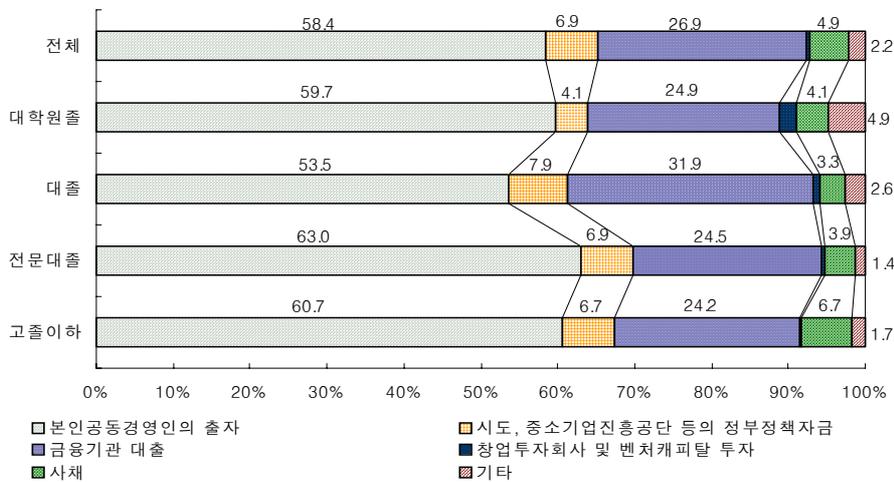
15) 기타에는 ‘중소기업소상공인센터’(1), ‘경제기획원’(1), ‘한국산업단지공단’(1), ‘우체국’(1) 등이 있었다.

16) 기타의견에는 ‘담보 부족으로 보증서 발급받는 것’(2), ‘절차가 까다로움’(1) 등이 있었다.



자료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2003 여성기업실태조사』 원자료.

<그림 III-12> 학력별 평균 창업 자금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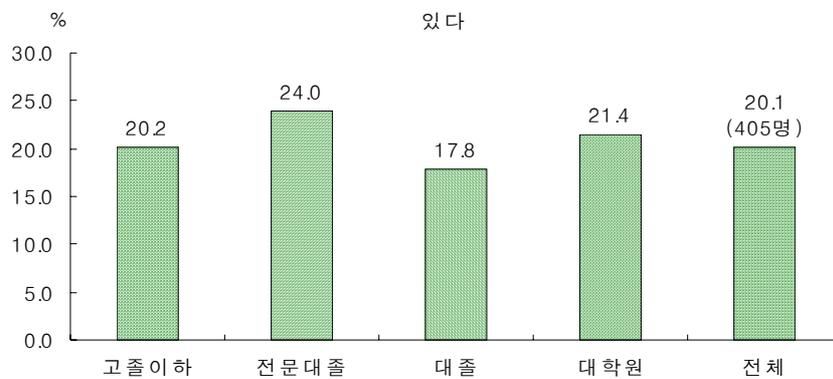


자료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2003 여성기업실태조사』 원자료.

<그림 III-13> 학력별 창업 자금 조달 방법

여성 기업인이 창업 자금을 조달함에 있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본인·공동경영인의 출자' 58.4%로 창업 자금의 절반이상을 차지하였다. 나머지는 '금융기관대출'이 26.9%, '시도,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의 정부정책자금' 6.9%로 나타났고 '사채'도 4.9% 비중으로 조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학력별로는 고졸이하와 전문대졸의 '본인·공동경영인의 출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60.7%, 63.0%로 다른 학력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고졸이하의 경우 '사채'가 차지하는 비중이 6.7%로 가장 높았으며 대출학력의 경우 '금융기관대출'과 '시도,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의 정부정책자금'의 비중이 31.9%, 7.9% 가장 높은 학력으로 나타났다.

창업당시 은행, 투자회사, 정부산하 단체 등 관련 자금지원기관에 자금지원을 거절당한 경험에 대해 전체 여성기업인의 20.1%(405명)이 '있다'고 답하였고 학력별로는 전문대졸이 24.0%로 가장 높았고 뒤이어 대학원 21.4%, 고졸이하 학력자가 20.2%, 대졸자 17.8% 가 지원을 거절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III-14> 참조).



주 : 은행, 투자회사, 정부산하 단체 등
 자료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2003 여성기업실태조사』 원자료.

<그림 III-14> 학력별 제도권 창업 자금지원기관*에 자금지원을 거절당한 경험

제도권의 창업자금지원을 신청했지만 거절당한 여성 기업인에게 그 사유를 알아본 결과 '담보를 요구하거나 담보가 없어서'가 58.5%로 가장 많았고 '절차와 심사가 까다로워서'가 30.1%로 그 다음으로 많았다. 반면 사업 자체에 대한 평가로 인한 거절 사유에 해당하는 '사업전망이 불투명하다고 해서'는 5.4%에 머물러 여성기업에 대한 창업자금지원 결정에서 기업의 사업성보다는 담보의 비중이 큰 것을 알 수 있었다. 기타의 소수 의견에는 '보증인이 없어서'(0.7%)와 '이자가 비싸서'(0.5%)도 있었다. 학력별로는 고졸이하의 경우 '담보요구'로 인한 자금지원 거절 비율이 64.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표 Ⅲ-14> 참조).

<표 Ⅲ-14> 학력별 창업 자금 지원을 거절당한 이유

(단위 : %, 명)

	사업전망 불투명 하다고 해서	담보를 요구하나 담보가 없어서	절차와 심사가 너무 까다로워서	기타	전체
고졸 이하	4.2 9	64.5 138	27.6 59	3.8 8	100.0 214
전문 대졸	7.8 5	56.3 36	28.1 18	7.9 5	100.0 64
대학 졸	5.2 5	49.5 48	38.1 37	7.2 7	100.0 97
대학 원졸	10.0 69	50.0 8	26.7 11	13.3 4	100.0 30
전체	5.4 22	58.5 237	30.1 122	5.8 24	100.0 405

자료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2003 여성기업실태조사』 원자료.

나. 여성 창업기업의 경영일반 현황

여성기업의 형태는 '개인회사'가 67.9%로¹⁷⁾ 가장 많고 '일반법인'이 30.6%이었고 '장외 법인'과 '코스닥 등록법인'은 각각 0.4%, 0.1%에 불과했다.¹⁸⁾ 학력

17) 이는 통계청 『2002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의 전체 여성 기업의 '개인사업체' 비율 95.7%보다 낮은 수치인데, 여경협이 『2003 여성기업실태조사』는 실제 여성 기업이 많이 분포하고 있는 5인 미만의 도·소매음식 숙박업보다 상대적으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이에 개인사업체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아진 것에 기인한다.

별로는 전문대 이하 학력의 '개인회사' 비율이 높고 대학의 경우 '개인회사'는 59.2%, '일반법인'은 39.4%였고 대학원 학력은 '개인회사'와 '일반법인'의 분포가 45.0%, 51.4%로 유일하게 일반법인이 개인회사 비율보다 높았다(<표 III-15> 참조).

<표 III-15> 학력별 기업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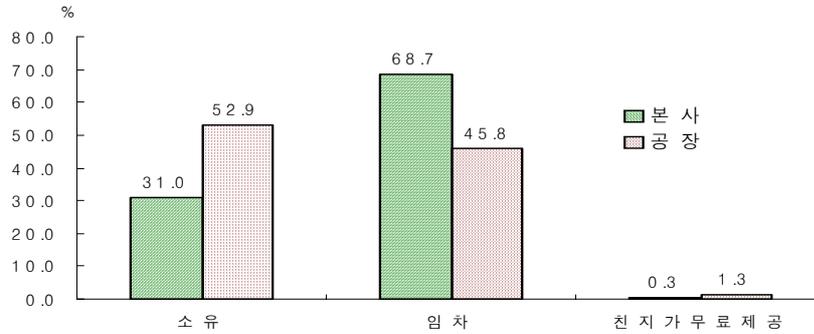
(단위 : 개사, %)

	코스닥 등록법인	장외 등록법인	일반법인	개인회사	기타	전체
고졸 이하	0 0	4 0.4	247 23.3	801 75.5	9 0.8	1,061 100.0
전문 대졸	1 0.4	2 0.7	82 30.7	180 67.4	2 0.7	267 100.0
대학 졸	0 0	0 0	215 39.4	323 59.2	8 1.5	546 100.0
대학 원졸	1 0.7	2 1.4	72 51.4	63 45.0	2 1.4	140 100.0
전체	2 0.1	8 0.4	616 30.6	1,367 67.9	21 1.0	2,014 100.0

자료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2003 여성기업실태조사』 원자료.

여성 기업체의 본사 소유 현황은 '소유' 비율이 31.0%, '임차'가 68.7%로 임차비율이 높았고 여성 기업 중 공장이 있는 기업체의 공장 소유현황에 대해 알아본 결과 '소유'가 52.9%, '임차'가 45.8%로 공장의 경우는 직접 소유하고 있는 비율이 높았다(<그림 III-15> 참조).

18) 창업 당시 '개인기업'은 1,547개사(76.8%)와 '법인'은 463개사(23.0%)에서 이후 개인기업 중 202개사가 일반법인(199개)과 장외등록법인(3개사)으로 전환하였고 법인기업 중 24개사 개인기업으로 전환하는 변동이 있었다.



자료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2003 여성기업실태조사』 원자료.

<그림 III-15> 본사 및 공장 소유 현황

<표 III-16> 학력별 기업입지 형태

(단위 : %, 개사)

	개별자유 입지	국가/지방 산업단지	농공단지	협동화 사업단지	아파트형 공장	기타	전체
고졸 이하	403 72.7	40 7.2	22 4.0	9 1.6	4 0.7	76 13.7	1,061 100.0
전문 대졸	81 64.3	17 13.5	6 4.8	5 4.0	1 0.8	16 12.7	267 100.0
대학 졸	104 55.0	36 19.0	15 7.9	1 0.5	8 4.2	25 13.2	546 100.0
대학 원졸	29 59.2	3 6.1	5 10.2	2 4.1	1 2.0	9 18.4	140 100.0
전체	617 67.2	96 10.5	48 5.2	17 1.9	14 1.5	126 13.7	2,014 100.0

자료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2003 여성기업실태조사』 원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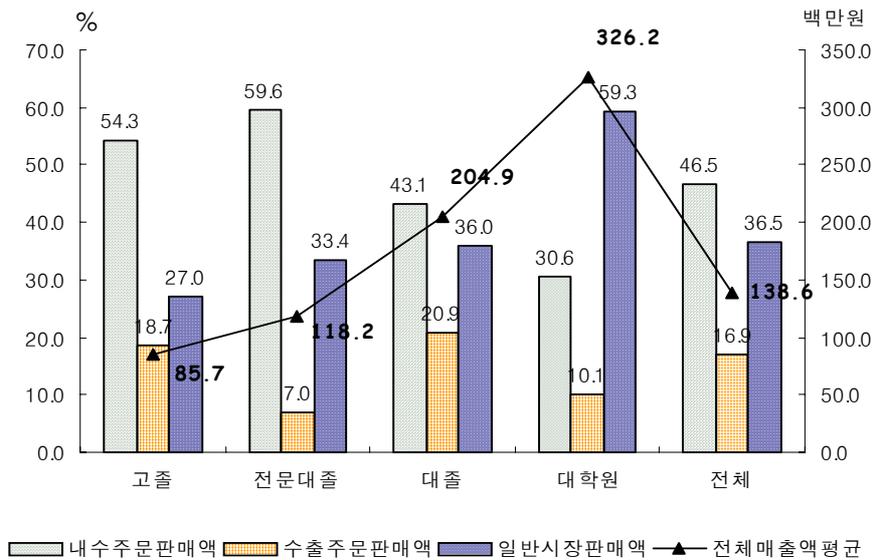
여성 기업의 입지 형태는 '개별 자유 입지'가 67.2%로 가장 많고 이외에 '국가/지방 산업 단지'가 10.5%, '농공 단지' 5.2%, '협동회사 단지' 1.9%, 기타 13.7%¹⁹⁾ 등이 있었다. 학력별로는 '개별자유입지' 비율이 가장 높은 학력은 고

19) 기타 응답 중에는 '창업보육센터'(1개사), '벤처빌딩'(5개사) 등이 조사되었다.

줄이하(72.7%)이었고 '국가/지방산업 단지' 는 대출자가 19.0%로 가장 높았다 (<표 III-16> 참조).

여성 기업의 2002년 매출 현황을 내수 및 수출주문 판매액, 일반시장 판매액 20)으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내수와 수출을 합한 주문판매액 비율이 63.5%로 일반판매액보다 크게 나타났다. 반면, 학력이 대학원인 경우 일반 판매비율이 59.3%로 높아 고학력일수록 일반시장 판매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여성기업의 2002년 매출액 평균은 13,860만원이었고 학력별로는 고졸이하가 8,570만원, 전문대졸이 11,820만원, 대졸이 20,490만원, 대학원졸이 32,620만원 으로 학력이 높을수록 매출액 규모도 커졌다(<그림 III-16>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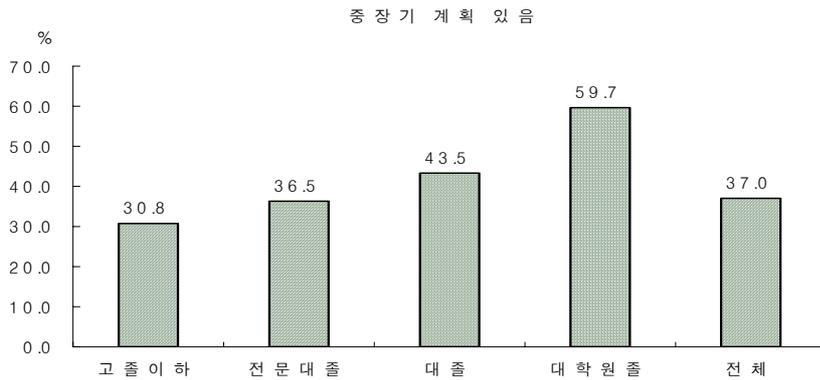


자료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2003 여성기업실태조사』 원자료.

<그림 III-16> 학력별 여성기업의 매출액 현황(2002년 기준)

20) 주문판매란 국내외 타 업체와 수위탁계약 또는 정기적·지속적 주문에 의해 OEM 또는 자기상표 부착방식의 완제품 및 부분품 판매액을 의미하고 일반시장 판매란 주문판매에 의하지 않고 회사자체계획에 따라 제품을 생산, 일반시장에서 불특정 다수에 대한 판매액을 의미한다(한국여성경제인협회, 2003).

여성 기업가에게 중장기 경영 계획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37.0%(743명)가 있다고 답하였고 학력별로는 대학원이 59.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그림 III-17> 참조).



자료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2003 여성기업실태조사』 원자료.

<그림 III-17> 학력별 중장기 경영 계획 여부

<표 III-17> 학력별 중장기 계획이 있는 여성기업의 중점 목표
(단위 : %, 개)

	매출증가	수익성 증가	고부가가치화	기술개발	다각화	원가절감	사옥신축	전체
고졸이하	43.5	18.2	12.5	9.6	7.6	8.3	0.3	100.0
	167	70	32	29	48	37	1	384
전문대졸	31.9	25.2	15.1	14.3	9.2	4.2	0.0	100.0
	38	30	18	17	11	5	0	119
대학졸	34.1	25.4	18.1	4.3	10.9	6.9	0.4	100.0
	94	70	50	12	30	19	1	276
대학원졸	29.3	23.2	17.2	13.1	8.1	8.1	1.0	100.0
	29	23	17	13	8	8	1	99
전체	37.4	22.0	15.1	9.0	8.9	7.3	0.3	100.0
	328	193	133	79	78	64	3	878

주 : 복수응답

자료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2003 여성기업실태조사』 원자료.

중장기 계획이 있는 여성 기업의 계획의 중점 목표는 '매출증가'가 37.4%로 가장 많았고 이어 '수익성증가'(22.0%), '고부가가치화'(15.1%), '기술개발'(9.0%), '다각화'(8.9%), '원가절감'(7.3%), '사옥신축'(0.3%) 순서로 나타나 여성기업의 이윤 증대 목표를 확인할 수 있었다(<표 III-17> 참조).

<표 III-18> 학력별 중점 경영부문

(단위 : %, 명)

	시장 개척	원가 절감	기존제품 고급화	신제품 개발	작업환 경개선	종업원 교육훈련	시장정 보입수	디자인 개발	광고 선전	외상매 출감소	기타	전체
고졸 이하	33.0 350	15.1 160	11.4 121	6.9 73	5.2 55	2.5 26	3.9 41	2.9 31	2.9 31	4.0 42	12.3 131	100.0 1,061
전문 대졸	30.3 81	12.0 32	9.0 24	10.5 28	6.7 18	6.4 17	4.9 13	1.9 5	3.0 8	2.2 6	13.1 35	100.0 267
대학 졸	31.3 171	13.0 71	8.1 44	7.5 41	5.7 31	5.9 32	4.6 25	4.0 22	2.9 16	1.3 7	15.8 86	100.0 546
대학원 졸	30.7 43	7.1 10	7.1 10	15.0 21	4.3 6	6.4 9	3.6 5	11.4 16	2.9 4	0.0 0	11.4 16	100.0 140
전체	32.0 645	13.6 273	9.9 199	8.1 163	5.5 110	4.2 84	4.2 84	3.7 74	2.9 59	2.7 55	13.3 268	100.0 2,014

자료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2003 여성기업실태조사』 원자료.

여성 기업인이 경영에서 중점으로 생각하는 것은 '시장개척'이 32.0%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원가절감'(27.3%), '기존제품의 고급화'(9.9%), '신제품 개발'(8.1%), '작업환경개선'(5.5%), '종업원 교육훈련'(4.2%), '시장정보입수'(4.2%) 등이었다. '기존제품 고급화', '종업원 교육훈련', '디자인개발' 등은 학력별로 중점으로 생각하는 비율이 차이가 나타나는 부문으로 '기존제품 고급화'는 학력이 높아질수록 비율이 낮아졌고 반면 '종업원 교육훈련'의 경우는 학력이 높을수록 중점 경영부문으로 생각하는 여성 기업인이 많았다. '디자인 개발'의 경우는 학력이 높을수록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표 III-18> 참조).

여성 기업인들은 기업 정보를 '동료 기업주'(29.1%), '신문/잡지'(23.4%), '유통 및 판매업자'(14.9%), '각종 연수 및 세미나'(11.7%) 등에서 입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III-19> 참조). 학력별로는 약간 차이가 있어 학력이 높을수록 '동료 기업주'와 '유통 및 판매업자'에게 경영 정보를 입수하는 비율은 낮았고

반면, '각종 연수 및 세미나'와 '대학교수/ 기업지도관'에게서 기업 정보를 입수하는 비율은 학력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표 III-19> 학력별 기업정보 수집 통로

(단위 : %, 명)

	동료 기업주	신문/ 잡지	유통 및 판매업자	각종 연수 및 세미나	소비자	대학교수/ 기업지도관	사내 임직원	기타	전체
고졸 이하	30.2 346	23.2 266	18.7 214	8.0 92	11.9 137	3.2 37	4.1 47	0.7 8	100.0 1,147
전문 대졸	30.6 100	24.8 81	14.4 47	11.0 36	7.6 25	6.7 22	3.7 12	1.2 4	100.0 327
대학 졸	27.8 181	23.2 151	11.5 75	14.2 92	6.5 42	9.5 62	6.3 41	0.9 6	100.0 650
대학 원졸	24.3 44	22.7 41	4.4 8	27.6 50	2.2 4	14.9 27	3.9 7	0.0 0	100.0 181
전체	29.1 671	23.4 539	14.9 344	11.7 270	9.0 208	6.4 148	4.6 107	0.8 18	100.0 2,305

주 : 복수응답

자료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2003 여성기업실태조사』 원자료.

<표 III-20> 학력별 경영상 문제점 의논 상대

(단위 : %, 명)

	남편 및 가족	사내 임직원	타기업 경영주	전문가*	친구	경영지도기관/ 본사 등 기타	무응답	전체
고졸 이하	56.1 595	18.7 198	12.4 132	4.8 51	3.9 41	1.7 18	2.5 26	100.0 1061
전문 대졸	43.8 117	23.6 63	15.4 41	8.2 22	3.4 9	1.9 5	3.7 10	100.0 267
대학 졸	36.8 201	28.4 155	17.8 97	11.0 60	2.4 13	2.0 11	1.6 9	100.0 546
대학 원졸	30.0 42	38.6 54	15.7 22	9.3 13	2.1 3	2.9 4	1.4 2	100.0 140
전체	47.4 955	23.3 470	14.5 292	7.2 146	3.3 66	1.9 38	2.3 47	100.0 2014

주 : 전문가는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 등을 말함.

자료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2003 여성기업실태조사』 원자료.

여성 기업인들은 경영상 문제가 있을 때 '남편 및 가족'과 의논하는 비율이 47.4%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사내 임직원'(23.3%), '타기업 경영주'(14.5%), '전문가'(7.2%), '친구'(3.3%), '경영지도기관/본사'(1.9%) 등으로 나타났다(<표 III-20> 참조). 학력별로는 고학력일수록 '사내 임직원'과 '타기업 경영주', '경영지도기관/본사' 등과 의논하는 비율은 높은 반면 '남편 및 가족'과 '친구'와 의논하는 비율은 낮아졌다.

여성 기업인은 기업활동에서 가장 큰 애로점으로 '자금조달'(29.7%), '판로개척'(26.6%), '인력확보'(19.5%), '기술개발'(5.2%), '사업정보 획득'(3.4%) 등이라고 응답하였다. 학력이 낮을수록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느끼는 비율이 높은 반면, '인력확보'의 어려움은 고학력일수록 그 비율이 높아졌다(<표 III-21> 참조).

<표 III-21> 학력별 기업활동상의 애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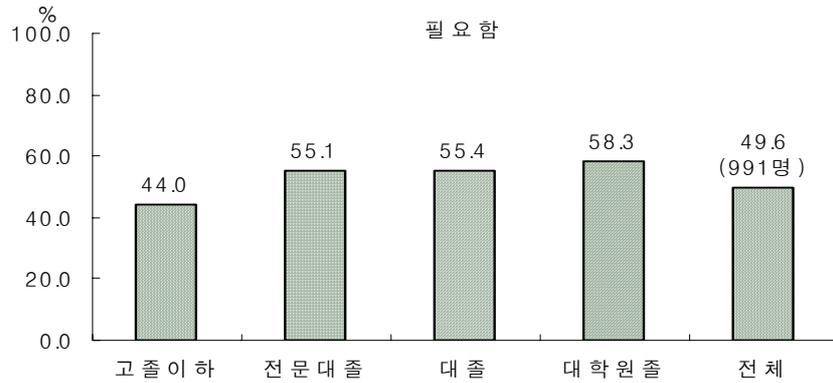
(단위 : %, 명)

	자금 조달	판로 개척	인력 확보	기술 개발	사업정보 획득	동업자간 마찰	행정 절차	신용 회복	없음	기타 (무응답)	전체
고졸 이하	30.8 327	27.7 294	17.6 187	5.3 56	2.6 28	3.2 34	2.4 25	1.9 20	3.8 40	4.7 50	100.0 1,061
전문 대졸	33.0 88	23.2 62	20.6 55	6.4 17	0.7 2	3.7 10	1.9 5	0.4 1	4.1 11	6.0 16	100.0 267
대학 졸	26.6 145	24.9 136	22.2 121	4.8 26	5.9 32	3.3 18	3.1 17	2.2 12	2.9 16	4.2 23	100.0 546
대학 원졸	27.1 38	30.7 43	21.4 30	3.6 5	5.0 7	1.4 2	4.3 6	2.1 3	2.1 3	2.1 3	100.0 140
전체	29.7 598	26.6 535	19.5 393	5.2 104	3.4 69	3.2 64	2.6 53	1.8 36	3.5 70	4.6 92	100.0 2,014

자료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2003 여성기업실태조사』 원자료.

다. 교육의 필요성 및 내용

여성기업주만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교육과정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전체 49.6%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학력이 높을수록 별도의 교육과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그림 III-18> 참조).



자료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2003 여성기업실태조사』 원자료.

<그림 III-18> 학력별 여성기업주만을 위한 교육과정의 필요성

<표 III-22> 학력별 필요한 교육내용

(단위 : %, 명)

	경영능력 및 자질향상	마케팅	정보화	시장 분석	경제 동향	세무	회계	기업가 정신	이익 관리	노무 관리	기타	전체
고졸 이하	27.3 223	15.9 130	11.0 90	11.4 93	7.1 58	8.6 70	5.1 42	4.3 35	4.6 38	3.4 28	1.3 11	100.0 818
전문 대졸	27.0 76	20.6 58	9.6 27	7.8 22	7.5 21	7.1 20	5.7 16	5.7 16	2.8 8	4.3 12	1.8 5	100.0 281
대학 졸	30.3 158	16.3 85	12.7 66	9.4 49	7.3 38	6.3 33	4.8 25	4.0 21	4.4 23	3.5 18	1.0 5	100.0 521
대학 원졸	26.1 41	13.4 21	14.0 22	10.8 17	8.9 14	3.2 5	5.7 9	8.3 13	4.5 7	3.2 5	1.9 3	100.0 157
전체	28.0 498	16.5 294	11.5 205	10.2 181	7.4 131	7.2 128	5.2 92	4.8 85	4.3 76	3.5 63	1.4 24	100.0 1777

주 : 복수응답

자료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2003 여성기업실태조사』 원자료.

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여성기업인을 대상으로 필요한 교육내용에 대해 조사한 결과, '경영능력 및 자질향상'을 28.0%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으며, '마

케팅'(16.5%), '정보화'(11.5%), '시장분석'(10.2%), '경제동향'(7.4%), '세무'(7.2%), '회계'(5.2%) 순서로 선호하고 있었다(<표 III-22> 참조).

<표 III-23> 학력별 여성 기업인을 위한 교육에 참가 의향

(단위 : %, 명)

	적극 참가 하겠다	가능한 참가 하겠다	필요한 경우만 참가하겠다	별로 관심없다	기타 (무응답)	전체
고졸이하	10.5 111	26.2 278	33.0 350	29.4 312	0.9 10	100.0 1,061
전문대졸	16.9 45	37.8 101	33.3 89	11.6 31	0.4 1	100.0 267
대학졸	17.8 97	31.3 171	34.8 190	15.6 85	0.5 3	100.0 546
대학원졸	18.6 41	35.7 21	35.7 22	8.6 17	1.4 14	140 140
전체	13.9 279	29.8 600	33.7 679	21.8 440	0.8 16	100.0 2,014

자료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2003 여성기업실태조사』 원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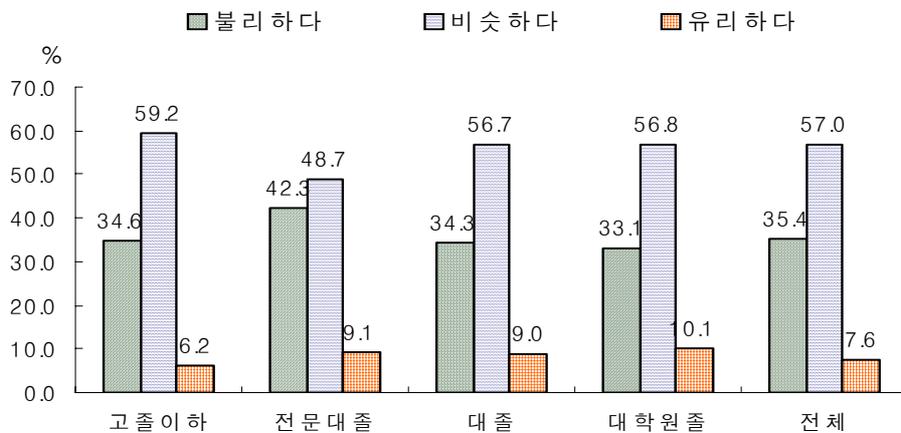
여성기업인을 대상으로 향후 교육기회가 있을 때 교육을 받을 의향이 있는 지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별로 관심없다'는 21.8%였고 나머지 응답자들은 '적극 참가' 13.9%, '가능한 참가' 29.8%, '필요한 경우 참가' 33.7%를 포함하여 77.4%가 교육을 받을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반적으로 학력이 높을수록 교육 참가 의향 비율이 높았다(<표 III-23> 참조).

교육 참가에 대해 '필요한 경우만 참가하겠다'가 33.7%로 가장 많이 나타난 것을 볼 때, 여성기업인이 바라는 교육내용을 반영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라. 여성기업인으로서의 애로점

여성기업인들은 남성과 경영활동을 비교할 때 '비슷하다'고 느끼는 비율이 57.0%로 높은 반면, 나머지는 '불리하다'는 비율이 35.4%로 '유리하다'는 비율 7.6%보다 높았다. 학력별로는 전문대졸의 여성 기업인들이 '불리하다'고 답한

비율이 42.3%로 가장 높은 것이 다르게 나타났고 나머지 학력에서는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자료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2003 여성기업실태조사』 원자료.

<그림 III-19> 학력별 여성기업인과 남성 경영인과 기업경영활동 비교

남성 경영인들과 비교하여 여성기업인들이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가사, 자녀 양육 병행'이 31.9%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사회적 편견'(23.8%), '남성중심의 접대 문화'(23.1%),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여성기업인 무시'(8.0%), '남성위주의 업계에서 네트워크 부재'(6.9%), '부하직원 통솔'(6.2%) 등으로 나타났다(<표 III-24> 참조). 학력이 낮을수록 '가사, 자녀 양육 병행'이 불리하다고 답한 비율이 높았고 반면, '남성중심의 접대 문화',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여성기업인 무시', '남성위주의 업계에서 네트워크 부재' 등은 고학력일수록 불리하다고 답한 비율이 높아졌다.

여성기업인들이 스스로 남성기업인들에 비해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세

심하고 꼼꼼하기 때문에 소비자의 욕구를 잘 파악할 수 있다(62.1%)가 가장 많았고 이외에 '일단 신용을 얻으면 끝까지 신용을 얻을 수 있다(13.8%), '사회활동 때문에 불필요한 간접비를 줄일 수 있다(12.3%) 등으로 나타났다(<표 III-25> 참조).

<표 III-24> 학력별 여성 기업인으로서 불리한 점

(단위 : %, 명)

	가사, 자녀 양육 병행	사회적 편견	남성 중심의 접대 문화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여성기업인 무시	남성위주의 업계에서 네트워크 부재	부하직원 통솔	기타	전체
고졸 이하	34.6 405	23.8 278	21.6 252	7.7 90	6.2 72	5.7 67	0.4 5	100.0 1169
전문대졸	30.8 107	25.9 90	23.6 82	7.2 25	6.1 21	6.3 22	0.0 0	100.0 347
대졸	29.4 194	23.3 154	24.7 163	8.3 55	7.4 49	6.5 43	0.3 2	100.0 660
대학원졸	23.1 43	21.5 40	25.8 48	9.7 18	10.8 20	8.1 15	1.1 2	100.0 186
전체	31.7 749	23.8 562	23.1 545	8.0 188	6.9 162	6.2 147	0.4 9	100.0 2362

주 : 복수응답

자료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2003 여성기업실태조사』 원자료.

<표 III-25> 학력별 여성 기업인으로서 유리한 점

(단위 : %, 명)

	세심하고 꼼꼼함으로 소비자욕구파악	동업자가 경쟁상대로여기지않음	신용을 얻으면 끝까지 신용을 얻을 수 있다	회소성 때문에 PR효과를 얻을 수 있다	사회활동 때문에 간접비를 줄일수있다	없다	기타 (무응답포함)	전체
고졸 이하	61.0 706	2.8 32	14.5 168	3.4 39	12.5 145	2.7 31	3.2 36	100.0 1,157
전문대졸	60.3 187	2.9 9	13.9 43	7.1 22	12.6 39	1.0 3	2.3 7	100.0 310
대졸	63.9 391	1.1 7	13.6 83	4.9 30	11.6 71	2.1 13	2.9 17	100.0 612
대학원졸	66.7 114	2.3 4	9.9 17	5.8 10	12.3 21	1.2 2	1.8 3	100.0 171
전체	62.1 1,398	2.3 52	13.8 311	4.5 101	12.3 276	2.2 49	2.7 63	100.0 2,250

주 : 복수응답

자료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2003 여성기업실태조사』 원자료.

자금조달을 할 때 여성기업인들이 금융기관 이용시 가장 많이 느끼는 애로점은 '담보부족'으로 전체의 22.4%를 차지했다. 그 다음은 '대출한도 부족'이 15.4%, '고금리'가 14.5%였고 금융기관 이용시 애로점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도 18.5%나 되었다. '여자라서 신용도를 낮게 평가받는 것'에 응답한 비율은 5.7% 였는데 고졸이하와 전문대졸 학력의 여성기업들이 대졸, 대학원 학력의 여성 기업인들에 비해 그 비율이 높았다(<표 III-26>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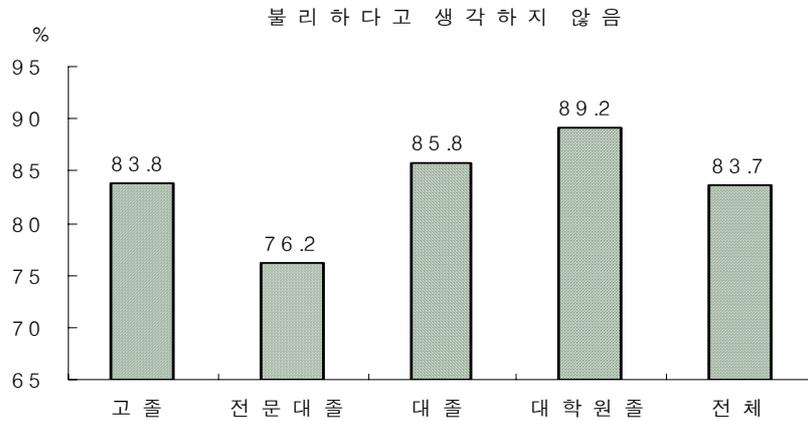
<표 III-26> 학력별 자금조달시 금융기관 이용상의 애로점

(단위 : %, 명)

	담보 부족	대출한도 부족	고금 리	신용보증 기준의 엄격함	여자라서 신용도 낮게 평가	단기 대출기 간	로비, 접대문 제	꺾기 관행	없음	기타 (무응답)	전체
고졸 이하	22.3 271	15.3 186	14.7 179	12.2 148	6.1 74	3.8 46	1.5 18	1.0 12	19.3 234	3.8 46	100.0 1,214
전문 대졸	22.9 74	17.3 56	12.4 40	11.1 36	7.1 23	5.6 18	2.2 7	0.6 2	15.5 50	5.3 17	100.0 323
대학 졸	21.9 138	15.1 95	14.9 94	13.5 85	4.6 29	3.5 22	1.9 12	1.7 11	18.1 114	4.6 29	100.0 629
대학 원졸	23.1 36	13.5 21	14.7 23	7.1 11	4.5 7	5.8 9	2.6 4	2.6 4	19.9 31	6.4 10	100.0 156
전체	22.4 519	15.4 358	14.5 336	12.1 280	5.7 133	4.1 95	1.8 41	1.2 29	18.5 429	4.4 102	100.0 2,322

주 : 복수응답

자료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2003 여성기업실태조사』 원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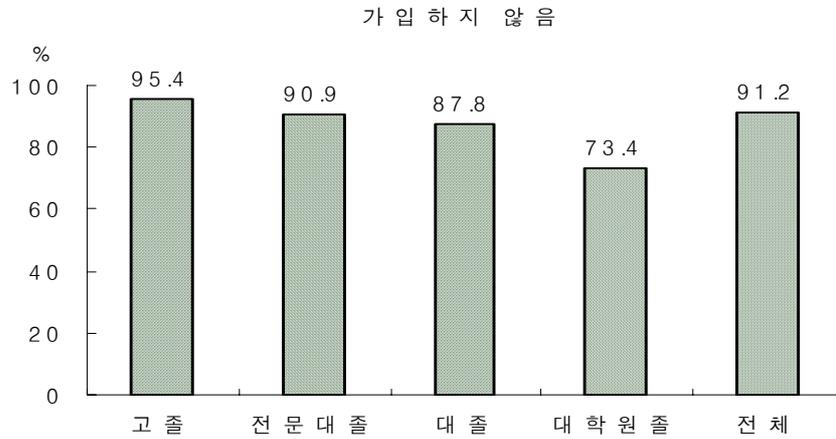
자료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2003 여성기업실태조사」 원자료.

<그림 III-20> 학력별 여성기업인으로 금융기관 이용

금융기관 업무를 볼 때 여성기업이라는 이유로 불리하다고 생각되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전체 여성기업인 중 16.3%만이 불리하다고 응답하였으며 나머지 83.7%는 불리한 것이 없다고 응답하였다(<그림 III-20 참조>). 즉, 대부분 여성기업인들은 금융기관 이용시 단지 여성이기 때문에 겪는 애로점은 크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었다²¹⁾.

여성경제단체 가입 여부에 대해서는 전체 여성기업인의 91.2%가 '가입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으며 학력이 낮을수록 가입하지 않은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그림 III-21> 참조).

21) 은행융자 받은 경험이 있는 기혼 여성 기업인(1,910명)에 대해 금융기관 이용과 관련하여 은행융자를 받을 때 은행측으로부터 여성기업인이라는 이유로 남편 보증을 세우라는 요구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67.8%(1,295명)가 없다고 응답하였다.



자료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2003 여성기업실태조사」 원자료.

<그림 III-21> 학력별 여성경제단체 가입 여부

마. 정부의 지원정책에 대한 인식

정부의 기업지원활동지원 제도 중 여성기업인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제도는 전체 여성기업인의 47.6%가 알고 있다고 응답한 '자금지원 제도'였고 나머지 제도는 '세제지원 제도'(27.7%), '기술지원 제도'(26.7%), '정보화 지원제도'(25.7%), '수출지원 제도'(21.4%) '관로지원 제도'(18.6%) 순서로 많이 알고 있었고 인지 비율은 30% 미만으로 낮은 편이다. 전반적으로 학력이 높을수록 제도 인지 비율이 높아지는 특징이 있었다(<표 III-27> 참조).

<표 III-27> 학력별 정부의 기업활동지원 제도 인지도

(단위 : %, 명)

	자금지원제도	세계지원제도	기술지원 제도	판로지원 제도	정보화지원 제도	수출지원 제도
고졸 이하	41.7 442	21.7 230	22.6 239	14.1 150	20.5 217	17.2 183
전문 대졸	50.2 134	27.0 72	28.4 76	17.2 46	27.0 72	21.7 58
대학 졸	55.3 302	35.7 195	31.5 172	25.5 139	32.4 177	27.7 151
대학 원졸	56.4 79	44.3 62	36.4 51	27.8 39	36.4 51	28.5 40
전체	47.6 957	27.7 559	26.7 538	18.6 374	25.7 517	21.4 432

자료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2003 여성기업실태조사』 원자료.

정부의 기업활동지원 제도 이용률은 인지도가 가장 높았던 '자금지원 제도'로 전체 여성기업 중 10.2%가 제도를 이용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세계지원 제도' 3.3%, '정보화지원 제도' 2.9%, '기술지원 제도' 2.4%, '판로지원 제도' 0.4% 순서로 이용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기업지원활동 지원 제도 이용 면에서도 학력이 높을수록 이용 비율이 높은 특징이 있었다(<표 III-28>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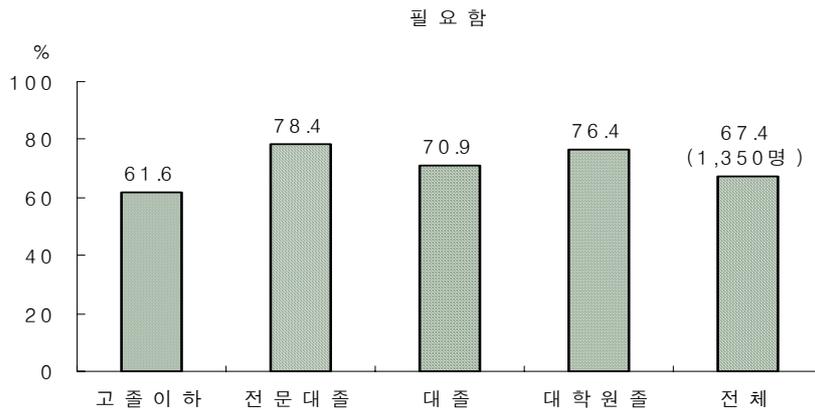
<표 III-28> 학력별 정부의 기업활동지원 제도 이용비율

(단위 : %, 명)

	자금지원 제도	세계지원 제도	기술지원 제도	판로지원 제도	정보화지원 제도	수출지원 제도
고졸 이하	6.7 71	1.1 12	1.5 16	0.4 4	2.4 25	1.5 16
전문대졸	12.4 33	4.1 11	1.1 3	0.0 0	1.5 4	0.8 2
대학졸	13.4 73	5.2 28	3.9 21	0.7 4	3.9 21	1.3 7
대학원졸	20.0 28	11.4 16	6.4 9	0.7 1	5.7 8	4.3 6
전체	10.2 205	3.3 67	2.4 49	0.4 9	2.9 58	1.5 31

자료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2003 여성기업실태조사』 원자료.

여성기업인을 위한 별도의 제도 마련이 필요한지에 대해 전체 여성기업인의 67.4%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필요하다고 학력별로는 '전문대졸 이상'이 '고졸이하'에 비해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그림 III-22> 참조).



자료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2003 여성기업실태조사』 원자료.

<그림 III-22> 여성 기업인 지원을 위한 별도의 제도 마련 필요성 여부

<표 III-29> 학력별 여성 기업인을 위해 필요한 정책

(단위 : %, 명)

	금융지원	세계지 원	경영 및 기술지도	정부지원 업종확대	행정절차 간소화	정부수주 일정량 할당	교육의 기회균등	정부구매 확대	기타	전체
고졸이하	39.8 259	17.1 110	16.9 111	8.3 54	9.1 59	2.9 19	2.6 17	2.5 16	0.9 6	100.0 651
전문대졸	39.1 81	19.3 32	15.5 40	6.8 14	8.2 17	3.4 7	4.3 9	2.9 6	0.5 1	100.0 207
대학졸	34.5 133	14.8 62	16.1 57	14.0 54	9.4 36	5.2 20	3.1 12	1.6 6	1.3 5	100.0 385
대학원졸	37.4 40	16.8 20	18.7 18	10.3 11	5.6 6	2.8 3	1.9 2	2.8 3	3.7 4	100.0 107
전체	38.0 513	16.7 224	16.6 226	9.9 133	8.7 118	3.6 49	3.0 40	2.3 31	1.2 16	100.0 1,350

자료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2003 여성기업실태조사』 원자료.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여성 기업인 1,350명을 대상으로 가장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 조사한 결과 '금융지원'을 38.0%로 가장 많이 원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세제지원'(16.7%), '경영 및 기술지도'(16.6%), '정부지원 업종 확대'(9.9%), '행정절차 간소화'(8.7%), '정부수주 일정량 할당'(3.6%), '교육의 기회균등'(3.0%) 순서로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표 III-29> 참조).

바. 여성기업의 경영성과

1) 여성기업 경영성과

2001년 대비 2002년 매출액 성장률은 '마이너스 성장'이 31.3%로 가장 많았으며 '5%이하'가 28.0%, '10~15% 성장'이 10.7%, '16~30% 성장'이 9.1%, '6~9% 성장'이 8.5% 등으로 나타났다. 고졸이하 학력의 경우 마이너스 성장 비율이 가장 높았다(<표 III-30> 참조).

<표 III-30> 학력별 2001년 대비 2002년 매출액 성장률

(단위 : %, 명)

	마이너스 성장	0-5%	6-9%	10-15%	16-30%	31%+	2002년이 후 창업	기타 (무응답)	전체
고졸이하	36.6 388	28.8 306	9.0 95	9.3 99	7.3 77	4.8 51	1.4 15	2.8 30	100.0 1,061
전문대졸	21.7 58	28.1 75	8.2 22	13.9 37	10.9 29	7.9 21	3.7 10	5.6 15	100.0 267
대학졸	26.6 145	26.2 143	8.8 48	11.9 65	11.7 64	9.3 51	1.8 10	3.7 20	100.0 546
대학원졸	27.9 39	28.6 40	5.0 7	10.7 15	9.3 13	12.9 18	2.1 3	3.6 5	100.0 140
전체	31.3 630	28.0 564	8.5 172	10.7 216	9.1 183	7.0 141	1.9 38	3.5 70	100.0 2,014

자료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2003 여성기업실태조사』 원자료.

2002년 자기자본 성장률에 대해서는 '5%이하'가 49.4%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6~9%'가 15.4%로 많았고, '10~15%' 12.4%로 15%이하가 전체 77.2%를 차지했다. 고졸이하학력의 경우 5%이하가 차지하는 비율이 54.0%로 가장 높은 학력으로 나타났으며 다른 학력에 비해 9%이하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았다 (<표 III-31> 참조).

<표 III-31> 학력별 2002년 자기자본 경상이익률

(단위 : %, 명)

	0-5%	6-9%	10-15%	16-30%	31%+	2003년 창업	기타 (무응답)	전체
고졸 이하	54.0 573	16.2 172	11.3 120	6.7 71	2.7 29	0.3 3	8.8 93	100.0 1,061
전문 대졸	46.1 123	15.4 41	15.7 42	7.1 19	2.2 6	1.9 5	11.6 31	100.0 267
대학졸	45.4 248	13.0 71	12.8 70	11.9 65	5.7 31	0.9 5	10.3 56	100.0 546
대학 원졸	35.7 50	19.3 27	12.1 17	11.4 16	11.4 16	2.1 3	7.9 11	100.0 140
전체	49.4 994	15.4 311	12.4 249	4.0 81	4.5 90	4.1 82	0.8 16	100.0 2,014

자료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2003 여성기업실태조사』 원자료.

<표 III-32> 학력별 경영 성과 요인

(단위 : %, 명)

	확실한 수요처 확보	안정적인 인력확보	틈새시장 진출	원활한 자금조달	기술개발/ 특허보유	기타 (무응답)	전체
고졸 이하	42.6 384	22.5 203	14.6 132	12.5 113	6.9 62	0.9 8	100.0 902
전문 대졸	39.8 96	21.2 51	14.1 34	17.0 41	7.5 18	0.4 1	100.0 241
대학졸	48.5 235	23.5 114	10.5 51	8.9 43	8.5 41	0.2 1	100.0 485
대학 원졸	43.2 60	20.9 29	10.1 14	9.4 13	15.8 22	0.7 1	100.0 139
전체	43.9 775	22.5 397	13.1 231	11.9 210	8.1 143	0.6 11	100.0 1,767

주 : 복수응답

자료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2003 여성기업실태조사』 원자료.

여성 기업인들은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요인으로 '확실한 수요처 확보'(43.9%)를 가장 많이 지적하고 있고 '안정적인 인력확보'(22.5%), '틈새시장 진출'(13.1%), '원활한 자금 조달'(11.9%), '기술개발'(8.1%) 등이 차례로 중요하게 나타났다(<표 III-32> 참조). 기업 경영성과의 긍정적인 요인이 '확실한 수요처 확보', '안정적인 인력확보'에 많이 답한 것과 여성 기업인이 기업 경영에 애로점으로 '판로개척'과 '인력확보'인 것을 감안하여 볼 때 이 부분에 대한 정부지원이 필요하다. 여성 기업인은 앞서 정부에 바라는 지원제도로 '경영 및 기술지도'를 세 번째로 많이 원하고 있었다.

부도 경험에 대한 조사에서 여성 기업인의 79.5%가 '부도난 적이 없다'고 하였고 13.5%는 '부도난 적은 없지만 부도위기를 경험한 바 있다'고 응답하였다. 부도를 경험한 여성기업인들의 부도 횟수는 '1~2번'이 가장 많았다. 학력별로는 고학력일수록 '부도난 적이 없다'고 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표 III-33> 참조).

<표 III-33> 학력별 창업 이후 부도 경험 여부

(단위 : %, 명)

	부도난 적이 없다	부도난 적은 없지만 부도위기를 경험한 바 있다	1-2번 부도	3-4번 부도	5번 이상 부도	기타 (무응답)	전체
고졸 이하	77.4 821	14.9 158	4.1 43	1.3 14	1.2 13	1.1 12	100.0 1,061
전문대졸	78.7 210	14.2 38	2.2 6	2.2 6	0.7 2	1.9 5	100.0 267
대학졸	83.3 455	10.3 56	3.7 20	0.4 2	0.4 2	2.0 11	100.0 546
대학원졸	82.1 115	14.3 20	0.7 1	0.7 1	0.0 0	2.1 3	100.0 140
전체	79.5 1,601	13.5 272	3.5 70	1.1 23	0.8 17	1.5 31	100.0 2,014

자료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2003 여성기업실태조사』 원자료.

장래 사업다각화, 외국인투자유치 방법, 합병, 매각, 업종전환, 고용조정 등의 구조조정 계획에 대해서는 전체 68.5%가 '없다'고 응답하였고 '있다'고 응답

한 비율은 25.7%였으며²²⁾ '사업을 곧 그만둘 계획'인 여성 기업인은 4.5%에²³⁾ 불과했다. 학력별로는 학력이 낮을수록 '구조조정 계획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과 '사업을 곧 그만둘 계획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아졌다. 고졸이하의 경우 '구조조정 계획이 없다'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부도의 경험 이 고졸이하 학력이 다른 학력에 비해 많았고 이는 변화보다는 안전 경영을 선호하는 요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표 III-34> 참조).

<표 III-34> 학력별 장래 구조조정* 계획

(단위 : %, 명)

	있다	없다	사업을 곧 그만둘 계획이다	기타 (무응답)	전체
고졸이하	19.7 209	73.1 776	6.0 64	1.1 12	100.0 1,061
전문대졸	31.1 83	61.8 165	5.6 15	1.5 4	100.0 267
대학졸	31.5 172	65.0 355	1.8 10	1.6 9	100.0 546
대학원졸	37.9 53	59.3 83	1.4 2	1.4 2	100.0 140
전체	25.7 517	68.5 1379	4.5 91	1.3 27	100.0 2,014

* 구조조정 : 사업다각화, 외국인투자유치 방법, 합병, 매각, 업종전환, 고용 조정 등
 자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2003 여성기업실태조사』 원자료.

2) 여성기업의 성과 학력, 경력별 비교

여성기업의 성과에 학력, 경력의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여성기업의 성과 변수로 매출액과 학력, 경력간의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을 하였다. 학력은 고졸이하, 전문대졸이상으로 2부문으로 나누었고

- 22) 구조조정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여성기업인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계획 방향을 조사한 결과 '사업다각화'가 51.9%(290명)로 가장 많았고, '고용조정'이 22.2%(124명), '업종전환' 16.3%(91명), '합병'과 '매각'이 각각 3.6%(20명)로 응답수가 같았으며 '외국인 투자'가 2.5%(14명)로 가장 적었다.
- 23) '사업을 그만 둘 계획'이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경기 불황'을 41.7%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채산성 악화'(23.9%)의 원인이 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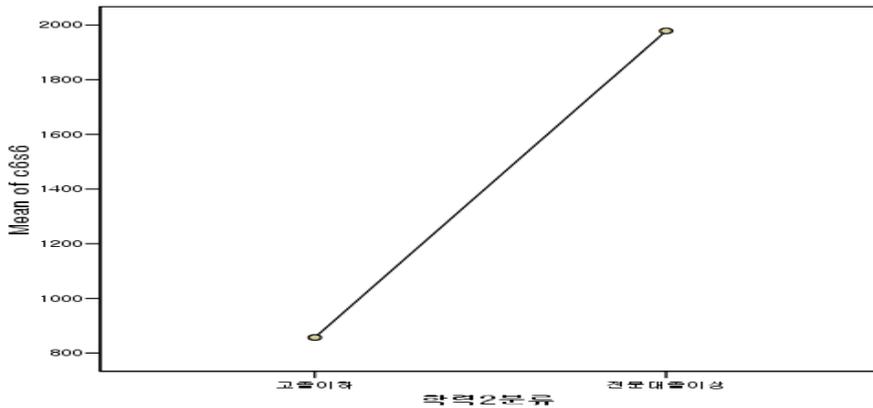
경력은 경력의 유무로 분류하는데 <표 III-10>의 응답결과를 이용하였다. 즉, '가정주부/무직'을 '경력 없음'으로 나머지 '현회사의 임직원', '기술·생산·기능직 종사자', '도소매 자영 사업주', '급여생활자', '전문직 종사자', '전문경영직', '판매서비스직'은 '경력 있음'으로 묶었다.

우선 매출액에 대해 학력과 경력을 각각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하였다. 학력과 매출액 비교에서 '전문대졸이상'의 학력집단이 '고졸이하' 학력 집단에 비해 평균 매출액이 약 1,122백만원, 2배 이상 컸고 이러한 학력 차이는 Levene 통계량의 유의확률과 F통계량의 유의확률을 통하여 유의미함을 알 수 있다(<표 III-35>, <그림 III-23> 참조).

<표 III-35> 학력 집단별 매출액 비교

	n	Mean(백만원)	Levene	Sig.	F	Sig.
고졸이하	898	856.73	84.704	0.000	50.006	0.000
전문대졸이상	801	1978.57				
전체	1699	1385.63				

자료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2003 여성기업실태조사』 원자료.



자료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2003 여성기업실태조사』 원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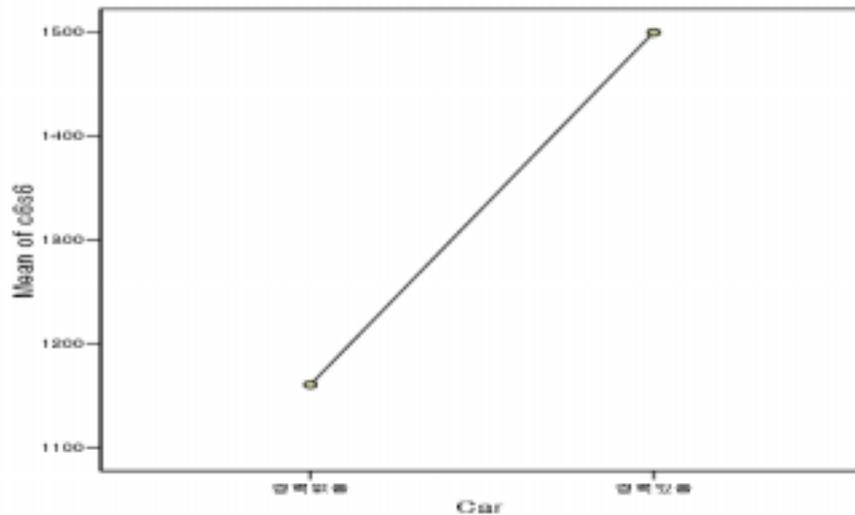
<그림 III-23> 학력별 평균 매출액

경력과 매출액 비교에서는 '경력이 있는' 집단이 '경력이 없는' 집단보다 평균 약 339백만원, 29% 많았다. 또 이러한 매출액에서 경력이 있고 없음에 따라 나타나는 차이는 Levene 통계량의 유의확률과 F통계량의 유의확률을 통하여 유의미함을 알 수 있다(<표 III-36>, <그림 III-24> 참조).

<표 III-36> 경력 집단별 매출액 비교

	n	Mean(백만원)	Levene	Sig.	F	Sig.
경력없음	572	1160.72	5.327	0.021	3.986	0.046
경력있음	1127	1499.78				
전체	1699	1385.63				

자료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2003 여성기업실태조사』 원자료.



자료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2003 여성기업실태조사』 원자료.

<그림 III-24> 경력별 평균 매출액

매출액의 집단별 차이는 경력 보다 학력에서 그 차이가 더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에는 학력과 경력을 동시에 고려하여 매출액 차이를 알아보기 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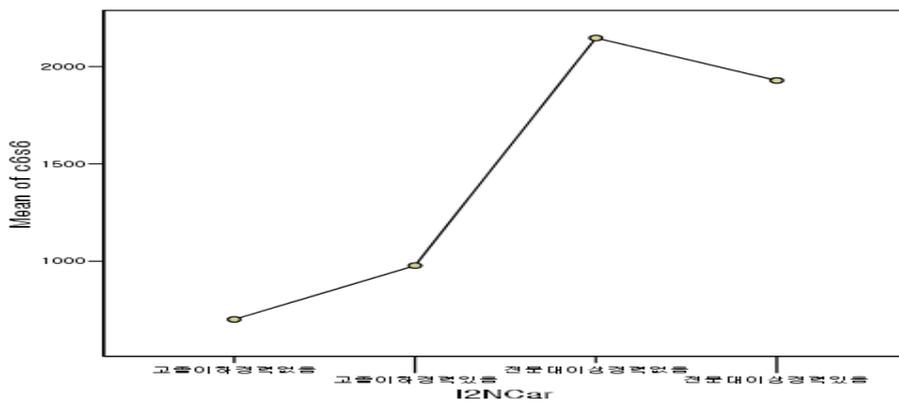
하여 '고졸이하·경력없음', '고졸이하·경력있음', '전문대졸이상·경력없음', '전문대졸이상·경력있음'으로 4개의 집단으로 나누어 매출액에 대해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을 하였다.

매출액의 학력·경력 집단별 비교 결과는 <표 III-37>과 같다. 평균 매출액은 '전문대졸이상·경력없음' 집단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전문대졸이상·경력있음', '고졸이하·경력있음', '고졸이하·경력없음'으로 나타났다. 매출액 차이는 평균 매출액 가장 높은 집단이 가장 낮은 집단에 비해 무려 3배 이상 높아 차이가 컸다. 집단별 차이의 유의미함은 Levene검정과 F검정을 통하여 모두 유의함이 확인되었다.

<표 III-37> 학력·경력 집단별 매출액 비교

	n	Mean(백만원)	Levene	Sig.	F	Sig.
고졸이하·경력없음	390	700.24	31.289	0.000	17.409	0.000
고졸이하·경력있음	508	976.88				
전문대졸이상·경력없음	182	2147.46				
전문대졸이상·경력있음	619	1928.92				
전체	1699	1385.63				

자료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2003 여성기업실태조사』 원자료.



자료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2003 여성기업실태조사』 원자료

<그림 III-25> 학력·경력별 평균 매출액

한편, 매출액의 학력 집단간 비교 결과와 학력과 경력을 동시에 고려한 매출액 비교 결과는 '고졸이하' 집단이 '전문대졸이상'의 집단 보다 매출액이 낮아 동일하였으나 경력 집단의 경우는 상이한 결과가 나온 것을 알 수 있다. 즉, 매출액과 경력 변수만을 분석하였을 때는 '경력있는' 집단이 '경력없는' 집단에 비해 평균 매출액이 높았으나 학력·경력의 경우 '전문대졸이상'의 집단에서 '경력이 없는' 집단이 '경력이 있는' 집단에 비해 평균 매출액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본 데이터의 학력별 업종 분포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²⁴⁾ '고졸이하' 집단의 경우는 전통 업종인 '제조업'의 비중이 '전문대졸이상'의 집단보다 높고 '전문대졸이상' 집단은 사업서비스업과 교육/보건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고졸이하' 집단보다 2배와 19배까지 각각 높게 나타났는데 이들 업종은 일반적으로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가 창업 성공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업종으로 '전문대졸이상' 학력자들의 비중이 높은 이들 업종에서는 창업자들의 경력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사. 여성기업인의 학력·경력별 성과분석

여성기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알아보기 위해 성과분석을 하였다. 여성기업인의 성과 분석은 매출액을 성과 변수로 두고 여성 기업인의 현재 연령, 현재 학력, 경력의 여성기업인의 인적 요인과 종업원 규모, 연구개발투자액, 중장기계획 존재 여부, 자기자본비율, 산업재산권의 기업의 요인을 독립 변수로 회귀분석을 하였다.

24) 학력별 업종분포

	제조업	건설업	통신업	도소매업	숙박및 음식점 업	운수 업	금융 보험 업	부동산 및 임대업	사업 서비스 업	교육/ 보건 서비스업	기타	전체
고졸 이하	463 43.6	91 8.6	40 3.8	114 10.7	88 8.3	43 4.1	29 2.7	34 3.2	69 6.5	16 1.5	74 7.0	1061 100.0
전문대 졸이상	295 31.0	69 7.2	27 2.8	105 11.0	31 3.3	36 3.8	10 1.0	29 3.0	119 12.5	186 19.5	46 4.8	953 100.0
전체	758 37.6	160 7.9	67 3.3	219 10.9	119 5.9	79 3.9	39 1.9	63 3.1	188 9.3	202 10.0	120 6.0	2014 100.0

자료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2003 여성기업실태조사』 원자료.

<표 III-38> 여성기업의 성과 분석 변수 설명

성과	독립변수		
매출액	연령	Age	여성기업인의 현재 연령
	학력더미	Dsch	Dsch1=1 전문대졸, Dsch2=1 대졸, Dsch3=1대학원. 기준 학력은 고졸이하이고 학력 시점은 연령과 동일하게 현재 임.
	경력*더미	Dcar	Dcar1=1은 여성기업인의 경력이 있음을 나타냄.
	기업규모	Siz	종업원 수
	연구개발	RnD	연구개발투자액
	중장기계획	Dplan	Dplan1=1은 중장기 계획이 있음을 나타냄.
	자기자본	Cap	총자본에서 부채를 차감한 것.
	산업재산권	Esa	특허권, 의장권, 신안권, 상표권, 해외재산권 보유 건수를 말함.

주 : 경력은 앞서 '여성기업의 성과 집단간 비교'에서 사용한 경력 변수와 동일

분석 결과 산업재산권 보유(Esa)와 연구개발(Rnd)을 제외한 연령(Age), 학력(Dsch), 경력(Dcar), 기업규모(Siz), 중장기계획(Dplan), 자기자본(Cap)이 여성 기업 성과 변수로 정의한 매출액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들 독립변수 중 전문대졸(Dsch1), 경력(Dcar1), 산업재산권(Esa)은 매출액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유의미한 변수 중에 기업 매출액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각각의 변수를 살펴보면 연령이 높을수록 매출액이 크고 학력에서는 고졸에 비해 대졸과 대학원졸의 매출액이 컸고 종업원 수로 정의한 기업규모가 클수록, 자기자본액이 많은 기업일수록 매출액도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반면, 연구개발액은 매출액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유의미한 변수로 분석되었다.

<표 III-39> 여성기업의 성과 분석 결과

성과변수	독립변수	추정계수	표준오차	t	유의확률
매출액	Constant	-1332.130	554.599	-2.402	0.017
	Age	447.846	147.898	3.028	0.003
	Dsch1	663.563	397.699	1.669	0.096
	Dsch2	1202.966	339.841	3.540	0.000
	Dsch3	2562.065	571.749	4.481	0.000
	Dcar	202.608	274.555	0.738	0.461
	Siz	11.907	1.863	6.390	0.000
	RnD	-0.055	0.020	-2.801	0.005
	Dplan1	840.388	267.237	3.145	0.002
	Cap	1.459	0.091	16.114	0.000
	Esa	-1.230	4.782	-0.257	0.797

R2=0.660, 수정R2=0.436, D.W=1.567 F=53.328 Sig=0.000 (n=701)

자료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2003 여성기업실태조사』 원자료

3. 소결

『2002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통계청) 기준 전국에 여성이 대표로 있는 사업체수는 총 1,117,664개사로 전체 사업체의 35.7%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남성사업체에 종사하는 여성 비율은 32.2%에 불과한 반면, 여성 사업체에 종사하는 여성의 비율은 75.4%로 월등히 높게 나타나 여성 사업체일수록 여성 고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사업체의 조직형태별 분포는 95.7%가 개인사업체이고 회사법인은 2.1%이다. 여성 사업체의 산업별 분포를 보면 ‘숙박 및 음식점업’이 38.6%로 가장 많았고 규모는 ‘5인 미만’이 92.3%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의 『2003년 여성기업실태조사』의 원자료를 이용하여 여성 기업인의 창업과정과 기업현황에 관해 분석을 하였다.

창업 당시 여성 기업인 평균 연령은 39세였고 연령 분포는 30대가 42.1%로 가장 많고, 창업 당시 학력분포는 고졸이 55.1%로 가장 많았다.

여성 기업인의 창업 당시 회사와의 관계는 '법적 소유주이면서 경영에 참가'가 84.3% 가장 많았고 사업을 시작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는 '자신이 직접 창업하였다'가 61.1%로 가장 많았다.

여성 기업인들의 창업 전 경력은 '가정주부/무직'이 35.5%로 가장 많았다. 창업이전 기업체에서 종사했던 여성 기업인을 대상으로 기업체에서 담당했던 업무와 창업업종과의 연관성에 대해 조사한 결과 '연관성이 많다'가 51.5%로 가장 많았고 창업 당시의 기업형태에 대해서는 '개인기업'이 76.8%로 가장 많았다.

창업을 결심하고 실제적으로 창업을 하기까지 소요된 기간은 '6개월'이내가 41.5%로 가장 많고, 여성 기업인들이 창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느낀 애로점에서 대해서는 '자금 조달'이 전체 응답자의 49.1%로 가장 많았다.

여성 기업인들에게 창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창업을 지원해주는 기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29.4%만이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창업 지원 기관을 안다고 응답한 여성기업인을 대상으로 창업지원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거나 창업정보, 상담의 도움 등을 받은 적이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 전체 27.1%가 '도움을 받았다'고 응답하였다. 창업 지원기관으로부터 도움을 받은 경험이 있는 여성기업인들이 창업지원기관이용시 느낀 애로점은 '지원기관 지원 내용 불충분'이 52.2%로 가장 많았다.

여성 기업인들의 평균 창업 자금 규모는 2천 1백만원이었고 창업 자금을 조달은 '본인·공동경영인의 출자'가 58.4%로 가장 많았다.

여성기업의 형태는 '개인회사'가 67.9%로 가장 많고 여성 기업의 평균 년수는 '7년', 기업 년수별 분포는 '3~5년'이 35.9%로 가장 많았다.

여성 기업가들은 전체 응답자의 37.0%가 '중장기 계획'이 있다고 답하였는데 이들 여성 기업이 갖고 있는 계획의 중점 목표는 '매출증가'가 37.4%로 가장 많았다.

여성 기업인은 경영에서 '시장개척'을 32.0%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고 경영상 문제가 있을 때 '남편 및 가족'과 의논하는 비율이 47.4%로 가장 높았다.

여성 기업인은 기업활동 중 '자금조달'(29.7%)에 가장 많이 애로점으로 느끼고 있었으며 학력이 낮을수록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느끼는 비율은 높았다. 자금조달을 할 때 여성기업인들이 금융기관 이용시 가장 많이 느끼는 애로점은 '담보부족'으로 전체의 22.4%를 차지했다.

여성기업주만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교육과정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전체 49.6%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학력이 높을수록 별도의 교육과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높게 나타났다.

여성기업인들은 남성과 경영활동에서 불리한가에 대해서 '비슷하다'고 느끼는 비율이 57.0%로 가장 높았고, '불리하다'는 비율은 35.4%였다. 여성 기업인들이 남성 경영인들과 비교하여 불리하다고 여기는 것은 '가사, 자녀 양육 병행'이 31.9%로 가장 많았고 반면,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세심하고 꼼꼼하기 때문에 소비자의 욕구를 잘 파악할 수 있다'(65.2%)로 가장 많았다.

정부의 기업지원활동지원 제도 중 여성기업인은 '자금지원 제도'를 47.6%로 가장 많이 알고 있었고 전반적으로 학력이 높을수록 제도 인지 비율이 높아지는 특징이 있었다. 정부의 기업활동 지원제도 중에는 인지도가 높았던 '자금지원 제도'의 이용률이 10.2%로 가장 높았다.

여성기업인을 위한 별도의 제도 마련이 필요한지에 대해 전체 여성기업인의 67.4%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가장 필요한 정책에는 '금융지원'이라는 38.0%로 가장 많았다.

여성 기업인들은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요인으로 '확실한 수요처 확보'(43.9%)를 가장 꼽았으며 사업에서 부도 경험은 여성 기업인의 79.5%가 '부도난 적이 없다'고 하였고 학력별로는 고학력일수록 '부도난 적이 없다'고 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구조조정 계획에 대해서는 전체 여성기업인의 68.5%가 '없다'고 응답하였고 학력이 낮을수록 '구조조정 계획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과 '사업을 곧 그만둘 계획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아졌다. 고졸의 경우 '구조조정 계획이 없다'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부도의 경험이 고졸 학력이 다른 학력에 비해 많았고 이는 변화보다는 현상유지의 안정적인 경영을 선호하는 요인

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여성기업의 성과 분석으로 매출액의 집단별 차이를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을 통하여 살펴보고 매출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는 회귀분석을 하였다.

학력, 경력 두 집단으로 나누어 매출액에 대해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을 한 결과 '전문대졸이상'의 집단과 '경력있음'의 집단의 평균 매출액이 높았으며 이러한 차이는 유의하였다. 학력과 경력을 동시에 고려한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 분석에서는 '전문대졸이상·경력없음', '전문대졸이상·경력있음', '고졸이하·경력있음', '고졸이하·경력없음' 집단의 순서로 평균 매출액이 높았으며 이러한 집단간 차이도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여성기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회귀분석 결과 연령이 높을수록, 고졸 학력에 비해 대졸, 대학원졸, 기업규모가 클수록, 중장기계획이 있는 기업과 자기자본이 큰 기업일수록 매출액도 상승하였고 연구개발액 투자액의 상승은 매출액의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더미 변수에서 고졸학력에 비해 전문대졸과, 경력있는 집단이 경력없는 집단에 비해 매출액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IV

여성 전문인력의 창업활동
조사

1. 심층면접 조사개요	89
2. 심층면접 조사결과	95
3. 소결	109



1. 심층면접 조사개요

가. 조사개요

본 연구에서는 2차 자료를 활용하여 여성창업 및 여성기업의 일반 현황을 재분석하였다. 이 장에서는 심층면접을 통해 여성 전문인력 집단의 창업활동을 살펴보고자 한다. 2장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여성 전문인력을 고학력의 직업경력을 가진 자로 정의하였다. 여성 전문인력 집단의 창업활동을 조사하기 위하여 심층면접 조사대상자의 표본을 지식기반산업에서 창업한 여성기업가로 한정하였다. 이는 지식기반산업의 여성 취업자의 특성이 타 산업군에 비해서 학력수준이 높고, 경력년수가 긴 것을 감안할 때(양인숙 외 2003), 해당 산업에서의 여성기업인도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사대상 표집²⁵⁾은 지식기반제조업과 지식기반서비스업종에서 설립년도를 기준으로 성장단계별(창업초기, 성장기, 성숙기)로 10여 개 여성기업을 무작위로 추출하였다. 해당하는 여성 기업체 100여 개에 전화연락을 취하여 면접조사에 동의한 여성 기업인 21명에 한하여 연구진들이 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심층면접조사는 2004년 7월부터 8월까지 총 2개월에 걸쳐 실시되었으며, 면접시간은 평균 1시간에서 1시간 30분 가량 소요되었다. 심층면접은 반구조화된 면접지로 활용하였는데, 면접일 전에 조사대상자에게 이메일로 조사지를 송부하여 면접내용을 확인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면접의 진행은 조사지의 문항을 따라가면서, 조사대상자들이 자유롭게 이야기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25)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서 발간한 「여성기업 명부」에서 추출하였는데, 명부에 기재된 업종과 주요 생산품목을 기준으로 지식기반제조업과 지식기반서비스업으로 분류하였다.

나. 조사내용

본 조사연구는 고부가 가치 산업에서의 여성창업활동을 조사하는 데 목적을 두고, 창업관련 문항으로 창립년도, 취업경력 유무, 창업전 근무회사의 형태 및 업종 등이 포함되며, 창업활동은 창업자의 전문성, 창업준비기간 및 내용, 창업동기 및 창업유형, 창업자의 경영능력, 초기 자본금 규모, 창업당시와 현재의 애로사항, 창업 성공요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밖에 기업현황 및 창업자 인구통계학적 특성, 창업지원 제도에 대한 인지도 및 만족도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표 IV-1 참조>.

<표 IV-1> 면담조사 영역별 조사항목

조사영역	조사항목
창업관련 문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귀사의 업종 및 주요품목 · 창립년도 · 창업 전 취업경력 및 경력년수 · 창업전 근무회사의 형태 및 업종
창업활동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준비기간 및 준비내용 · 창업동기 및 창업유형 · 창업자의 경영능력 · 초기자본금 규모 및 자금확보시 애로사항 · 창업 당시와 현재의 경영 문제점 · 컨설팅 지원 요구분야 · 창업성공요인 및 성공적인 창업모델
창업지원 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지원프로그램 인지도 및 만족도 · 창업지원프로그램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기업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당시 및 현재의 종업원 수 (성별, 비정규직 활용도 등) · 매출액 및 순수익
창업자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통계학적 특성(연령, 학력, 혼인상태 등)

다. 조사대상자의 특징

조사대상자수는 총 21명으로 지식기반서비스업종의 여성 기업가 12명과 지식기반제조업종의 여성 기업가 9명으로 구성되어 있다<표 IV-3 참조>. 면접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창업전 직장형태는 다음 <표 IV-2>와 같다.

<표 IV-2> 면담조사 대상자의 특성

구 분		명	%
창업당시 연령	25 ~ 29세	4	19.0
	30 ~ 39세	12	57.1
	40 ~ 49세	5	23.8
현재 연령	25 ~ 29세	2	9.5
	30 ~ 39세	8	38.1
	40 ~ 49세	9	42.9
	50세 이상	2	9.5
학력	고교졸업	6	28.6
	전문대졸업	1	4.8
	대학교 졸업	10	47.6
	대학원(석사)졸업	4	19.0
전공*	상경계	6	40.0
	인문사회계	5	33.3
	예체능계	4	26.7
	소 계	15	100.0
혼인여부	미혼	6	28.6
	기혼	13	61.9
	이혼/사별	2	9.5
창업 전 직장형태	대기업	9	42.9
	중소기업	7	33.3
	개인기업/자영업	3	14.3
	연구소	1	4.8
	교육기관	1	4.8
합 계		21	100.0

* 전문대졸 이상의 전공분포임.

먼저 여성 창업자의 창업당시 연령을 살펴보면, 30대가 57.1%로 가장 많았고, 40대가 23.8%, 20대 후반이 19.0%의 분포를 차지했다. 이것은 여성 전문인력의 창업 연령이 여성 기업인 전체의 창업연령보다 낮은 경향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²⁶⁾. 면접대상자의 현재 연령은 40대가 42.9%로 가장 많았고, 30대가 38.1%, 20대와 50대 이상이 각각 9.5%로 나타났다. 창업자의 학력은 대학 졸업이 47.6%로 과반수 정도를 차지하였는데, 여성 기업인 전체의 학력분포 중 고졸이 55.1%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던 것²⁷⁾과 상당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특이할 만한 것은 고졸 학력자 28.6%가 모두 지식기반제조업종에서의 여성 창업자라는 것이다. 노동시장내 여성 취업자의 학력분포에서도 이와 유사한 분포를 나타내고 있는데(양인숙, 2003), 제조업에 종사하는 여성 취업자의 학력 수준이 서비스업보다 낮으며, 이는 지식기반산업의 경우도 마찬가지다²⁸⁾. 이것은 여성 기업인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데, 지식기반제조업보다는 지식기반서비스업종에서 창업한 여성 기업인의 학력이 더 높게 나타났다.

전문대졸 이상의 전공별 분포를 보면, 상경계가 40.0%, 인문사회계 33.3%, 예체능계 26.7%의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혼인형태는 기혼이 61.9%로 가장 높고, 미혼이 28.6%, 미혼이 28.6%, 이혼·사별이 9.5%의 분포를 보였는데, 지식기반제조업의 여성기업가들은 모두 기혼이거나 결혼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지식기반서비스업의 여성기업가 연령이 지식기반제조업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것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심층면접조사의 대상자인 여성 기업가들은 모두 창업 전 직장경력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여성 기업인 전체의 창업전 경력분포와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²⁹⁾. 면접조사 대상자

26) 본 연구의 3장에서 여성 기업인의 창업연령 분포는 30대가 42.1%, 40대가 34.3%임을 밝힌 바 있다.

27) 본 연구 3장 p.44 참조.

28) 양인숙 외(2003)의 연구에서는 노동부의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2002」의 원자료 재분석을 통하여 산업별 여성 취업자의 학력분포를 살펴보았다. 지식기반서비스업의 경우, 고졸이하가 34.8%, 전문대졸이 30.0%, 대졸 이상이 35.2%이며, 지식기반제조업은 고졸 이하가 84.1%, 전문대졸은 8.5%, 대졸 이상은 7.4%로, 고졸 이하의 학력에 집중되어 있어 지식기반서비스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학력분포를 보이고 있다.

29) 본 연구의 3장에서 분석한 결과를 보면, 여성 기업인 전체의 창업전 경력분포의 특

의 창업 전 근무회사의 형태를 살펴보면, 대기업이 42.9%, 중소기업이 33.3%, 개인기업·자영업이 14.3% 등의 순이었다. 본 조사대상인 지식기반산업에서의 여성 창업기업가들은 창업 전 직업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라. 조사사업체의 현황

여성 창업자의 사업체 현황을 보면, <표 IV-3>과 같다. 먼저 업종별 분포를 나누어 살펴보면, 지식기반 서비스업의 12개 업체에는 디자인업(시각및산업디자인), 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번역및통역 서비스업, 영화방송공연업이 포함되어 있으며, 지식기반 제조업 9개 업체에는 기계장비 제조업, 전자부품제조업, 화학제품 제조업, 자동차부품 제조업에서의 여성기업이 포함되었다. 본 연구조사의 업종 분포는 조사대상 여성 사업체의 주요 생산품목을 기준으로 업종을 구분하였다.

회사형태는 주식회사가 57.1%로 개인사업체(42.9%)의 비중보다 높았다. 창업년도를 기준으로 한 기업연령을 보면, 창업 후 1~3년 사이의 창업 초기단계의 기업이 38.1%, 4~6년의 성장기 단계가 42.9%, 7년 이상이 19.0%를 차지하고 있다. 창업 당시의 자본금 규모는 5천만원 이하가 52.4%로 가장 높고, 5천만원에서 1억원의 분포가 19.0%, 1억원에서 1억 5천만원이 19.0%, 1억 5천만원 이상이 9.5%로, 대다수가 소규모 창업자금으로 기업을 설립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정은 저학력일수록 가정주부 등의 경력이 없었던 분포가 높고, 고학력일수록 급여생활자, 전문직 종사자의 비율이 높다는 것이다.

<표 IV-3> 조사 사업체 현황

		구 분	개소	%
업종	지식기반 서비스업 (N=12)	디자인업	4	19.0
		사업지원서비스업*	4	19.0
		교육서비스업	2	9.5
		번역및통역 서비스업	1	4.8
		영화, 방송및공연산업	1	4.8
	지식기반 제조업 (N=9)	기계및장비 제조업	4	19.0
		전자부품영상음향및통신장비	3	14.3
		화학제품 제조업	1	4.8
자동차부품 제조업		1	4.8	
회사형태	개인사업체	9	42.9	
	주식회사	12	57.1	
기업 연령	1~3년	8	38.1	
	4~6년	9	42.9	
	7년 이상	4	19.0	
창업 당시 자본금규모	5천만원 미만	11	52.4	
	5천만원 ~1억 미만	4	19.0	
	1억~1억 5천만원 미만	4	19.0	
	1억 5천만원 이상	2	9.5	
창업년도 매출액	5천만원 미만	3	14.3	
	5천만원~1억 미만	7	33.3	
	1억~2억 미만	3	14.3	
	2억 이상	4	19.0	
	무응답	4	19.0	
현재매출액 (2003년)	1억 미만	1	4.8	
	1억~5억 미만	11	52.4	
	5억~10억 미만	4	19.0	
	10억~20억 미만	2	9.5	
	20억 이상	3	14.3	
창립당시 종업원수	5명 미만	11	52.4	
	5명~9명	5	23.8	
	10명~14명	3	14.3	
	15명~19명	1	4.8	
	20명이상	1	4.8	
현재 종업원수	5명 미만	5	23.8	
	5명~9명	8	38.1	
	10명~14명	5	23.8	
	20명이상	3	14.3	
		합 계	21	100.0

* 사업지원서비스업에는 헤드헌팅, 홍보, 경호업체가 이에 해당한다.

창업 초기연도, 즉 창업한 해의 매출액을 보면, 5천만원에서 1억 미만이 33.3%로 가장 높았고, 2억 이상이 19.0%, 5천만원 미만과 1억에서 2억 미만이 각각 14.3%였고, 기억하지 못한다고 응답하였거나 응답을 꺼리는 비율이 19.0%였다. 2003년 현재 매출액은 1억에서 5억 미만이 52.4%로 가장 높았고, 5억에서 10억 미만이 19.0%, 20억 이상이 14.3%, 10억에서 20억 미만이 9.5%, 1억 미만이 4.8%의 분포를 나타내, 창업 당시보다 매출액이 상당히 증가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창립당시의 종업원 수는 5명 미만이 57.1%로 가장 많았고, 6명에서 10명과 11명에서 15명의 사업체가 각각 19.0%, 20명 이상인 사업체가 4.8%였다. 현재 종업원 수는 6명에서 10명의 사업체가 57.1%, 5명 미만이 23.8%, 20명 이상이 3%, 11명에서 15명인 사업체가 4.8%의 분포를 나타내고 있어, 창립당시보다 종업원의 규모가 증가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2. 심층면접 조사결과

가. 창업자의 해당 분야 전문성

앞에서 여성 전문인력을 고학력의 직업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정의하였는데, 본 장에서는 여성 전문인력의 지식기반산업에서의 창업활동을 조사하기 위하여 먼저 창업자의 해당 분야 전문성 정도를 파악하였다. 해당 분야의 전문성은 창업업종과 관련된 전공의 이수 여부와 이전 직장경력과 창업업종과의 관련성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표 IV-4 참조>.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 집단에서는 53.3%가 창업업종과 관련된 전공을 이수하였으나, 고졸 학력의 경우(33.3%)에는 창업업종의 전문지식이 낮은 것으로 간주하였다. 또한 창업업종과 동일한 업종 또는 유사 업종에서의 이전 직장경험을 가진 집단의 분포가 66.7%로 나타났다.

<표 IV-4> 창업 업종과 전공 및 경력과의 관련성

구 분		창업 업종과 이전 종사업종과의 관련성			전 체
		동일 업종	유사 업종	무관한 업종	
전공	관련 전공	6 (28.6)	1 (4.8)	1 (4.8)	8 (38.1)
	비관련 전공	2 (9.5)	-	5 (23.8)	7 (33.3)
	전공 없음*	4 (19.0)	1 (4.8)	1 (4.8)	6 (28.6)
합 계		12 (57.1)	2 (9.5)	7 (33.3)	21 (100.0)

* 고졸인 경우임.

조사대상자 중 전공과 경력의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시키는 집단, 즉 창업업종과 관련 전공을 이수하였으며, 동일 업종이나 유사 업종에서의 이전 직장경험이 있는 비율은 33.3%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지식기반산업에서의 여성 창업자들은 창업업종과 전공과의 관련성이 낮은 반면, 창업업종과 이전 종사업종과의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지식기반산업의 여성 창업은 전문지식보다는 직장생활을 통한 경험이 더 큰 영향요인임을 알 수 있다.

여성 기업가들에게 전공과 직장생활의 경험이 창업시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가를 질문하였다. 전공보다는 직장 경력이 창업과 기업경영에 직접적인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는데, 직장생활을 통한 기업현장에서의 훈련과 경험이 기업경영에 더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 대학교육의 현실이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지식과 기술과는 거리가 있다는 것을 뒷받침 해주고 있으며, 전공지식보다 경험에서 축적된 문제해결능력과 인맥이 사업을 하는 데 더 큰 도움이 되는 요인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저는 소규모 광고기획사에 디자이너로써 입사를 한 후 5년간 근무를 했었습니다. 이 회사에서 저는 디자이너로써의 업무 외에도 마케팅과 홍보분야의 일을 책임지고 수행하였는데, 이때 쌓은 경험은 창업 시 저에게 많은 도움을 준 것 같습니다. 조직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며, 사람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

지, 마케팅과 홍보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알게 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그 때 알게 된 사람들이 역시 현재 제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의 고객이며, 도움과 정보를 주는 사람들입니다(A 마케팅 & 미디어 업체).”

비관련 전공 분야에서 창업한 여성 기업가는 창업업종과 관련된 전공의 대학원을 다니고 있거나 향후 공부하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관련 전공분야에서 창업한 경우는 경영학 분야의 대학원을 진학하였거나, 진학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기업의 경영자에게 비전제시, 인간관계, 기업 내·외부 환경관리 등의 경영능력의 필요성이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상위 계층으로 올라갈수록 기술적(skill) 능력보다는 관계(relationship) 능력과 내외부 환경에 대한 개념적(concept) 능력이 더 많이 요구되는 대기업의 경우와는 달리, 소규모 기업에서는 현장의 기술적 능력을 보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전문인력의 확보가 어렵고 이직율이 높은 것을 감안할 때 경영자는 다방면의 능력(all-rounded player)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나. 창업동기 및 창업유형

1) 창업기회의 인식 및 창업동기

창업자에게 요구되는 능력 중 하나가 창업기회를 인식하고 이를 실현시키는 것이다. 본 연구조사에서는 여성 창업자들에게 창업하게 된 동기를 묻고, 창업기회의 분석과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질문하였다. 본 연구조사에서는 창업 동기를 유인(pull) 요인과 방출(push) 요인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는데, 본 연구조사 대상인 지식기반산업의 여성 창업자들의 창업동기를 살펴보면 <표 IV-5>와 같다.

<표 IV-5> 창업 동기

구 분		빈도	%
방출 요인	차별적 대우 때문에	2	2.2
	소득에 대한 불만	2	2.2
	유동적 스케줄의 선호	1	1.1
	가족걱정	1	1.1
유인 요인	직접 경영·관리하고 싶어서	14	15.6
	자유롭게 활동하고 싶어서	11	12.2
	책임감 있는 나의 일을 위해서	9	10.0
	잠재능력을 발휘하고 싶어서	11	12.2
	사회에서 인정받고 싶어서	7	7.8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	4	4.4
	타인을 좋게 하고 싶어서	5	5.6
	사업위험을 충분히 감수가능	4	4.4
	돈을 더 벌 수 있어서	5	5.6
	사회에 공헌을 하고 싶어서	7	7.8
	보다 나은 사회적 지위 향유	7	7.8
합 계	90	100.0	

* 복수응답항목임.

지식기반산업에서의 여성 창업자들은 방출 요인보다 유인 요인에 의해서 창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접 경영하고 싶어서'가 15.6%로 가장 높았고, '자유롭게 활동하고 싶어서'와 '잠재능력의 발휘'가 각각 12.2%였으며, '책임감 있는 일을 위해서'가 10.0%였고, '사회에서 인정받고 싶어서'와 '사회에 공헌하고 싶어서', '사회적 지위의 상승'으로 인한 동기가 각각 7.8%로 나타났다. 이는 유인 요인의 특성인 독립성과 자아실현, 사회적 인정감 등에 의해 창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동기와 관련하여) 저희 남편은 서니전자에서 10년간 근무를 했었어요. 그래서 전자부품과 관련하여 탁월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었죠. 그러던 중 IMF를 맞게 되면서 인원감축으로 인해 사직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남편의 지식을 바탕으로 창업을하기로 결심하고 개인사업체를 차려 운영했지요. 그러나 자금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부도를 맞게 되었고

이후 어려움에 직면했어요. 남편은 이미 신용불량자로 낙인이 찍혀 취업도 할 수 없었고 다시 사업을 시작한다는 것은 꿈도 꿀 수가 없었죠. 당장 먹고 살아야 하는데 앞이 막막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다가 결국 남편의 경험과 지식을 썩힐 수 없다고 판단했죠. 아는 게 그것밖에 없었으니 다른 쪽은 사실 생각해볼 엄두도 나질 않았어요. 그래서 제 이름(현 여성 CEO)으로 창업을 한 거예요. 물론 저도 사업에 가담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운영은 저의 남편이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죠.”(사례 4 : F 전자부품, 영상 통신장비 제조업체)

그러나 창업기회에 대한 인식을 통한 사업기회의 분석과 평가에 대한 질문에서는 창업 이전의 직장경험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창업하게 된 경우가 많았고, 사업성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는 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신의 전공 또는 직장경험과 무관한 업종에서 창업한 경우에도 사업기회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창업계획에 대한 신중하고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창업동기와 관련하여) 저는 대학교를 다니다가 공부에 대한 흥미도 잃었을 뿐더러 전공이 적성에 맞지 않아 자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하나그룹 컨트리 클럽 골프장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근무한 회사가 서비스업종이다 보니 1년에도 수차례 예절교육과 매너교육을 받았는데, 그때 저의 월급이 40만원 정도인데 반해 한번 강의를 하고 난 후 강사가 받는 월급이 저의 한 달치 월급이었다는 점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심을 했지요. 내가 꼭 저 일 즉, 교육서비스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리라고요. 하지만 단순히 소득에 대한 불만 때문에 창업을 하고자 결심 한건 아닙니다. 소득은 제가 창업하고자 하는 이유에 단지 10분의 1도 안되는 이유였을 뿐이죠. 저는 구속받는 것을 매우 싫어하는 성격입니다. 그리고 제 사업을 직접 내가 경영해 보리라라는 마음을 늘 갖고 있었죠. 창업에 대한 생각은 늘 하고 있었는데 우연하게도 이때 그 사건이 저에게 자극을 주어 결정적으로 창업을 하도록 유도한 것 같습니다.”(Y 교육서비스업체)

2) 창업유형

본 연구조사에서는 창업유형을 기술창업과 기회창업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지식기반 제조업체와 지식기반 서비스업체의 여성창업가들을 대상으로 어떠한 유형의 창업을 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표 IV-5 참조>.

창업유형은 지식기반 제조업과 지식기반 서비스업종이 확연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지식기반 제조업의 경우 전문기술을 토대로 한 기술중심의 기술창업자가 다수인데 반해, 지식기반 서비스업의 경우는 사업경험을 토대로 한 기회창업자가 대부분이다.

이는 제조업의 특성상 기술을 이해하지 못하고 사업을 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사업성에 대한 이해와 사업기회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창업한 경우, 기업이 안정적 성장기반을 마련하는 데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다. 따라서 제조업 분야의 여성 창업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지원이 요구된다.

<표 IV-6> 창업유형

구 분	지식기반 제조업	지식기반서비스업	합계
기술 창업	8 (38.1)	2(9.5)	10(47.6)
기회 창업	1 (4.8)	10 (47.6)	11(52.4)
전체	9 (42.8)	12 (57.1)	21(100.0)

다. 창업 준비과정 및 경영능력

1) 창업 준비과정 및 내용

본 연구조사에서는 여성 창업자들에게 창업 준비과정에 소요된 기간과 창업 준비내용을 질문하였다. 앞서 분석한 결과에서, 지식기반산업에서의 여성 창

업자들이 모두 창업 이전의 직업경력을 가지고 있었고, 따라서 대부분의 여성 창업자들이 특별한 창업 준비과정을 거치지 않고 창업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창업 준비과정에서 가장 소홀히 다루어진 부분은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었다. 특히 자금, 인력 등 사업추진을 위해 적절한 수준의 여유 자원의 정도를 예측하지 않았고, 자금회수가 늦어져서 심각한 어려움을 겪은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창업 초기단계의 기업뿐만 아니라, 성장기 단계이후의 기업들에서도 발생하는 어려움으로 운영 자금과 기술 인력 등 핵심 자원의 확보 및 유지를 위한 방안이 요구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창업자로서의 마음가짐, 즉 기회진단, 혁신성, 위험부담, 변화에 대한 적응성 등의 기업가 정신에 대한 자기평가도 결여되어 있었다.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과 도전정신이 뒷받침 되지 못하는 경우, 기업이 안정적 궤도에 진입하기 전까지의 수많은 난관에서 극복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다. 본 연구조사 대상자들은 창업 후 현재 생존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창업실패 요인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창업성공 요인에 대한 응답결과에서 '기업가 정신'에 대한 부분이 다시 강조되고 있다.

“(창업준비 과정과 관련) 저는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한 뒤 금융회사에 취업을 했어요. 그런데, 업무가 저하고 맞지 않아서 도저히 회사생활을 할 수가 없더라구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유학을 결심하게 되었죠. 대학시절부터 디자인 쪽에 관심이 있어서 나름대로 취미삼아 공부를 조금씩 했었는데, 이를 살펴봐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유학을 가게 되었고 공부를 마친 뒤 디자인 회사에 취업을 해서 근무를 했지요. 그리고 직장생활을 하다보니 창업에 대한 욕심도 생기게 되었구요. 또 우연찮은 기회에 회계·재무쪽에 전공하시는 분이 자금을 지원할테니 같이 창업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을 해서 현재 사업체를 이렇게 운영하고 있지요.”(H 디자인 회사)

그러나 경험과 지식이 사업으로 연결된 경우를 제외한 다른 사례에서는 사업아이템 선정을 위해 시장동향을 검토하거나 창업 시 필요한 인맥 데이터베

이스(DB)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거나 또는 인맥교류활성화 작업을 시행하거나, 사무실 임대와 관련된 입지선정 및 절차조사를 하거나, 창업가로서의 마음가짐을 준비하기 위해 업종과 관련된 지식을 습득하는 등의 창업을 위한 준비 활동을 시행하였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창업에 소요된 기간은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가장 많았고, 창업하는 과정에서 주변 친지의 도움을 가장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 지원기관에 대한 인지도는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구체적인 도움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다고 응답해 이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창업준비 내용과 관련) 저는 어떠한 아이টে็ม으로 사업을 시작할까 하고 고민을 하다가 시각·포장 디자인 쪽으로 창업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디자인 업종과 관련된 지식이 부족하였고 전공과도 관련이 없었기 때문에 우선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학원에 등록하여 포토샵/일러스트 등의 전문 지식을 습득하였으며, 교육강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아이টে็ม을 실현화시키기 위해 시장동향을 살펴보았으며 고객니즈도 조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인력동향 및 창업에 필요한 준비서류 등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준비노력은 창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이 된 것 같습니다.”(S 디자인 회사)

2) 창업관련 능력에 대한 자기평가

창업자의 경영능력을 창업자의 의지 및 자질, 경험과 지식, 업무수행능력, 기타로 구분하여 각 항목에 대해 낮음, 보통, 높음으로 스스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낮음을 1점, 보통을 2점, 높음을 3점으로 환산하여 계산한 결과는 <표 IV-7>과 같다.

<표 IV-7> 창업능력에 대한 자기평가

구 분		N	평균	표준편차
창업자의 의지및자질	모험성	20	2.28	.85
	집념	21	2.80	.51
	리더십	21	2.29	.78
	의지력	21	2.86	.48
	신뢰성	20	2.80	.52
경험과 지식	지식과 경력	16	2.58	.64
	인간관계	21	2.52	.75
업무수행 능력	혁신능력	16	2.81	.32
	적용능력	19	2.47	.84
	경영능력	18	2.22	.81
	자금능력	20	1.80	.83
기타	가정유지 능력	17	2.12	.93
	구성원 통제능력	19	2.68	.67
전 체		21	2.46	.38

주: 낮음 1점, 보통 2점, 높음 3점으로 계산함.

창업자의 자질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조사 대상자들 모두 높다고 평가하였다. 특히 집념, 의지력, 신뢰성이 높다고 평가하였고, 모험성과 리더십 부분은 상대적으로 월등히 낮게 평가하였다.

창업과 관련 분야에서의 지식과 경력에 대한 자기평가 결과는 2.58점으로 보통보다 높은 수준으로 평가하였다. 이는 창업자의 자질보다는 낮은 것이다. 업무수행능력에 대한 평가결과는 다른 혁신능력은 높으나, 적용능력, 경영능력, 자금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점수를 보였다. 특히 자금능력은 모든 항목 중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내고 있어, 여성 창업자들의 자금조달 계획 및 운용능력의 훈련에 대한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타 항목에의 가정유지 능력은 2.12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이고 있는데, 여성기업인의 기업경영과 가정유지의 어려움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외에 구성원 통제능력은 2.68점으로 전체 평균값(2.46점)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전체 평균값보다 낮은 점수를 보인 항목은 모험성, 리더십, 경영능력, 자금

조달 능력, 가정유지 능력으로 나타나, 이와 같은 능력의 배양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다.

라. 창업 당시 및 현재의 애로사항

여성 창업기업의 기업 성장단계별 애로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창립년도를 기준으로 기업연령을 3단계로 구분하였다. 1년~3년을 창업 초기단계, 4년~6년을 성장기 단계, 7년 이상의 기업을 성숙기 단계로 나누었다. 각 단계별로 창업 당시 및 현재의 기업경영상의 애로사항은 <표 IV-8>과 같다.

특이할 만한 점은 각 성장단계별 여성 기업들이 창업 초기에는 모두 성차별적 사회문화로 인한 어려움을 겪었으나, 이러한 어려움은 창업 후 상당히 극복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창업 초기단계에는 사회적 편견과 인식이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기업설립 이후에는 냉정한 시장환경에서 기업경영의 구체적인 문제들과 직면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창업 후 3년 미만의 창업 초기단계의 여성 기업가들은 창업 당시와 현재 모두, 자금조달에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 후 4년에서 6년 정도의 성장단계의 여성 기업가들의 경우, 창업 당시에는 자금조달, 가사노동과 사업병행의 이중노동, 인력 확보 및 관리, 판매처 확보 등의 애로사항을 경험하고 있으며, 현재는 가사와 사업경영의 이중노동은 다소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다른 사항들은 유사한 수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비교적 안정적 사업기반이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는 성숙기 단계의 여성기업들은 외환위기 이전에 창업한 기업들로 최근에 창업한 기업보다는 창업환경이 다소 나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차별적 사회문화나 자금조달에 의한 어려움의 수준이 다른 단계보다 낮게 나타났는데, 현재의 기업경영의 애로사항으로는 자금조달의 문제가 여전히 큰 문제로 나타났다. 그 밖에 사업 아이디어 발굴, 신제품 개발 등의 문제가 지적되었는데, 이는 창업 초기보다 기업이 성장해 감에 따라 더욱 중요한 영향요인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V-8> 창업 당시 및 현재의 애로사항

기업 성장단계		창업시		현재	
		빈도	%	빈도	%
창업 초기 단계	성차별	2	15.4	-	-
	남성위주의 접대문화	3	23.1	-	-
	부정적 사회인식	1	7.7	1	12.5
	인력확보및관리	2	15.4	1	12.5
	자금조달의 어려움	4	30.8	5	62.5
	사업아이디어 발굴	1	7.7	1	12.5
	소 계	13	100.0	8	100.0
성장기 단계	성차별	2	6.9	-	-
	남성위주의 접대문화	3	10.3	1	5.0
	부정적 사회인식	2	6.9	1	5.0
	가사노동/사업병행	4	13.8	1	5.0
	내재적 요인	1	3.4	1	5.0
	인력확보및관리	4	13.8	5	25.0
	판매처 확보	3	10.3	4	20.0
	시설및설비 확보	2	6.9	1	5.0
	정보획득의 어려움	2	6.9	2	10.0
	자금조달의 어려움	6	20.7	4	20.0
	소 계	29	100.0	20	100.0
성숙기 단계	성차별	1	20.0	-	-
	남성위주의 접대문화	1	20.0	-	-
	부정적 사회인식	1	20.0	1	11.0
	가사노동/사업병행	1	20.0	1	11.0
	자금조달의 어려움	1	20.0	2	22.0
	인력확보및관리	-	-	1	11.0
	시설및설비 확보	-	-	1	11.0
	사업아이디어 발굴	-	-	2	22.0
	신제품개발의 어려움	-	-	2	22.0
	소 계	5	100.0	10	100.0

* 복수응답항목임.

마. 창업 성공요인

본 연구조사는 창업 후 생존해 있는 여성기업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대상자인 여성 창업자들에게 '기업이 3년 이상 생존해 있는 경우를 창업성공이라고 할 때, 귀사의 주요한 창업 성공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고 질문하였다.

<표 IV-9> 창업 성공요인

-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업가 정신 2. 창업관련 분야의 지식과 경험 3. 인맥형성 및 활용 4. 고객신뢰와 만족 5. 우수한 사업아이템 6. 인재확보 및 관리 7. 기술력, 품질개선 8. 투명한 경영 및 조직관리 |
|--|

조사대상자인 21명의 여성 창업자들이 응답한 성공요인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8가지를 소개하면 <표 IV-9>와 같다. 가장 중요한 성공요인으로 모든 여성 창업자들이 기업가 정신을 꼽았다. 그러나 경영능력에 대한 자기평가 결과에서 혁신성에 대해서 스스로 높게 평가하고 있으나, 모험성과 자원 획득능력을 낮게 평가한 것을 감안할 때<표 IV-7 참조>, 여성 기업가 정신에 대한 재조명이 필요하다.

또한 관련 분야의 지식과 경험, 인맥, 고객 신뢰, 사업 아이템, 인재확보, 기술력, 투명 경영 등을 창업의 성공요인이라고 응답하였다. 반면에, 창업준비기에 필요한 철저한 창업 준비과정, 자금, 인력 등의 자원획득 능력과 지속적 기술/서비스 개발을 위한 창의성 등에 대해서는 1~2명의 여성 기업가들만 중요하다고 응답하여 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여성 창업자들

이 창업을 준비하는 기간이 짧고 전문적인 컨설팅을 받지 못하는 데서 기인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전 직장에서의 경험과 지식은 내가 창업을 성공할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이 된 것 같다.”(B 화학제품 제조업체)

“창업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아이템과 기술력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아이템만 우수하다고 하여 사업에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아이템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창업가의 인내력, 끈기, 성실성 등이다. 왜냐하면 주위에 창업한 여성 사업가들을 보면 끈기가 없어서 한 이삼년 하다가 더 이상 못 버티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된다.”(S 전자자동제어 회사)

“창업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창업을 하고자 하는 분야에 대한 철저한 사전준비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즉, 시장분석 및 고객수요와 욕구 등을 미리 예측하여야 하며, 자신의 사업모델의 리스크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리스크를 감수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창업을 시작해야 한다.”(R 헤드헌팅 회사)

아래의 <사례>는 교육서비스 업체의 J 창업자의 창업 성공요인을 정리한 것이다. J 창업자는 구체적 목표설정과 철저한 사업준비, 인맥, 고객만족을 위한 노력, 자기개발, 비전 등을 자신이 창업에 성공한 요인으로 꼽고 있다.

(사례) 교육서비스 업체의 J 창업가의 성공요인

- 첫째, 구체적인 목표 설정이 중요
목표가 확실하고 구체적이어야지 창업에 성공할 수 있음.
따라서 장·단기 목표를 세밀히 수립하였음.
- 둘째, 철저한 사업준비성
시장분석 및 고객수요를 조사하여 사업의 성과여부를 판단함.
그리고 창업하고자 하는 분야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 경영학, 광고학, 멀티미디어, 사회과학 등을 꾸준히 공부함.
- 셋째, 같은 업종의 인맥확보
지속적인 인맥확보 및 관리를 위해 정부 및 각종 기관에서 제공
하는 창업지원프로그램 및 강의 등에 참여함. 그리고 커뮤니티를
운영관리하여 인관관계의 폭을 넓힘.
- 넷째, CS(고객만족)을 위해 노력
제공한 교육서비스 강좌에 대한 만족도를 지속적으로 평가하여
이를 반영하였으며, 고객욕구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조사하였음
- 다섯째, 자기개발을 위해 투자를 함
창업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기개발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따라서 대학원에 진학하였으며 창업관련 분야에 대한
공부를 계속 수행하였음. 건강관리도 성공의 열쇠라고 판단하여
건강관리에도 중점을 둠
- 여섯째, 비전
사업의 성공여부는 경영자 혼자만의 몫이 아님. 우수한 인력의
도움이 있어야만 창업에 성공할 수 있음. 따라서 미래를 위한
비전을 확고히 하여 종업원들의 동기부여를 고취시켰음.

3. 소결

본 연구는 여성 전문인력들의 고부가가치 산업에서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정책을 발굴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장에서는 앞 장에서의 여성 창업에 대한 일반 현황을 토대로 여성 전문인력들의 창업활동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지식기반산업에서의 여성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식기반산업에서의 여성 창업활동은 창업업종과 관련된 분야에서의 경력이 관련 전공 즉, 전문지식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해당 분야에서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창업자 자신의 노력이 필요하며, 여성 전문인력들이 자신의 전문분야에서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둘째, 자영업 위주의 생계형 창업이 많은 일반 여성 창업의 특성과는 달리 지식기반산업에서의 여성 창업자들에게는 독립성, 자아실현, 기업가 정신 등과 같은 유인 요인이 사업을 시작하는데 더 큰 영향을 미치는 동기요인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창업업종에서의 전문성과 적극적인 창업동기에도 불구하고, 창업준비기간이 짧고 사업성 평가와 구체적인 자원확보 계획 없이 창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칫 창업실패로 이어지거나 창업 후 안정적 기업성장을 더디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여성창업의 실패를 감소시키고, 안정적 기업 성장단계로의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서 철저한 창업 준비과정을 거쳐서 기업을 설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지식기반산업에서의 여성 창업자들의 창업관련 능력에 대한 자기평가 결과를 보면, 집념, 의지, 신뢰성, 혁신성, 구성원 통제능력 등을 높게 평가하였고, 모험성, 리더십, 경영능력, 자금능력을 낮게 평가하였다. 특히 자금확보 및 관리능력은 월등히 낮은 점수를 보이고 있어, 여성 창업자들 스스로 이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여성 창업자들에게 '기업가

정신(entrepreneurship)을 고취시키고, 기업 경영능력을 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요구된다. 특히 여학생들의 창업활동에 대한 관심과 의욕을 높이기 위한 훈련 프로그램과 창업 실험학습 등의 개발 및 보급은 향후 여성 창업자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기반이 될 것이다.

넷째, 창업 당시의 애로사항과 현재 기업경영상의 애로사항을 기업 성장단계별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는데, 공통적으로 창업 당시에 겪었던 성차별과 남성위주의 접대문화로 인한 어려움은 창업 후에 상당히 극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 후 초기단계와 성장단계, 성숙기 단계의 기업들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어려움은 자금조달의 문제였으며, 기업이 성장할수록 인력확보, 판매처 확보, 사업 아이디어 발굴, 신제품 개발 등의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여성 창업자 또는 기업가에 대한 교육이 창업 준비과정, 창업 후 성장단계별로 차별적으로 전문적인 프로그램이 갖추어져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여성 창업자에게 창업 성공요인에 대해 조사한 결과, 기업경영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기업가 정신'이라고 가장 중요한 성공요인이라고 응답하였다. 그 밖에 창업분야의 지식과 경험, 인맥, 신뢰, 사업 아이템, 인재확보 및 관리, 기술력, 투명 경영 등을 성공요인으로 꼽았다. 여성 창업자들은 자신들에게 부족한 부분이 위험감수성과 리더십이라고 평가한 반면, 창업기업의 성공요인이 '기업가 정신'이라고 응답하여 상반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최근 창업 확산에 있어서 '기업가 정신'의 중요성이 널리 인식되고 있는 것과 발맞추어, '여성 기업가 정신'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국내외 여성 창업지원정책

1. 국내의 창업지원정책	113
2. 해외의 창업지원정책	126
3. 소결	147



1. 국내의 창업지원정책

가. 창업기반구축정책

창업을 통해 창출된 새로운 일자리는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하거나 퇴출당한 뒤에 재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휴여성인력에게 일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로 활용될 수 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여성창업은 미래의 경제성장을 가늠하는데 있어 중요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우선 창업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책으로는 여성창업보육센터의 운영, 여성기업의 판로개척사업 등을 들 수 있다.

일반적으로 창업보육센터(BI: Business Incubator)란 '참신한 아이디어나 기술은 보유하고 있으나 사업화 능력이 미약한 예비창업자나 신규창업자들을 입주시켜 작업공간 제공, 기술지도 및 사업계획구상, 자금지원 등 창업에 관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창업촉진과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 설치되는 기관(이상석·최종호, 2001: 161)'을 지칭한다. 2003년 현재 우리나라의 정부와 대학, 연구소, 민간 등에서 중소기업청으로 지원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 창업보육센터는 291개이다. 그 동안 창업보육센터를 졸업한 기업의 수는 2,849인데, 이중 현재 운영중인 기업의 수는 1,886개, 인수 합병된 기업의 수는 181개, 휴·폐업된 기업의 수는 782개이다. 이처럼 양적으로 창업보육센터의 수는 상당히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창업보육센터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부족과 지원인프라의 부족으로 창업성공률은 72.6%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하고 있는 기업은 제조업이 대부분이며 서비스업의 경우 359개로 전체 입주기업의 8.9%밖에 차지하고 있지 않다.

창업보육센터 중에서 여성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창업보육센터는 중소기업청에서 여성경제인협회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여성창업보육센터가 있

다. 이 곳에서는 창업을 희망하는 여성에게 창업공간을 지원해주고, 공동으로 사무기기를 구입하고 운영하는데 드는 관리비 등을 포함해서 창업초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지원해주고 있다. 아울러 정보화 자료실 및 세미나실, 회의실을 운영하고, 초고속 국가망을 통한 IP부여 및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전문가들을 통한 상담체제를 운영하여 여성창업자들의 창업성공률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다. 현재 서울(중앙), 서울(강북),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 울산, 수원, 춘천, 청주, 창원, 전주, 제주 등 전국에 14개소의 여성창업보육센터에 2004년 6월 기준 135개의 업체가 입주하여 있다. 그러나 다음의 <표 V-1>에서 볼 수 있듯이 여성창업지원센터에 대한 지원예산은 2000년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개별 입주업체에게 돌아가는 수혜액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V-1 > 연도별 여성창업지원센터 운영현황

년 도	예 산	입실수 (매년 12월 기준)	졸업업체	퇴거업체
2000	3,500,000천원	75/84	9	21
2001	2,700,000천원	142/148	18	32
2002	2,400,000천원	158/171	38	39
2003	1,400,000천원	149/171	47	33
2004	1,400,000천원	130/135(6.30기준)	28	18

자료: 여성경제인협회 내부자료.

나. 창업자금지원정책

창업자금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여성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리더십과 자율성 혹은 변화에 대한 대처능력이나 인내성과 같은 성공적인 기업운동을 위해서 필요한 기업가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는 식의 대출담당자들의 차별적 편견 때문에 여성창업인이 자금지원면에서 불이익을 받는

다는 점은 널리 지적되어 왔다(Hisrich & Brusch, 1987; Humphreyers & McClung, 1981).

한편, 여성창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을 때 남성들에 비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기도 하지만 자금대출을 거부당한 뒤의 대처방식은 남성창업주들에 비해서 소극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여성창업주들은 새로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거나 또 다른 자금대출기관을 모색하는데 더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Buttner & Rosen, 1992). 그러나 개인적인 수준에서 적극적으로 자금 확보를 위해서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금융기관에서는 담보가 있어야 용자를 해주는데 현실적으로 창업자금지원을 받기는 쉽지 않은 실정이다. 2004년도에 여성부의 창업자금 지원자의 채권확보별 현황을 보여주는 다음 <표 V-2>에서 볼 수 있듯이 담보대출을 받은 경우는 전체의 51.6%이고, 보증서로 대출을 받은 경우는 46.8%로 나타났다. 이는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준요건을 만족시키지 않는 경우에는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때문에 현실적으로 자기 명의의 부동산과 같은 담보물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 여성들은 자기자본이나 사채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표 V-2> 창업자금지원자의 채권확보별 현황

(단위: 개, 백만원)

채권유형		대출건수		대출금액	
		건수	%	금액	%
담보대출		97	31.5%	5,141	51.6%
신용대출	보증서	205	66.6%	4,664	46.8%
	순수신용	6	1.9%	165	1.7%
합계		308	100	9,970	100%

자료: 여성부 내부자료.

현재 우리나라의 여성창업자금 지원정책은 여성창업자만을 대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직접적인 여성창업지원정책과 일반창업자를 대상으로 자금을 지원하나 창업자금지원시 여성을 우대하는 간접적인 여성창업지원정책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창업자금 시 여성을 우대하는 간접적인 여성 창업지원정책에 대해서 살펴보면, 중소기업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자금 지원정책이 있다. 소상공인센터를 통해서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송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도·소매, 숙박·음식점, 서비스업 등 기타 업종의 경우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소상공업 창업희망자 및 이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을 실시하는 목적은 소액 신용보증공급을 확대함으로써 대적으로 자금 확보력이 약한 소규모 창업자들에 대한 자금지원을 강화하는데 있다. 2003년의 경우 3,792억원이던 소액 신용보증 총액은 2004년도에는 4,000억원으로 확대되었다. 이때 신용보증을 희망하는 지원자들 중에서 상담과 서류를 평가해 평점이 55점 이상인 경우 금융기관에 대출자금을 지원받도록 추천하고 있는데, 창업자금 신청자가 여성일 경우에는 5점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다. 그 외의 다른 여성창업지원시 우대정책으로는 외국인 산업연수생 및 산업기능요원 배정시 가산점 10점을 부여해주거나 단체수의계약의 물량배정시 가산점 2점을 부여해주는 제도가 있다.

그러나 다음 <표 V-3>에서 볼 수 있듯이 여성창업자에게 이러한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을 지라도 중소·벤처기업창업자금을 통해서 지원을 받는 여성 기업인은 전체의 10%를 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표 V-3> 중소·벤처기업창업자금중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비율

(단위: 백만원, %)

구 분	총지원금액		여성기업지원 금액		여성기업지원 비율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2000년	1,032	211,484	85	16,948	8.2%	8.0%
2001년	1,274	260,000	93	17,396	7.3%	6.7%
2002년	1,126	269,999	83	20,056	7.4%	7.4%
2003년	1,447	320,000	143	26,194	9.9%	8.2%
2004년 8월말	712	152,403	62	13,797	8.7%	9.1%

자료: 중소기업청 내부자료.

이에 비해서 소상공인정책자금을 통해서 지원을 받는 여성기업인의 비중은 비교적 높아 2003년의 경우에는 전체기업의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소상공인정책자금을 통해서 지원을 받는 여성기업인은 중소기업자금을 통해서 지원을 받는 여성들에 비해서 비중이 높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특성은 여성창업기업의 특성이 주로 도소매업에 치중되어 있고, 벤처산업부문에서의 여성창업율이 낮은데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V-4> 소상공인 정책자금중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비율

(단위 : 개, 백만원)

구분	남성기업 지원금액		여성기업 지원금액		총지원금액		여성기업지원비율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2000년	6,622	151,104	3,896	88,896	10,518	240,000	37.0%	37.0%
2001년	8,775	230,583	5,538	139,417	14,313	370,000	38.7%	37.7%
2002년	6,388	157,359	3,922	92,641	10,310	250,000	38.0%	37.1%
2003년	8,276	211,545	5,638	138,455	13,914	350,000	41.0%	40.0%

자료: 중소기업청 내부자료.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직접적인 창업지원정책은 중소기업청의 여성가장 생계형창업지원과 여성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여성기술인력 및 여성가장 창업자금지원정책으로 나누어진다. 가족을 부양하는 여성 또는 배우자의 사망 또는 이혼 후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여성가장을 대상으로 하는 저소득층 여성가장창업자금 지원정책이 취약계층의 여성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라면, 여성기술인력창업자금은 국가 기술 또는 자격증을 소지하였거나, 해당분야에서 기능이나 기술을 가진 여성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2004년을 기준으로 여성부의 여성가장창업자금의 경우 예산은 20억원이 배정되어 있으며, 여성기술인력창업자금은 100억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다. 중소기업청에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 위탁해서 실시하고 있는 저소득 여성가장 생계형 창업 지원은 생계형 창업을 희망하는 저소득 여성가장을 대상

으로 저리융자를 제공하는 제도인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구당 월소득이 90만원 이하이면서 재산규모 총액이 4,500만원 이하인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1999년말부터 총 예산 20억원 규모 이하로 지원하여오다가 2004년도에는 여성부의 예산 추가로 30억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중소기업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중소벤처창업자금의 예산규모가 2,700억원이고, 소상공인창업 및 경영자금의 예산규모가 2,500억원임을 감안한다면, 여성창업을 지원하는 자금의 지원금액은 1/20도 안된다는 점에서 그 규모가 매우 작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여성전문인력의 창업활성화를 위한 지원자금 중 중요한 의미를 지닌 중소·벤처기업창업자금 중 여성에게 지원되는 비중이 10%도 되지 않는 실정이므로, 지원금액의 절대규모의 증액이 시급한 실정이다.

<표 V-5> 현행 국내의 여성대상 창업자금지원정책(2004년 1월 현재)

관할부처	사업명	융자 규모	융자대상	자금지원 대상자	융자조건
중소기업청	중소벤처기업 창업자금	2,700 억원	3년 미만의 중소기업	남여공통 (여성에게 가산점 부여)	한도액: 10억원 금리: 5.9% 내외
중소기업청 (소상공인 지원센터)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자금	2,500 억원	소상공업 창업자	남여공통 (여성에게 가산점 부여)	한도액: 5천만원 금리: 5.9%
중소기업청 (한국여성경제 인협회)	저소득층 여성가장 생계형 창업지원	20억원	저소득 여성가장	여성대상	1인당 2,000만원 이내에서 연리 4%로 2년간 융자, 1회에 한하여 2년간 연장가능
여성부	여성가장 창업자금	30억원	저소득 여성가장	여성대상	한도액: 5천만원 금리: 3%
	여성기술 인력 창업자금	100억원	여성전문 기술인력	여성대상	한도액: 1억원 금리: 4.5%
노동부 (근로복지 공단)	실직여성 가장 창업지원	150억원	실직여성가장 미혼여성가장	여성대상	한도액: 1억원 금리: 5.5%

여성부에서 지원하는 창업자금지원 대상의 업종별 현황을 보면, 대부분이 미장원, 음식점, 소규모의 영세 서비스업에 집중되어 있다. 반면에 전문여성 인력의 지식이나 이전의 조직 내 경험을 활용하여 창업할 수 있는 업종인 정보통신부문은 전체 창업자금 지원대상기업의 10.6%, 디자인, 인테리어는 8.6%, 출판, 인쇄, 광고는 7.2%로 비중은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일반적인 여성의 창업과 달리 전문인력의 창업은 새로운 지식기반산업으로 변화해가는 상황에서 경쟁력을 갖춘 아이디어 상품의 개발 및 생산에 주력해야하고 이에 대한 지원도 확대되어야할 것으로 보인다.

<표 V-6> 여성부의 창업자금 지원대상 기업 업종별 현황(*2004년 2월 현재)

(단위: 개)

업종별	자금추천	%	자금대출	%
어린이 놀이방	34	6.8	22	7.5
미장원	134	26.9	71	24.1
음식업	57	11.4	26	8.8
IT(정보통신)	53	10.6	25	8.5
공인중개업	32	6.4	26	8.8
학원업(보습)	10	2.0	9	3.1
디자인, 인테리어 등	43	8.6	22	7.5
예술학원	35	7.0	15	5.1
출판, 인쇄, 광고 등	36	7.2	21	7.1
전문직(약사 등)	11	2.2	4	1.4
기타	54	10.8	54	18.3
계	499	100	295	100

다. 창업교육 및 훈련정책

직접적으로 자금을 지원해주는 정책과 병행해서 여성창업자를 대상으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는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여성가장훈련과 중소기업청에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여성창업강좌 등이 있다.

1) 여성가장훈련(담당부처: 노동부)

노동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여성가장훈련은 취업·창업이 용이한 직종을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훈련비·훈련수당을 지원하고 있는 제도이다.

- 주요 훈련 직종 : 조리, 미용, 꽃집창업, 베이비시터, 텔레마케터 등

- 훈련대상자:

- 이혼, 사별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여성
- 본인과 주민등록등본상 세대를 같이하는 배우자,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로서 60세 이상 또는 18세 미만이거나, 장애·질병·군복무·학교재학 등의 사유로 근로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를 부양하고 있는 여성
- 미혼여성으로 부모가 모두 없거나 부모가 모두 근로능력이 없는 자
- 위 요건을 충족하는 자로서 종전에 여성가장훈련이나 노동부지원 타 훈련을 수강했던 자는 3회까지만 훈련 가능

- 지원내용

- 훈련비 전액 국고지원: 훈련수당 월5~40만원
- 내용: 교통비 5만원, 식비 5만원, 가족수당 1인당 5만원(3인 한도) 및 가계보조금 15만원(본인 외 세대원이 모두 부양가족인 자)

- 훈련기관: 여성성인력개발센터, 학원, 공공훈련기관 등 여성가장훈련이 개설되어 있는 훈련기관

2) 여성창업강좌 (담당부처: 중소기업청)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과 여성창업자의 창업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 여성창업강좌를 시행하고 있다.

- 훈련대상자: 여성 예비창업자와 신규창업자, 그리고 전업희망자
- 훈련내용: 일반창업강좌, 전문창업강좌, 컴퓨터 강좌 등을 통해 창업세미나, 창업요령, 마케팅, 자금조달 방법 등에 대한 강의
- 강의회수: 1999년 5회를 시작으로 총 357회에 걸쳐 강좌를 개최

- 참가대상: 19,000명의 예비·신규 여성창업자

3) 경영·정보화 연수 (담당부처: 중소기업청)

경영·정보화 연수 지원은 급변하는 글로벌시대에 걸맞는 경영능력 함양을 도모하기 위해 여성경제인, 여성기업 임직원, 여성창업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경영연수와 정보화연수로 나누어 실시하고 있다.

- 경영혁신교육, 재무, 회계, 마케팅, 리더십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정보화 연수는 인터넷, 전자상거래, EDI 등을 그 내용으로 하며, 중소기업청의 위탁을 받아 한국여성경제인협회의 각 지회가 직접 실시하거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
- 현재까지 65회의 연수에 총 51,000여명이 참가하여 경영능력 향상 및 정보화 재교육을 받는 등 여성기업임직원 및 여성경제인의 경영능력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여성기업 자금조달 원활화 및 경영개선 지원
- 자금전략 교육(5회) 및 투자마트 개최(10월)를 통한 양질의 자금유치 지원
- 경영혁신을 위한 CEO 경영·정보화 연수실시(22회)

<표 V-7> 여성창업강좌 참여 현황(한국여성경제인협회 주관)

(단위: 천원, 명)

년도	예산	참가자
1999~2000	1,500,000	(162회) 11,967명
2001	600,000	(105회) 4,260명
2002	900,000	(113회) 4,295명
2003	650,000	(109회) 3,760명
2004	650,000	(10회) 321명

자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내부자료.

<표 V-8>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서 개설한 창업강좌의 연도별 참가인원 및 강좌내용

년도	참가자	전문강좌내용
2000	(25회) 572명	파티플래너창업과정, 선물포장창업과정, 외식업창업과정, 음식업창업강좌, 아트플라워창업과정, 전자상거래과정, 아로마테라피스트창업과정, 베이비시터창업과정, 와인샵창업과정, 옷수선집창업과정 핸드페인팅창업과정, 프랜차이즈창업과정, 인터넷쇼핑몰창업과정, TAKE-OUT창업과정, 수입실무와 패션마케팅창업과정, 창업시뮬레이션과정 한지공예창업과정 등.
2001	(25회) 1,511명	
2002	(22회) 1,631명	
2003	(55회) 2,003명	

자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내부자료.

4) 여성창업강좌(담당기관: 여성벤처협회)

여성벤처협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직업훈련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5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표 V-9> 현재 여성벤처협회에 개설된 무료교육과정

과목명	구분	강좌내용
이랜서 기초	교양과목	이랜서란 무엇인지에 대한 기초 개념과 전문 여성으로서의 스킬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왜 나는 일해야 하고—나의 직업비전은 무엇인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등의 방향을 제시하는 과정
창업설계	교양과목	창업 기획 분야에서 활동할 이랜서를 위해 여성창업 경향 유망아이템, 창업접근법, 상권분석, on-off line의 강좌 등 여성창업자들에게 필요한 창업 이론을 실제 현장의 예를 통해 알아 볼 수 있도록 구성한 과정
쇼핑몰 운영자	교양과목	쇼핑몰 운영자로 활동할 이랜서를 위해 전자상거래 현황 및 비전을 살펴보고 쇼핑몰의 아이템 선정 방법 및 관련업체선정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쇼핑목 기획방법 및 프로모션 방법들을 살펴보는 과정
마케팅 홍보	전문과목 (1회 1과목)	마케팅/홍보 분야에서 활동할 이랜서를 위해 마케팅의 개념 및 방법의 변화와 마케팅 기획프로세스를 살펴보며, 기업의 마케팅 비용절감을 위한 고객관리프로그램을 개발과 다양한 프로모션 방법들을 살펴보는 과정

자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내부자료.

<표 V-9> 현재 여성벤처협회에 개설된 무료교육과정(계속)

과목명	구분	강좌내용
CS강사	전문과목	CS강사로 활동할 이랜서를 위해 CS강사의 역할을 살펴보고, CS 강사로서 갖추어야할 자세와 이미지 등을 이론과 실습을 통해 알아 볼 수 있도록 구성된 과정
웹 PD	전문과목	웹 사이트의 개발에서부터 웹 사이트 운영에 이르기까지 웹 PD가 알아야 할 지식과 방법론을 웹 사이트 개발 운영과정에 따라 하나하나 하나 단계별로 살펴볼 수 있도록 구성된 과정
컨텐츠	전문과목	컨텐츠 매니저로 활동할 이랜서를 위한 디지털컨텐츠
매니즈먼트	전문과목	매니즈먼트의 개념을 소개하고, 디지털컨텐츠 매니저가 할 일은 무엇인지, 다양한 컨텐츠 유통방법 등을 살펴보는 과정

자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내부자료.

여성벤처협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직업훈련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5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표 V-10> 여성벤처협회에 개설된 유료 창업강좌

강좌명	수강료 및 강의횟수	대상자	강좌내용
(신)쇼핑몰 창업과정	20강좌 (on-line 강의) 수강료: 20,000원	인터넷을 이용한 서비스/용역예비창업자	소규모 인터넷 쇼핑몰 예비 창업자를 위한 실무교육
라이팅이랜서	11강좌 (on-line 강의) 수강료: 20,000원	글쓰기에 관심이 있고 글쓰기를 직업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여성	실제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잡지 글쓰기의 실문능력 배양
디자인 커뮤니케이션	20강좌 (on-line 강의) 수강료: 20,000원	e-lancer에 관심이 있는 모든 디자이너 웹 사이트 개발자 및 창업희망자	웹 사이트 개발시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디자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의 배양
웹 카피라이팅	20강좌 (on-line 강의) 수강료: 20,000원	e-lancer에 관심이 있는 모든 여성	실제 업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웹카피라이팅 방법과 실전 능력 배양
비즈니스파워 PT	15강좌 (on-line 강의) 수강료: 20,000원	효과적인 메시지 전달 능력을 키우고 싶은 사람	효과적인 메시지 전달 및 커뮤니케이션 중심의 프레젠테이션 능력 개발

자료: 여성벤처협회 내부자료.

<표 V-11> 한국여성단체협의회에서 실시하는 창업교육

·후원: 재정경제부

1차	1 주	인생지도 그리는 법/상권분석 및 입지선정(1)
	2 주	창업자의 조건(I)/상권분석 및 입지선정(2)
	3 주	창업자의 조건(II)/ 프랜차이즈로 창업하기
	4 주	창업 트렌드 분석 /프랜차이즈로 창업하기
2차	1 주	유망업종 판독법(3T)/사업성검토 및 사업계획서 작성(1)
	2 주	여성이 창업해야 하는 이유/사업성검토 및 사업계획서 작성(2)
	3 주	여성창업환경분석/창업지원기관 탐방: 소상공인 지원센터
	4 주	여성창업 성공사례분석/소호창업 및 사례연구
3차	1 주	정보(컨텐츠)로 돈버는 방법(I)/소점포 마케팅 전략(1)
	2 주	정보(컨텐츠)로 돈버는 방법(II)/소점포 마케팅 전략(2)
	3 주	우리나라 유망업종 베스트 10/창업세무
	4 주	해외에서 뜨는 유망업종베스트 10/창업 관련 법률
4차	1 주	외식업창업/창업적성검사
	2 주	사례: BBQ, 해리피아/창업지원기관탐방(2): 한국여성경제인협회,
	3 주	소매업 창업/창업박람회 참관 및 정보수집
	4 주	사례: 손뜨개/창업자금조달방안
5차	1 주	서비스업 창업/점포운영을 위한 리더십과 종업원 관리
	2 주	사례: 한복대여업, 윈더랜드/접객서비스 및 고객관리
	3 주	취미형 창업/소점포 인테리어
	4 주	사례: 토피어리, 패치워크/창업지원제도
6차	1 주	전자상거래 창업/부동산계약실무 및 상가임대차 보호법
	2 주	사례: 투걸즈/창업성공 및 실패사례 연구
	3 주	창업투어(서비스업, 지식사업)/ 창업사업계획 발표회(1)
	4 주	창업투어(외식업, 소매업)/ 창업사업계획 발표회(2)

자료: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내부자료.

<표 V-12> 2004년도 여성기업지원예산(중소기업청)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규모		수행기관
	2003년	2004년	
여성창업활성화			
○ 여성창업보육센터 운영	1,400	1,400	여성경제인협회
○ 여성창업강좌 개설	650	650	여성경제인협회
○ 여성창업경진대회 개최	100	100	여성경제인협회
합계	2,150	2,150	
여성기업 유망업종의 발굴 및 육성			
○ 여성기업패션전용관 운영	400	300	유통센터
○ 패션 및 귀금속 전시회 참가 지원	370	470	여성경제인협회
○ e-lancer 육성 지원	200	300	여성벤처협회
합계	970	1,070	
여성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 여성벤처 투자촉진 지원	100	100	여성벤처협회
○ 경영·정보화 연수 실시	200	200	여성경제인협회
○ 여성기업 우수상품 박람회 개최	300	310	여성경제인협회
○ 국내유망업종 전시회 참가지원	300	260	여성경제인협회
○ 우수 여성기업제품 홍보 지원	300	300	유통센터
○ 해외시장개척단·연수단	150	180	여성경제인협회
○ 여성벤처기업 사례발표	-	50	여성벤처협회
○ 여성기업지원사업 성과평가 용역	-	60	여성경제인협회
○ 여성기업실태조사	130	-	
합계	4,600	4,680	

자료: 중소기업청 내부자료.

라. 여성기업의 판로확대정책

창업은 우리나라에서와 같이 여성의 노동시장참여율이 저조한 상황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게 만드는 중요한 계기로 활용될 수 있다. 하지만 창업 못지않게 중요한 문제는 일단 창업한 뒤 여성기업이 얼마나 성공적으로 시장에서 살아남는가, 다시 말해서 기업의 생존율이 얼마나 되느냐라는 점이다. 실제로 많은 여성 창업가들은 자신들이 생산한 제품의 판매시장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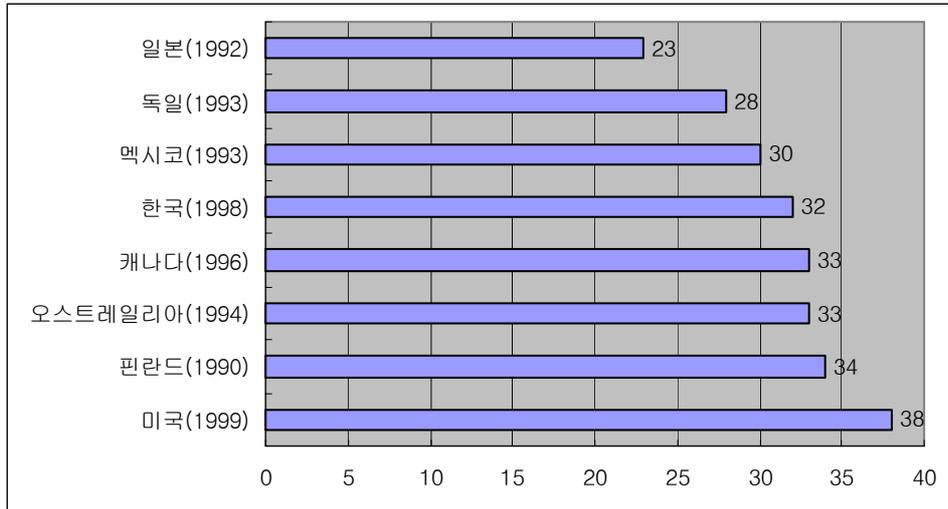
개척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을 경감시켜주기 위해서 공공기관들에 여성창업기업에서 생산된 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공공기관들은 대부분 조달물품을 경쟁입찰을 통하여 조달하고 있으나 신기술제품 구매는 저조한 편이다. 예를 들어 한전과 석유공사 등 19개 공공기관을 표본 조사한 결과 4년간(2000~2003년) 신기술인증제품 구매액은 총 구매액의 0.06%에 불과했다. 현재 여성창업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하게 하는 정책을 2004년부터 33개 기관에 시범 적용하고 있으며, 2005년부터 151개 공공기관 및 지자체(광역시, 기초포함)로 확대 적용하는 동시에 공공구매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하고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에 신기술제품 구매실적을 반영토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투자기관 대상 “구매조건부 기술개발사업”을 확대 실시하고, 국방부·한전 등 4개 기관과 협약을 체결, 26개 품목에 대해 구매조건부 기술개발사업을 시행중(중기청, '04년 40억원)이며, 2008년까지 10개 기관으로 확대할 예정에 있다.

2. 해외의 창업지원정책

가. 해외의 여성기업현황 및 실태

1998년도에 OECD에서 7개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성기업실태조사에 의하면 전체 기업 중, 기업소유주가 여성인 기업의 비중은 미국 38%(1999년 기준), 오스트레일리아 33%(1994년 기준), 캐나다 33%(1996년 기준), 독일 28%(1993년 기준), 일본은 23%(1992년 기준)가 여성소유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 전체 기업 중에서 여성소유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8년 기준으로는 32%로, OECD국가의 평균 25%에 비해서 높은 편이었다.



<그림 V-1> 여성소유기업의 비중

OECD국가들의 여성소유기업의 특성을 보면, 산업별로는 대부분의 여성소유기업은 서비스업에 집중되어 있고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9%에서 23%였다<표 V-13 참조>. 기업규모별 특성을 보면 대부분의 여성기업이 소기업으로 러시아의 경우 전체의 17%, 아르헨티나의 경우 전체의 84%가 종업원수 5인 미만의 소기업이었다. 여성기업의 존속년수는 창업의 성공 여부를 판가름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신생기업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난 국가는 러시아로 여성기업의 74%가 설립된 지 5년 미만이었는데, 이는 시장경제로 이행한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다른 OECD 국가들의 경우를 보면, 캐나다의 경우 45%, 아일랜드의 경우 43%가 설립된 지 5년 미만인 신생기업으로 나타났다. 우리는 이러한 수치를 통해서 상대적으로 여성소유기업의 생존연한이 상대적으로 짧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사대상 국가의 여성기업인의 연령별 특성을 보면, 35-54세의 연령대가 가장 많은 58-72%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국가별로는 미국이나 오스트레일리아의 경우 상대적으로 연령대가 높아서 55세 이상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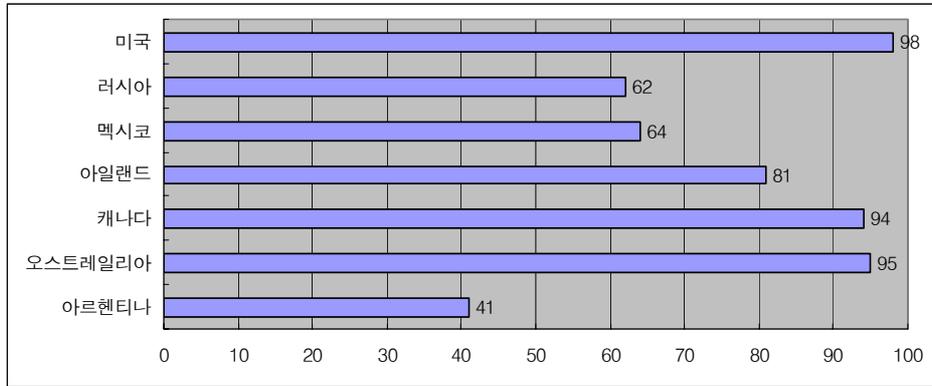
여성기업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22%, 21%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결혼 여부를 보면 조사대상인 7개국의 여성기업인들은 52-79%가 기혼상태였다. 여성기업인의 학력별 특성을 보면 고학력 여성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30-79%의 여성이 대출자임을 알 수 있다<표 V-14 참조>.

<표 V-13> 국가별 여성소유기업의 기업적 특성

	아르헨티나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아일랜드	멕시코	러시아	미국
사례수	300	200	1166	192	301	664	1546
산업							
제조업	9%	19%	10%	12%	19%	23%	9%
도소매업	51%	10%	19%	5%	39%	22%	10%
비즈니스 서비스	8%	26%	18%	34%	13%	8%	32%
기타 서비스 부문	32%	43%	45%	43%	29%	48%	49%
합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종업원수							
0	-	11	31	14	-	5	13
1-4	84	32	36	38	45	12	37
5-9	12	18	1	13	22	18	15
10인 이상	4	34	18	15	34	65	29
합계							
기업존속연수							
5년 미만	39	28	45	43	28	74	31
5-9년	25	23	27	20	27	17	2
10년 이상	36	43	27	29	45	2	41
합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국제무역을 하고 있는 기업의 비중							
%	9%	37%	30%	38%	22%	19%	13%
기술의 사용여부							
컴퓨터 사용비중	41%	95%	94%	81%	64%	62%	98%
인터넷 사용비중	55%*	73%	79%	50%	46%*	-	88%
기업웹사이트개설비중	23%*	34%	34%	35%	25%	-	43%
은행에서대부를 받고 있는 기업의 비중							
	23%	58%	67%	77%	14%	22%	58%

*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의 비중임.

자료: National foundation for Women Business Owners



자료: National foundation for Women Business Owners

<그림 V-2> 국가별 여성기업의 컴퓨터 사용 비중

컴퓨터의 사용비중은 국가별 정보화의 진행 정도와도 연관되는데, 여성기업인 중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는 기업인의 비중은 국가마다 편차를 보였다.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미국의 경우는 여성기업인의 90% 이상이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는 반면에 아르헨티나의 여성기업인은 41%밖에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14> 국가별 여성소유기업의 개인적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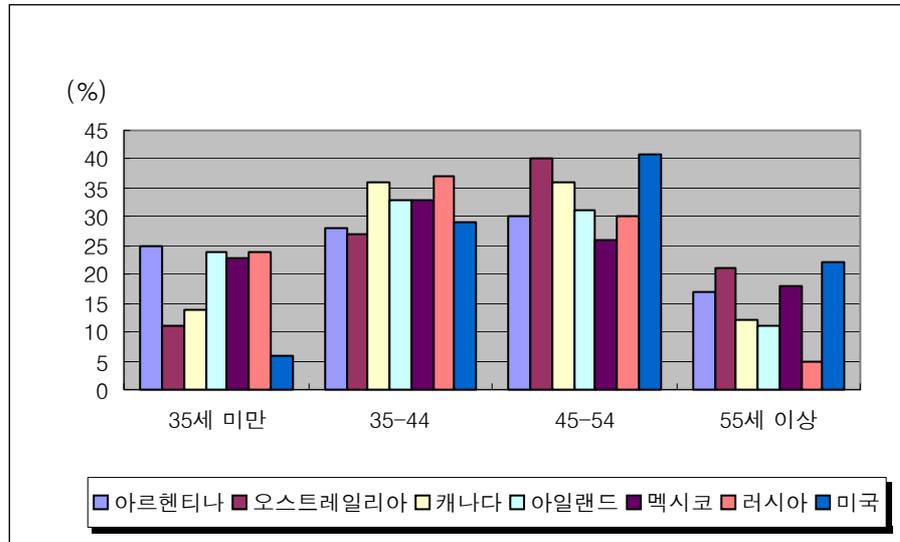
	아르헨티나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아일랜드	멕시코	러시아	미국
사례수	300	200	1166	192	301	664	1546
연령(%)							
35세 미만	25	11	14	24	23	24	6
35-44	28	27	36	33	33	37	29
45-54	30	40	36	31	26	30	41
55세 이상	17	21	12	11	18	5	22
결혼여부(%)							
기혼	61	52	63	62	56	63	67
미혼/비혼	19	14	14	22	24	8	10
이혼/별거	15	20	19	11	13	23	18
사별	6	4	2	3	8	4	4

자료: National foundation for Women Business Owners

<표 V-14> 국가별 여성소유기업의 개인적 특성(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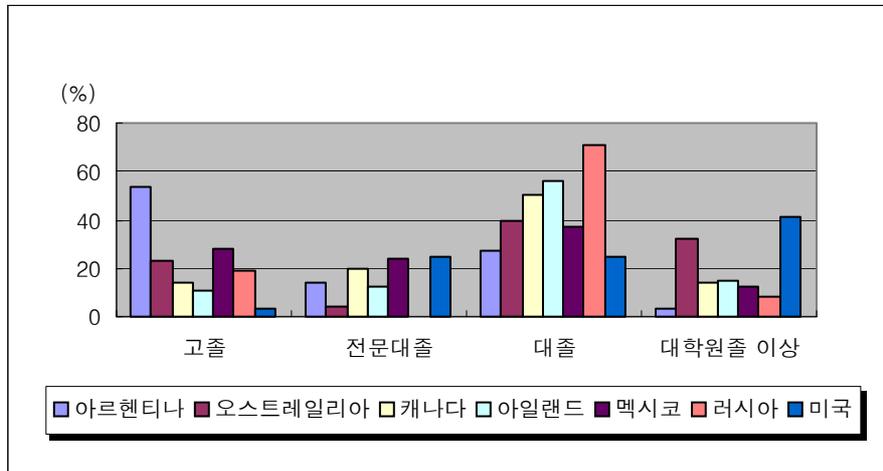
	아르헨티나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아일랜드	멕시코	러시아	미국
사례수	300	200	1166	192	301	664	1546
자녀수							
0	26	23	32	13	10	16	31
1	20	13	15	10	17	42	16
2	22	26	33	23	39	36	31
3명 이상	31	24	21	26	35	6	21
평균자녀수	1.7	1.7	1.5	2.2	2.6	1.3	1.5
교육수준							
고졸	54	23	14	11	28	19	3
전문대졸	14	4	20	12	24	-	25
대졸	27	40	50	56	37	71	25
대학원졸 이상	3	32	14	15	12	8	41

자료: National foundation for Women Business Owners



자료: National foundation for Women Business Owners

<그림 V-3> 국가별 여성기업인의 연령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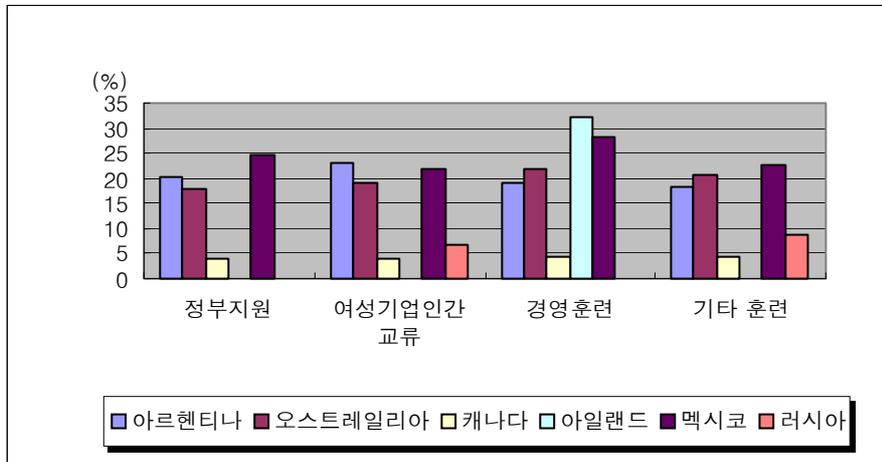
자료: National foundation for Women Business Owners

<그림 V-4> 국가별 여성기업인의 교육수준

여성기업인들에게 필요로 하는 지원프로그램이 무엇인가를 질문하였을 때, 대부분의 국가의 여성기업인들은 기업의 재정 및 마케팅, 경영과 관련된 교육 및 훈련과 정부로부터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하고 있었다.

<표 V-15> 여성소유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원프로그램

국가	아르헨티나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아일랜드	멕시코	러시아	미국
사례수	300	200	1166	192	301	664	1546
정부나 관련단체로부터 도움을 받음	61%	36%	48%	-	74%	-	-
다른 여성기업인과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서 아이디어와 경험의 공유	69%	38%	45%	-	66%	45%	-
기업경영에 관련된 훈련과 교육	57%	44%	50%	62%	85%	-	-
재정, 마케팅 등 다른 문제와 관련된 훈련	55%	41%	52%	-	68%	59%	-



자료: National foundation for Women Business Owners

<그림 V-5> 국가별 여성기업인이 필요로 하고 있는 프로그램

여러 가지 여건에도 불구하고 1970년대부터 10년 주기로 여성소유기업의 성장추세를 보면, 성장률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V-16 참조>. 실제로 OECD국가들의 경우 1970년대에는 소기업과 자영업 부문의 성장률이 전체 고용증가율에 못 미쳤으나, 1990년대 들어와서는 오히려 전체 고용증가율을 넘어서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표 V-16> 여성소유기업의 성장추세(국제비교)

국가	1970-1979	1980-1989	1990-1999
오스트레일리아	24.5	29.6	32.1
오스트리아	-	-	34.3
벨기에	25.0	26.3	27.4
캐나다	25.4	30.8	37.1
체코	-	-	27.3
덴마크	-	-	21.4
핀란드	43.9	46.8	33.0

<표 V-16> 여성소유기업의 성장추세(국제비교-계속)

국가	1970-1979	1980-1989	1990-1999
프랑스	-	36.7	33.5
독일	43.5	32.9	27.2
그리스	32.9	18.1	20.1
헝가리	-	-	31.5
아이슬랜드	-	-	25.4
아일랜드	-	-	15.4
이태리	27.5	22.3	23.7
일본	30.1	31.3	30.0
한국	24.8	27.3	27.9
룩셈부르크	-	-	-
멕시코	-	-	23.9
네덜란드	-	-	30.5
뉴질랜드	14.3	27.6	29.5
노르웨이	16.1	19.1	25.4
폴란드	-	-	38.8
포르투갈	-	-	41.4
스페인	20.4	22.6	26.1
스웨덴	16.8	26.8	25.4
스위스	-	-	30.9
터키	-	7.7	9.3
영국	19.6	23.1	25.0
미국	22.1	29.7	35.2
OECD(평균)	25.8	26.4	28.2

주: All female employers and workers on own account as percentage of all employers and workers of own account

자료: OECD, Labour Force Statistics(2000).

남성소유기업과 여성소유기업의 차이를 보면, 남성소유기업에 비해서 여성소유기업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편이며, 기업의 존속년수가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성별편차는 미국에 비해 아르헨티나와 멕시코가 더 크게 나타나는데 아르헨티나의 경우 여성소유기업 중 5년 미만인 기업이 39%인데 반해서 남성소유기업은 19%에 이른다. 멕시코의 경우 여성소유기업 중 5년 미만인 기업이 28%인데 반해서, 남성소유기업은 17%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치는 미국의 경우, 여성소유기업은 5년 미만인 기업이 13%, 남성소유기업 9%에 비해서 높은 편이다<표 V-17 참조>.

창업이전의 경력 면에서 볼 때, 여성이나 남성 모두 민간부문에서의 직업

경력이 창업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차이점은 남성에 비해서 여성이 중소기업이나 비영리단체에서 일한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남성창업주의 43%, 여성 창업주의 30%가 이전경력이 기업의 소유주이거나 중간관리자였다고 응답하였다.

<표 V-17> 국가별 남성소유기업과 여성소유기업의 개인적 특성의 차이

	아르헨티나		멕시코		미국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사례수	300	302	300	300	650	150
산업						
제조업	9%	11%	19%	36%	16%	21%
도소매업	51%	50%	39%	22%	35%	34%
비즈니스 서비스	8%	20%	13%	15%	10%	8%
기타 서비스	32%	19%	29%	27%	39%	37%
합계	100%	100%	100%	100%	100%	100%
종업원수						
0	-	-	-	-	5%	3%
1-4	84%	72%	45%	22%	27%	30%
5-9	12%	22%	22%	12%	22%	11%
10인 이상	4%	7%	34%	66%	47%	56%
기업존속년수						
5년 미만	39%	19%	28%	17%	13%	9%
5-9년	25%	27%	27%	24%	24%	21%
10년 이상	36%	55%	45%	59%	63%	71%
합계	100%	100%	100%	100%	100%	100%
기업소유주의 연령						
35세 미만	25%	22%	23%	19%	8%	5%
35-44세	28%	17%	33%	27%	23%	23%
45-54세	30%	30%	26%	29%	37%	39%
55세 이상	17%	31%	18%	25%	28%	33%
합계	100%	100%	100%	100%	100%	100%
결혼상태						
기혼	61%	78%	56%	83%	73%	93%
미혼, 비혼	19%	13%	24%	13%	8%	3%
이혼, 별거	15%	8%	13%	3%	12%	4%
사별	6%	2%	8%	1%	7%	1%
합계	100%	100%	100%	100%	100%	100%
교육정도						
고졸 이상	54%	60%	28%	17%	22%	22%
전문대졸	14%	11%	24%	13%	39%	32%
대졸	27%	27%	37%	48%	20%	27%
대학원졸 이상	3%	7%	12%	20%	19%	19%
합계	100%	100%	100%	100%	100%	100%

자료: National foundation for Women Business Owners.

각 국가가 처한 기업외적 환경이나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 기업의 현안문제도 달라진다. 예를 들어서 아르헨티나나 오스트레일리아, 미국의 여성기업인들은 자질 있는 종업원을 선발하고 이직을 방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는 반면에, 멕시코의 여성기업인들은 마피아로부터의 위협이나 협박, 부당한 생산품의 강탈과 같은 불안정한 사회상황에서 오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는 여성기업인의 비중도 캐나다나 아일랜드의 경우는 비교적 낮게 나타난 반면, 아르헨티나나 멕시코, 러시아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표 V-18 참조>.

<표 V-18> 여성기업소유주들이 당면하고 있는 현안문제

	아르헨티나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아일랜드	멕시코	러시아	미국
사례수	300	200	1,166	192	301	664	1,546
주요관심사							
기업의 수익성유지	99%*	92%	97%	96%	97%	77%	93%
원활한 자금흐름	—	87	89	87	—	63	—
자질 있는 종업원의 선발 및 이직의 방지	80%	79%	40%	76%	91%	44%	70%
국가별 현안문제의 차이							
기업성장에 필요한 자본의 확보	84%	32%	44%	50%	77%	68%	36%
하부구조의 발전	71%	32%	23%	—	70%	—	—
부당한 강탈, 마피아, 협박	—	25%	—	—	80%	39%	—
정부의 규제정책	78%	59%	46%	—	77%	81%	27%
정부의 부패	85%	32%	—	—	77%	55%	—
인플레이션	67%	70%	41%	42%	84%	66%	—

주: %는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중임.

자료: National foundation for Women Business Owners.

나. 해외의 여성창업지원정책

1) 창업자금지원정책

미국의 경우 1982년 중소기업혁신개발법(Small Business Innovation Development Act)이 제정되었고, 연방 상무부의 중소기업청(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SBA)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SBA를 통해서 지원 받은 중소기업에서 창출된 일자리 수는 2003년의 경우 266,667개에 달했으며, 대출을 받은 기업의 수는 60,000개에 이르렀다 <표 V-19 참조>.

<표 V-19> SBA의 중소기업 대상 재정지원액 규모

	1999	2000	2001	2002	2003 (목표)	2004 (목표)
창업기업에 대한 대출	13,969	13,552	12,396	13,427	12,000	14,400
기존기업에 대한 대출	29,667	30,196	30,562	38,239	48,000	57,600
전체 대출기업수	43,636	43,748	42,958	51,666	60,000	72,000
대출액	달러 9.5B	달러 9.7B	달러 9.1B	달러 9.4B	달러 9.5B	달러 9.5B
창출된 일자리수	313,322	324,964	305,509	370,000	266,667	323,333
15,000달러이하 대출받은 기업수	26,464	26,227	27,107	33,185	38,538	46,080
보조금(Subsidy) 비용	달러 132,410	달러 113,568	달러 106,756	달러 129,094	달러 85,662	달러 95,162
행정비용(추정)	달러 53,059	달러 47,291	달러 42,039	달러 32,189	달러 32,193	달러 32,199
총비용	달러 185,469	달러 160,859	달러 148,795	달러 161,283	달러 117,855	달러 127,361
각 대출당 소요된 행정비용	달러 1,216	달러 1,081	달러 978	달러 623	달러 536	달러 477
각 대출당 소요된 총 비용	달러 4,250	달러 3,677	달러 3,463	달러 3,121	달러 1,964	달러 1,769

주: 보조금(subsidy)에는 loan guaranty, STAR program, DELTA program이 포함됨.

미국의 중소기업청(SBA)은 여성 경영인들이 미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에 주목하여, 여성들이 경영에 있어 지속적으로 직면하게 되는 독특한 어려움과 장애물에 대한 제도적 방안들을 마련해오고 있다. 현재 SBA산하에 있는 여성기업센터(Women's Business Center: WBC)가 미국 전역에 6개, 주별로 15개의 지부가 있는데, 여성기업발전센터(Women's Business Development Center)에서는 여성창업의 시작에서 창업과정, 재정지원, 시장개척, 마케팅과 관련된 전반적인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액 중 여성소유기업에 지급된 자금액수의 변화 추이를 보여주는 다음의 <표 V-20>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미국의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전체 대출자 중 여성소유기업에 대한 대출자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 이후 지난 10년간 꾸준히 증가해왔다.

<표 V-20> SBA의 중소기업자금지원액 중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액의 비중

연도	SBA의 대출자금 건수	대출자금 총액	여성소유 기업에 지급된 대출자금 건수	여성소유기업에 지급된 대출자금 총액	전체 대출 자금중 여성소유기업 에 대한 대출자금이 차지하는 비중 (건수기준)	전체 대출 자금중 여성소유기업 에 대한 대출자금이 차지하는 비중 (자금액기준)
2000	43,817	10,614,457,568	9,206	1,736,294,000	21.0	16.4
1999	43,683	10,247,473,899	9,470	1,649,496,000	21.7	16.1
1998	42,340	9,118,743,684	10,271	1,574,114,602	24.3	17.3
1997	45,380	9,586,537,920	10,077	1,484,350,033	22.2	15.5
1996	45,991	7,791,660,804	10,740	1,298,095,351	22.8	16.7
1995	55,804	8,336,379,160	13,396	1,457,106,486	24.0	17.5
1994	36,438	8,261,784,143	7,125	1,181,952,084	19.6	14.3
1993	26,754	6,810,279,527	3,799	725,795,075	14.2	10.7
1992	24,211	5,983,393,433	3,279	579,748,303	13.5	9.7
1991	19,467	4,44,589,919	2,422	424,842,360	12.4	9.6
1990	19,128	4,208,064,742	2,530	453,688,033	13.2	10.8

자료: U.S.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Office of Financial Assistance.

중소기업 관련 보조금은 개별 기업의 사업주들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여성기업센터(Women's Business Centers) 등의 민간 비영리 기구를 통해서 지급된다. 이러한 센터들은 여성들의 경영 훈련이나 각종 상담, 그리고 여성 경영인들 및 사업경영을 시작하고자 하는 여성들에 대한 여러 지원들을 제공하는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해서 담당하는 것이 상례이다. 여성기업인들에게 자금지원을 할 경우에 이들 센터들은 공식적인 대출기준에 적합하지 않더라도 중소기업청에서 대출에 대한 보증을 해주는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이때 대출은 중소기업청과 연계되어 있는 은행이나 CDCs(Certified Development Companies)에서 제공한다. <표 V-21>에서 볼 수 있듯이 WBC의 경우 대출이나 담보능력의 보유여부를 기준으로 삼기보다는 자금지원을 요청한 여성이 이전에 조직내의 근무경력을 가지고 있는가, 사회경제적으로 취약계층인가, 기업이 성장잠재력을 지니고 있는가, 재정적인 안정성을 지니고 있는가, 지리적으로 어디에 소재해있는가 등의 다양한 기준에 근거해서 자금지원을 하고 있다.

<표 V-21> WBC의 자금지원시 평가기준

항목	평가기준	배점
지원자의 조직내경험의 유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인 이상의 상근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경우 - 과거 조직에서의 경험과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훈련 및 상담과 기술습득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경우 - 지원자가 장기 혹은 단기 훈련 및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창업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취득한 경우 - 과거 조직내에서의 위치, 근무기간을 명확히 기재한 경우 	20점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혹은 여성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지역별 인구구성 자료를 기초로 일정비율을 문화적, 언어적, 인종적 소수집단에게 할당 - 지원자는 경력자, 영어권의 미국인, 농공업 혹은 가내공업 경영자인지, 도시 혹은 농촌지역 거주자 인지와 장애여부를 명시할 것 	10점

<표 V-21> WBC의 자금지원시 평가기준(계속)

항목	평가기준	배점
지원자가 창업계획서를 제출한 여성기업센터 (Women's Business center)가 소재한 지리적 위치	- 인구수, 인구구성, 여성소유의 중소기업을 지원해야 할 지리적 필요성 때문에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지역이 있음. - 지역별 실업율, 기업활동과 일자리창출을 위한 조치, 빈곤층의 비율 및 인종적 불균형비 고려	10점
기업의 유지와 성장을 위해서 고객을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의 보유여부	- 지원자는 기업확장과 신생기업의 창업시에 필요한 명확한 목표와 측정가능한 목표, 시기별 활동을 기술 - 5개년간의 시행계획 제출 - 계획서속에는 재정, 경영, 법률서비스, 시장조사, 정부와의 조달계약, 대출자금, 인터넷교육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지원자는 계획서의 목적을 달성했는지를 측정할 수 있는 평가안과 방법을 제출해야 함.	30점
SBA와 다른 공동체나 중소기업관련조직과의 협력여부	- 협력시에 WBC에서 요구하는 서비스가 51%이상 되어야 함.	10점
재정적 안정성		20점
지리적 위치	제외지역: Delaware, Florida, Guam	10점

가) 국제기구와 NGO를 통한 창업자금지원정책

빈곤한 여성기업가나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자금을 지원하고 있는 전세계적인 금융 네트워크 중에서 대표적인 기관으로는 Women's World Banking, ACCION, FINCA를 들 수 있다.

① Women's World Banking

1979년에 설립된 세계여성은행(Women's World Banking:WWB)은 저소득층의 여성에 대한 재정지원을 목적으로 세워진 비영리적 금융네트워크이다. 2001년도에 WWB는 20개국에 26개의 지부(affiliate)가 독립된 법인으로 설치되어 있는데, 이들 지부에서는 저소득층의 여성기업가에게 직접적인 재정적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1인당 평균 356달러씩 총 580,000명에게 총 9,200만 달러를 대출해 주었는데, 그 중 77%는 빈곤선 이하의 소득을 가진 여성이었다. 이와 더불어 7개국에 7개의 연합체(associates)가 구성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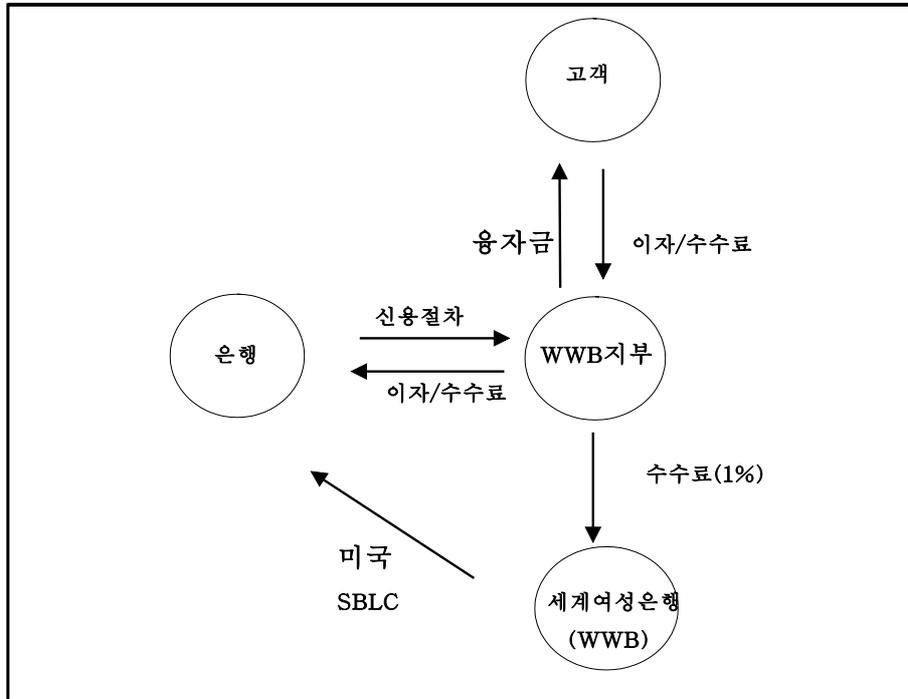
어 있으며, 각 연합체에서는 250만 명에게 평균 308달러씩 총 1억 1500만 달러의 소액대출을 해주었으며, 대출을 받은 여성 중 80%는 절대빈곤선 이하의 소득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WWB의 재정지원을 해주는 파트너(Funding Partner)는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위스, 독일, 영국과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Asian Development Bank, The Ford Foundation, Citigroup Foundation과 Starr Foundation이다. 이들 국가나 단체로부터의 기부금을 토대로 2001년에는 총 3,600만 달러의 전지구적 자본기금(Global Capital Fund)을 조성했다.

* WWB의 소액대출보증제도의 특성

1) 은행은 WWB로부터 신용장을 받아서 WWB산하에 있기는 하지만, 독립된 법인인 지부(affiliate)에서 대부를 해준다. 직접적으로 고객에게 대출해 주지 않고 중간에서 조합을 경유해서 대출해 주는 이유는 대부분의 은행에서는 소액대출제도에 관심을 가지지 않기 때문이다. 조합에서는 고객에 대한 신용평가와 대출추천, 신용대출을 받기 위한 절차의 교육 및 상환과정에 대한 추적과 같은 업무를 담당해 줌으로써 소액대출자에 수반되는 은행의 업무와 비용을 경감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러한 업무를 관할하는 과정에서 조합은 시중은행과 달리 소액대출자를 관리하고 대출금을 상환 받을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게 되었다. 동시에 고객들의 입장에서 보면 소액대출자도 이용가능한 제도로 인식된다.

2) WWB는 통상적으로 신용대출한도액의 50%를 넘지 않는 범위만을 보증해준다. 예를 들어 개별조합에서 WWB로부터 10만 달러의 신용장을 받았다면, 은행으로부터는 그의 2-3배의 금액을 대출 받을 수 있다.

3) 대출금의 미상환에 대한 위험은 은행과 WWB가 처음에 약정한 보상범위 내에서 서로 분담해서 책임진다.



② ACCION

ACCION은 빈곤한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소액의 자금을 대출해주고 훈련을 시켜줌으로서 빈곤층의 경제적인 지위를 상승시키고 개인적인 자부심을 회복시켜주도록 도와주는 기구이다. ACCION는 라틴아메리카, 카리브해 지역, 사하라사막 남부지역의 아프리카에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으며, 1992년에 설립된 이후로 320만 명에게 총 58억 달러의 금액을 대출해주었으며, 이 기간동안 ACCION으로부터 소액대출을 받은 빈민층의 대출자금 상환율은 무려 97%에 달한다. 대출자금은 Latin America Bridge Fund(LABF)와 같은 단체로부터의 후원금과 개인들의 자발적인 기부금으로 충당된다. 개인들이 손쉽게 기부할 수 있도록 온라인이나 메일을 통해서 기부할 수 있게 하고, 기부를 원하는 사람은 50달러, 75달러, 100달러, 250달러, 500달러, 1000달러나 혹은 그 이상의 금액 중에서 선택해서 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표 V-22> 1992년에서 2003년 사이의 ACCION의 Partner Program

ACCION으로부터 도움을 받은 고객의 수	320만 명
총 대부금액	58억 달러
이 기간동안의 대출자금의 상환율	97%

2003년도의 ACCION의 1인당 평균 대출액을 보면, 미국의 경우는 5419달러로 비교적 높은 편이나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경우 평균 554달러, 아프리카 지역은 414달러이며, 최소대출액은 라틴아메리카와 아프리카지역은 100달러, 미국은 500달러이다. 생계가 어려운 빈민층들은 이러한 소액대출을 창업자금으로 삼아서 재봉틀을 구입하거나 의류나, 식료품, 야채 등과 같은 판매품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원자재를 구입하고 이를 기반으로 소규모 자영업을 시작하게 된다. 이러한 소액대출제도의 기본목적은 공식적인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대출을 받을 만한 자격요건이 안되는 빈민층에게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데 있다. 창업초기에는 대출금의 상환이 용이하도록 소액을 대출해 주다가 창업기업이 성장한 뒤에는 대출액을 늘려가는 단계적 대출제도(steped lending)는 대출기관의 입장에서도 상환율을 극대화시키고 위험율을 극소화시킬 수 있다는 이점을 지니고 있다.

ACCION 미국지부의 예를 들면, 가족소득이나 기업의 자산이 5000달러 미만인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대출을 받은 사람의 특성을 보면 86%가 소수민족이며, 75%가 스페인어 사용자이고, 그중에서 여성은 45%를 차지하고 있다.

<표 V-23> 2003년도 ACCION의 지역별 대출현황

	Latin America & the Caribbean	Africa	ACCION USA
연간 총 대출자 수	1,091, 918	75,690	4,355
연간 총 대출액	달러 1.1 billion	달러 54.8 million	달러 19.4 million
1인당 평균 대출액	달러 554	달러 414	달러 5, 491
대출자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	65%		45%

③ FINCA(The Foundation for International Community Assistance)

1984년에 설립된 빈민 구제조적으로 마을은행제도(Village Banking Method)를 도입해서 10-50가구를 집단적으로 지원해서 개인단위가 아니라 공동체 단위의 경제적 자활을 지원하고 있는데, 대출액은 통상적으로 50달러에서 1000달러 사이이며, 대출자금의 상환율은 96%이다. 현재 20개국에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으며, 2002년 현재 대출자수는 227,388명이고, 대출액은 1억3천6백만 달러다. 2005년까지 대출자수를 450,000명으로 증액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나) 개발도상국의 창업지원정책

국가별로 있는 소규모 창업지원기관으로는 방글라데시의 Grameen Bank, 인도네시아의 BRI, 케냐의 K-REF, 멕시코의 NAFIN, 에쿠아도르의 FOPINAR, 도미니카의 ADOPEM, 인도의 SEWA와 FWWB, 미국의 IDBI와 Shore Bank, 일본의 Citizen's Bank가 있다.

① Grameen Bank

1983년에 방글라데시에 설치된 빈민은행인데, 현재는 방글라데시를 넘어서서 44개국에 168개의 지부에서 14,00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2005년까지 5000만 명, 2025년까지는 1억 3천만 명의 빈민을 대상으로 자금을 지원해줄 계획을 지니고 있다. 2002년 현재 362백만 명에게 3억 8000만 달러를 대출해주었다. 1인당 대출총액은 100달러를 넘지 않으나, 1회에 한정되지 않고 지속적인 대출을 해준다. 시골지역의 토지가 없는 소작농과 행상, 직물제조업이나 샴바느질이나 운송서비스업을 하는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대출해주고 있는데, 2002년의 경우 대출을 받은 사람의 94%가 여성이었다. 이처럼 여성위주로 자금대출을 해주는 이유는 소액의 자금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는 빈곤층 중에서도 여성이 가장 취약한 주변집단이기 때문이다. 담보가 될만한 자산이 없으면 자금을 지원해주지 않는 기존의 금융방식과 구분되는 이러한 빈민대상 금융프로그램은 대출기준을 담보를 가지고 있는

냐의 여부가 아니라, 대출을 받는 사람의 자활의지와 능력을 대출기준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금융기제도로 평가될 수 있다. 이러한 자금지원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저소득 -> 낮은 저축율 -> 낮은 투자 -> 저소득'으로 이어지는 빈곤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출을 위한 자금지원은 미국과 EU, World Bank, UN 및 CNN과 기업 등으로부터 받았다. 이러한 독특한 상환방식으로 성공을 거둔 Grameen Bank는 급속도로 규모가 팽창해서 1980년에 15,000명에 불과했던 대출자 수는 2002년에는 2,483,006명으로 증가했다.

<표 V-24> Grameen Bank의 대출자수 및 대출액(2002년 기준)

대출자수	2,483,006(명)
센터의 수	70,928(개소)
마을의 수	41,636
지점의 수	1178
관할구역(area)의 수	123
지역(zones)의 수	15
대출금 총액	15,869(Million Taka)

여기서 주목할만한 것은 대출금을 1주단위로 소액으로 나누어서 1년에 걸쳐서 상환하는 1주 상환방식(Weekly repayment)인데, 이러한 제도로 인해서 대출상환율은 98%이상에 이르고 있다. 2000년부터 Grameen Bank에서 기존의 기본대출(Basic Loan)과 구분되는 유동적 대출(Flexible Loan)방식을 도입하였다. 기존의 Grameen Bank의 대출방식의 기본적 특성은 소액을 지원해주되 대출금을 상환하였을 경우에 1회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이었다. 새로이 도입된 제도에서는 대출을 받은 사람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한 경우에 2년간 지불기간을 유예시켜준다. 그 기간 중 언제라도 대출금을 상환한 경우는 기본대출로 전환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라도 3년간은 대출금이 지급되지만, 그 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상환

하지 못한 경우는 상환의지가 없는 사람으로 분류된다. 2002년의 경우 유동적 대출방식으로 전환된 대출자는 15%였다.

<표 V-25> Grameen Bank의 산업별 대출자수 및 대출액(2002년 기준)

산업별	여성			남성		
	대출자수	대출총액	%	대출자수	대출총액	%
축산 및 수산업	825,720	4,848,468,91	37.0	31,194	232,266,639	31.2
상업	340,343	2,437,429,081	18.3	19,331	140,103,151	18.8
제조업	335,970	2,351,165,447	17.7	26,177	155,313,198	20.9
농림업	248,430	1,785,827,066	13.5	12,619	101,413,580	13.6
소매업	178,505	1,346,272,364	10.1	11,790	84,931,659	11.4
서비스업	49,152	321,238,549	2.5	2,502	17,463,017	2.3
기타	27,424	179,349,426	1.4	1,616	13,202,276	1.8
합계	2,005,544	13,269,750,524	100	109,229	744,693,420	100

2) 창업교육 및 훈련프로그램

가) 선진국의 창업교육 및 훈련프로그램(미국)

미국의 경우는 1977년부터 전국적인 연결망을 갖춘 중소기업청(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SBA)을 설립하였으며, 현재는 전국적으로 약 800여개의 지부가 존재한다. 이 중소기업청 산하에 있는 여성기업인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여성기업인센터(Women's Business Centers, WBCs)는 1979년에 설립되어서 여성창업의 시작에서 창업과정, 재정지원, 시장개척, 마케팅과 관련된 전반적인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창업지원 프로그램은 단계별로 세분화되어 있으며, 1년에 걸쳐서 체계적으로 계획되어 있다. 현재 21주에 걸친 21강좌 프로그램 개설되어 있으며, 강좌는 성공한 여성기업인이나 전문가에 의해서 운영된다. 창업희망자에게 실패를 극소화하고 성공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다.

<표 V-26> WBCs에 개설된 창업지원 프로그램

프로그램	내 용
The Business Council (여성기업인 연합회)	5년 동안 전일제로 일해 왔으며 연간 수입이 20만 달러 이상인 여성들로 구성된 저녁 모임.
The Round Table (원탁회의)	연간 총수입이 100만 달러 이상인 성공한 여성관리자에 대한 1년간의 후원 프로그램으로 월 1회의 저녁 모임에서 해당주제를 중심으로 토론.
Online Advantage Series	인터넷 마케팅과 경영훈련
Introduction to Business Ownership	기업경영자로서의 기술과 관심의 잠재력 개발
Marketing: Getting Results	판매력 강화
Grow Business Series	기업성장전략(전략계획, 리더십 개발, 기업관련법, 마케팅, 사무관련 기술, 재정관리, 자금조달)
Up and Running	21주의 프로그램을 년 4회에 걸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으로서 으로서 기업소유자에 대한 기본교육 실시(기업계획, 마케팅, 법률, 회계, 금융관계, 효율적인 네트워킹 구축)
The Bottom Line	중소기업경영자를 위한 재정 경영전략
Federal Government Procurement Series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계약법, 판매전략 등

아울러 SBA에서는 ON-line상으로 중소기업을 시작하거나 육성하는 데 관심있는 여성 경영인들을 위한 정보 자원을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Online Women's Business Center를 운영하고³⁰⁾ 있는데, 100여 개국의 여성들이 이를 이용하고 있으며, 한 달간 이용자수는 2000년의 200만 명에서 2003년에는 500만 명으로 증가했다(SBA, 2003: 59).

3) 여성기업인의 판로확대정책

많은 여성기업들의 존속기간이 짧은 이유는 생산한 상품을 판매할 수 있

30) SBA에서 개설된 Online Women's Business Center의 지원내역

- 창업계획 및 구상시 창업업종, 위치선정에 대한 상담.
- 창업에 필요한 자금조달방법 안내
- 창업과 관련된 법률과 조세제도에 대한 정보제공
- 소기업경영전략 및 자금관리
- 창업시 대출받은 부채의 효율적인 상환방법
- 마케팅전략(시장분석, 판매전략, 판매촉진, 고객서비스)
- 재정관리 및 분석
- 소기업의 확대 및 성장전략에 대한 정보제공

는 적절한 시장을 확보하지 못한데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미국 정부는 정부와의 조달계약시 중소기업의 생산품, 특히 그 중에서도 여성중소기업에서 생산된 물품을 일정량 구매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중에서 여성소유기업이 생산한 상품에 대한 정부의 조달계약 비중은 5% 전후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V-27> 중소기업에 대한 미국정부의 조달계약 프로그램

	1999	2000	2001	2002	2003 (목표)	2004 (목표)
중소기업(Small firms) 대상 조달계약총액의 비중	40.4%	39.7%	39.0%	N/A	40.0%	40.0%
Small Disadvantaged Business 대상 조달계약총액의 비중	6.5%	6.7%	5.95%	N/A	5.0%	5.0%
여성소유기업 대상 조달계약총액의 비중	4.3%	4.7%	4.5%	N/A	5.0%	5.0%
Service Disabled Veterans	N/A	N/A	0.08%	N/A	3.0%	3.0%
프로그램의 추정비용(US달러)	2,165	3,327	4,234	3,961	4,367	4,426

자료: <http://www.sbaonline.sba.gov/financing/special/women.html>

3. 소결

이번 장에서는 국내외의 여성창업에 대한 지원정책을 창업보육센터의 운영 등 창업을 위한 기반구축정책과 창업자금 지원정책 및 창업교육 및 훈련정책으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국내외의 여성창업 지원정책과 해외의 여성창업지원정책을 비교해 볼 때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창업교육 및 훈련프로그램의 경우를 보면, 현재 여성 전문인력은 자신만이 가진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 조직내에서의 경험을 살려서 창업하는 경우보다는 창업이 용이한 일부의 서비스업종에 집중해서 창업하는 경우가 많다. 현재 민간과 정부, 대학 등에서 다원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여성창업

교육프로그램의 경우 홍보가 덜 되어 있어서 인지도도 낮고, 프로그램의 내용도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따라서 여성 전문인력만을 대상으로 하는 전공별로 세분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전담할 수 있는 일원화된 기구를 신설하는 방안을 강구해보아야 한다. 만일 전문여성창업보육센터(가칭)가 신설된다면 여성 전문인력을 위한 정보통신, 모바일 콘텐츠, 문화, 영상산업, 패션, 첨단기술 등과 시스템화 되어 있는 창업시뮬레이션 과정 등의 창업강좌를 개설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여성벤처협회에 개설되어 있는 라이팅이랜서, 웹카피라이팅, 비즈니스파워 PT, 디자인커뮤니케이션과 같은 창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은 이러한 전문여성 창업교육을 위한 하나의 좋은 예시가 될 수 있다.

그 다음 선진국의 경우 On-line상으로 다양한 창업강좌가 개설되어 있어서 지리적으로 접근이 어렵거나 어린 자녀가 있어서 창업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어려운 여성들도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온라인상의 창업강좌의 개설과 체계적인 운영은 자녀양육기에 경력단절을 경험하는 많은 전문여성인력의 창업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된다. 이번 연구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전문인력 여성의 경우 30대에 창업을 희망하는 사례가 가장 많고, 경력단절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변화해가는 기술이나 시장 환경에 적응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집안에서도 On-line상으로 전문적인 창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어린 자녀를 둔 여성 전문인력의 창업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고 보인다.

아울러 공식적인 창업교육기관을 통한 교육프로그램의 참여못지 않게 많은 여성창업자들은 유사업종이나 다른 업종의 여성창업자들과 정기적인 교류를 통해서 시장 및 상품이나 인력확보에 대한 정보를 교류하고 싶어 하고 있다. 해외에 이미 수많은 있는 여성기업관련 사이트(Women Business-Related Organizations and Sites)가 개설되어 있으므로, 온라인 여성창업지원센터에서 이들 해외 여성창업지원 사이트와 연계시켜줄 수 있다면, 전지구화시대에 발맞추어 해외시장의 변화와 추세를 빠르게 포착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 다음 창업자금지원정책을 살펴보면, 한국은 아시아 국가들 중에서는 지분참여, 대출, 일반투자자, 벤처캐피탈 그리고 기업공개 등을 통한 자금조달 및 지원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기업설립 및 창업활성화에 있어 정부지원금은 21개국의 평균수준에도 못 미쳐 국내 창업 활성화를 위한 직접적 형태의 정부지원금은 크게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박운재·윤현덕·김영수, 2001: 108). 이러한 이유로 창업과정에서 여성기업인들이 직면하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 자금조달(45.3%)의 문제를 들 수 있다. 결국 창업자금의 지원은 여성전문인력의 창업활성화 및 창업된 여성기업의 생존율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전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자금중 여성중소기업인에 대한 대출자금이 16%에 달하고 있는데 반해서 현재 중소기업청의 중소·벤처기업창업자금중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비율은 10%를 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여성창업지원자금의 규모를 확대시켜야 되는데, 정부예산상의 제약을 감안하여볼 때, 다음과 같은 방법을 강구해볼 수 있다. 첫째는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창업자금의 예산 규모를 확대(현재 여성부 130억원, 여경협 20억 리볼빙, 근로복지공단의 실질여성가장 창업지원 등)하는 동시에 기존 자금(중기청 중소벤처창업자금 2,700억원이나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자금 2,500억원)지원제도에 한시적으로라도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 할당제를 실시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그 다음 여성창업자금지원정책과 관련해서 해외사례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첫째, 여성기업인들을 대상으로 한 소액대출자금 상환율이 95%로 매우 높으므로(OECD, 2000), 여성들의 경우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되는 신용보증서나 담보물을 갖고 있지 않아도 창업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된 해외정책의 예로서 여성에 대한 신용대출기준을 담보능력에 두지 않고, 창업지원자의 조직내 경험이나 창업계획서를 통해서 평가한 기업의 성장가능성을 보는 미국의 WBC를 들 수 있다. 두 번째 세계여성은행(Women's World Banking, ACCION 등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여성창업

자들이 대출받을 수 있는 대출제도를 위한 비용은 국가에서 전적으로 분담하지 않고, 은행이나 기업과, NGO 단체나 UN과 국제기구 등으로부터 지원받고 아울러 개인들의 기부금을 받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재원을 마련해볼 수 있다.

VI



요약 및 정책제언

1. 요약	153
2. 정책제언	155



1. 요약

본 연구에서는 여성창업과 관련한 연구문헌을 검토하고, 2차 통계자료의 분석을 통하여 여성창업의 전반적 현황을 파악하였다. 여성 전문인력 집단의 창업활동은 심층면접 조사를 통하여 살펴보았으며, 선진국 및 개발도상국의 여성창업 지원정책의 사례들을 점검함으로써 우리나라 시장 환경에 적합한 정책 방안들을 도출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 여성창업 관련 연구는 창업자의 특성과 창업 동기, 창업기업의 경영특성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여성 창업자의 특징은 크게 남성 창업자에 비해 개인적 동기요인에 의한 것이기 보다 상황적 요인, 또는 밀어내는(push) 요인으로 구분되는 양상을 보인다. 즉, 직장생활에서의 한계, 구직의 어려움, 육아와 가사와의 병행의 어려움으로 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창업유형은 숙련된 기술자 중심의 기술창업보다는 폭넓은 경험과 관리능력에 의한 기회창업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여성창업의 애로사항으로 주로 지적된 내용들은 가사와 사업병행으로 인한 이중노동, 자금조달, 인력확보, 남성위주의 접대문화 등이다.

우리나라 여성창업 현황의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창업자의 창업 연령은 30대가 가장 많고, 학력분포는 고졸이 55.1%로 가장 높았으며, 창업전 경력은 가정주부가 가장 많았다.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여성 창업자의 계열별 분포를 보면, 사회계가 25.0%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자연계 15.2%, 교육계 15.1%, 예체능계 11.1%, 인문계 10.5% 순이었다.

창업을 결심하고 실제적으로 창업을 하기까지 소요된 기간은 '6개월'이내가 41.5%, '6개월~1년' 24.7%로 '1년 미만'이 66.2%를 차지했다. 여성 기업인들이 창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느낀 애로점에서 대해서는 '자금 조달'이 전체 응답자의 49.1%로 가장 많았으며 학력별로 고졸의 경우는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느낀 비율이 다른 학력에 비해 높게 나타났고 대졸은 '인력확보'가 어려웠다고

느낀 비율이 다른 학력에 비해 높았다. 학력이 높을수록 '경영에 대한 교육훈련 미비'가 창업 준비시 가장 큰 애로점이었다고 말한 비율이 높아져 고학력 여성들에게 적합한 경영 관련 교육훈련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여성 창업자를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조사 결과, 지식기반산업의 여성 창업자의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 및 경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전문성을 확보한 여성 전문인력의 창업 촉진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여성 창업자의 창업동기 요인은 독립성, 자아실현 등의 유인 요인으로 나타났으나, 이러한 적극적 창업동기와는 다르게 창업준비기간이 짧고 준비과정이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기업의 성장단계별 애로사항을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자금조달의 문제를 안고 있으며, 창업 초기단계의 기업들이 더 심각하게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기업이 성장할수록 인력확보, 판매처, 사업 아이디어, 신제품 개발 등의 어려움에 직면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지식기반산업의 여성 창업자들은 자신의 창업 성공요인으로 '기업가 정신'이 가장 중요한 영향요인이라고 응답하였다. 그 밖에 창업분야의 지식과 경험, 인맥, 신뢰, 사업 아이템, 인재확보 및 관리, 기술력, 투명 경영 등을 성공요인으로 꼽았다.

우리나라 여성 대상의 창업 지원정책은 창업자금지원과 창업기반구축 지원, 창업교육훈련으로 구분할 수 있다. 창업자금지원은 노동부(근로복지공단에 위탁·운영)의 실직여성가장 창업지원, 중소기업청(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 위탁·운영)의 저소득 여성가장 생계형 창업지원, 여성부의 여성기술인력 창업자금지원과 여성가장 창업자금지원이 있다. 창업기반구축 지원정책으로는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산하의 전국 14개소의 여성창업보육센터를 통하여, 작업공간과 공동사무기기를 제공하고 있다. 여성창업강좌는 한국여성경제인협회(일반창업강좌, 전문창업강좌, 컴퓨터 강좌, 창업세미나 등)뿐만 아니라 여성인력개발센터 등 다양한 기관에서 창업관련 강좌를 개설하고 있다.

미국의 여성 창업자금 지원정책의 특징은 자금지원시 담보능력의 보유여부를 기준으로 하기 보다는 자금지원을 요청한 여성의 근무경력을 가지고 있는

가, 사회경제적으로 취약계층인가, 재정적으로 안정성을 지니고 있는가, 지리적으로 어디에 소재해 있는가 등의 다양한 기준에 근거해서 자금지원을 한다는 점이다. 개발도상국의 여성 창업자금 지원제도의 특징은 소액의 자금지원을 유동적 대출방식으로 지원한다는 점이다. 이와 같이 각국은 여성의 창업기회를 확대하고 창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2. 정책제언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여성의 창업지원 정책의 기본 방향과 정책방안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의 창업 지원정책들은 미래형 선도기술 분야의 창업지원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여성들이 창업하는 업종이 전통적으로 여성집중적 산업에 집중되어 있는 것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여성창업에 대한 지원은 저소득층 여성을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여성기술인력에 대한 창업자금지원이 국가 기술자격증을 보유한 미용사, 조리사 등, 단순 업종에서 창업하는 여성들에게 지원되는 비중이 높아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여성창업기반구축 지원정책의 하나인 여성창업보육센터의 경우도 사무실 공간을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여성 전문인력 집단이 새로운 창업기회를 인식하고 체계적으로 창업을 준비하여 성공적으로 기업을 설립·경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여성창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보호정책에 그칠 것이 아니라, 여성 창업기업의 생존력 및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 나가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는 먼저 여성 전문인력의 창업을 촉진시키기 위한 기본적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자 한다.

가. 기본방향

1) 지식집약적 산업에서의 여성 창업자 육성

고부가가치 산업에서의 여성 전문인력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생계형 창업과 소상공인 창업의 지원과는 다른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또한 지식기반산업에서 창업하는 여성 전문인력이라 하더라도, 이공계 인력을 대상으로 한 지식기반 제조업의 창업과 인문사회계, 예체능계를 대상으로 하는 지식기반 서비스업 창업과는 차별적인 지원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정부의 기술혁신형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에서 여성 벤처창업자 비율이 3.1%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여(중소기업청, 2003년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지식기반 제조업 분야에서의 여성창업을 유도하기 위한 우대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 특히 기업경영의 마인드가 부족한 이공계 전공자를 위한 아이디어의 사업화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지원하는 서비스가 요구된다.

또한 제조업과 기술형 벤처기업을 중심으로 한 벤처창업 지원은 여성에게 비교우위가 있는 지식기반서비스업종에서의 여성창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강화될 필요가 있다.

궁극적으로 고부가가치 산업에서 여성창업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예비 창업자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여성들의 창업 마인드가 향상되고, 여성창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제고될 것이다. 또한 창업을 계획하고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창업 인프라를 확충하고, 창업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신기술 창업보육센터의 여성 전용 공간을 확보하고, 기존의 여성창업보육센터의 보육기능을 강화해 나가는 것도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이다.

2) 여성창업의 성공률 제고를 위한 창업자금지원

정부의 여성대상의 창업자금 지원정책을 살펴보면, 중소기업청(한국여성경

제인협회 위탁운영)의 저소득 여성가장 생계형 창업지원과 여성부의 여성가장 창업자금지원, 여성기술인력 창업자금, 노동부(근로복지공단)의 실직여성가장 창업지원이 있다. 그 밖에 여성들을 우대하고 있는 제도는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벤처기업 창업자금, 소상공인의 창업자금 등이 있다. 창업자금의 규모를 보면, 여성대상의 자금 규모는 일반 창업지원의 2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기술집약형 업종에서의 중소기업창업자금 지원대상 중 여성창업자의 비중은 10%를 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밝혀진 바와 같이, 여성 전문인력 집단도 창업과정에서 직면하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 자금조달(45.3%)의 문제인 점을 감안할 때, 여성창업지원자금의 규모의 확대가 무엇보다도 절실한 상황이라고 하겠다. 특히 창업준비과정에서 초기 및 중장기의 자금조달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 창업 준비과정에서 이에 대한 교육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지원자금의 규모 못지않게 중요한 또 하나의 문제는 대출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이다. 현행 정부의 정책자금 지원은 금융기관들의 대출과정에서 담보, 매출실적, 재무구조, 신용 등을 평가하는 신용보증재단을 거치도록 되어있다. 이 과정에서 담보 및 재무구조가 취약한 여성 창업자들은 어떠한 지원혜택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정부계 금융기관을 활용하여 대출자격 요건 완화, 담보부재와 취약한 재무구조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금융기관은 미래 가치를 가진 여성기업을 선별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한 여성기업인 스스로의 노력과 사회적 인식의 제고가 필요하다.

3) 여성창업가의 정보 및 네트워크에 대한 접근성의 증대

여성창업가의 경영기반 확보를 위한 초기운영 자금지원 못지않게 중요한 지원기능이 지속적인 경영컨설팅 지원이다. 여성 기업인이 사업의 확장, 다변화를 비롯하여 사업의 청산과정에 이르기까지 기업경영에서 발생하는 일련의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상대적으로 인력과 정보, 자금에서 열위인 여성 기업인들

에게 경영지원 상담 서비스를 지원해 줄 창구와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또한 정부, 대학, 민간 등에서 다원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여성창업 교육프로그램을 대상별, 전공별로 세분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효율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시간적, 지리적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서 온라인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많은 여성 창업자들이 유사 업종이나 타 업종의 여성기업인들과 시장 및 상품이나 인력확보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경험과 아이디어를 교류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적절한 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여성경제인 단체들이 유기적 연계체제를 구축하여 스스로의 개선과제를 명확히 해 나감과 동시에, 여성 창업기업의 장기적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원정책을 발굴해 나가야 할 것이다.

나. 정책과제

1) 고부가가치 산업에서의 여성 창업자 육성방안

□ 대학, 연구소, 지자체 산하의 기술혁신형 창업보육시설에 여성전용 인큐베이터를 설치하고 지원을 강화한다.

- 전국의 대학, 연구소, 지자체 산하의 신기술 창업보육센터에 여성 창업자의 입주를 확대하기 위한 전용공간 및 지원혜택을 강화한다.

- 신기술 분야의 여성 전문인력들에게 창업기회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고, 해당 분야 여성 예비 창업자의 입주를 촉진하기 위하여 홍보를 강화하도록 한다.

- 기업경영 마인드가 부족한 이공계 여성 예비창업자들에게 사업 아이디어에 대한 실현하기 위한 사업기회를 분석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 여성전용 인큐베이터 시설을 보유한 기관에는 육아·보육시설을 설치하고 24시간 보육, 주말 및 장기출장 등에 대한 특별 보육기능을 지원하도록 한다.

□ 여학생들의 창업 마인드 확산을 위하여 교과과정에 창업관련 내용을 포함시키고, 미래의 여성 기업가 후보인 여학생들의 창업준비 활동을 지원·장려한다.

- 여학생들의 창업에 대한 인식 제고와 미래의 여성 창업자를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정규 교육과정에서의 개입이 필요하다. 교과과정에 창업에 성공한 여성 기업가에 대한 소개, 기업가 정신, 창업과정, 기업경영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키고, 진로지도에 창업 부문을 삽입한다.

- 전국의 권역별 대학소재의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를 활용하여 여대생 대상의 창업강좌를 확충한다. 성공한 여성기업인의 사례담 위주의 창업강좌를 개선하여, 창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화된 창업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시한다.

- 창업관련 전문가들이 여대생 예비 창업자에게 창업준비 과정을 지도하고 상담해 주는 창업 튜터링(Business Start-up tutoring)제도를 마련한다. 여대생 예비 창업자들이 분야별 여성기업인, 창업 전공의 대학교수, 창업관련 경영컨설턴트들과 인터넷, 전화, 또는 직접 면담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여 지원한다.

*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서는 매년 '여성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시상하고 있으며, 여성창업보육센터 우선 입주와 창업시 창업후견인 지정, 경영지도 등의 지원 혜택을 제공하고 있음.

- 지식기반 업종에서의 여대생 예비 창업자 또는 설립 후 1년 이내의 여성 창업자(또는 팀)를 대상으로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우수한 사업계획을 선정하여 5천만원에서 1억까지의 초기창업 자금을 지원한다.

* UC Berkeley 대학에서는 대학생, 연구팀, 기업가 등을 대상으로 매년 'Business Plan Competition'을 개최하여 수상자에게 기술창업자금을 지원하고 있음.

- 여대생 창업경진대회에 참여한 예비 창업자(팀)와 엔젤 투자자를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창업경진대회의 심사위원으로 엔젤 투자자들을 포함시켜 사업성 있는 창업 아이템에 투자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이를 연계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고, 투자조건 상담, 투자 계약 등에 대한 업무를 지원한다.

□ 여성 유망 업종에서의 종합적 보육기능을 지원하는 전문여성 창업보육기관을 신설한다.

- 현재의 창업보육센터가 작업공간의 제공과 초보적인 수준의 교육훈련프로그램 위주로 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전문여성 창업보육센터에서는 21세기 성장산업인 정보통신, 모바일 콘텐츠, 문화, 영상산업, 패션, 첨단기술 분야의 여성 창업자를 중심으로 전문화된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한다.

- 여기에서는 해당 분야 여성 전문인력들과 관련 전공 여대생들을 대상으로 한 창업 시뮬레이션 과정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분야 전문 창업교육 과정을 개설한다.

* 현재 여성벤처협회에 개설되어 있는 라이팅이랜서, 웹카피라이팅, 비즈니스파워 PT, 디자인커뮤니케이션과 같은 창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은 이러한 전문여성 창업교육을 위한 하나의 좋은 예시가 될 수 있음.

- 창업 준비과정의 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한 전문화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강화한다. 창업 전 사업계획서의 구체화 작업과 창업 초기에 자금 조달계획 등을 포함시켜, 창업을 준비하는 전문여성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한다.

- 전문여성 창업보육기관을 졸업한 여성 창업기업가들의 창업성공을 위한 지속적인 사후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전문분야별 커뮤니티를 조직하여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고 이를 지원한다.

□ 지식기반서비스업종에서의 여성 예비 창업자의 보육시설 입주를 확대하고, 여성창업보육센터의 시설 및 보육기능을 확충한다.

- 지식기반서비스업종에서의 여성 예비창업자 비중을 확대하기 위하여, 입주자격 요건을 보완해야 한다. 경력의 유무와 기간이 중요한 현재의 선정기준에서는 여성 예비 창업자들에게 좋은 아이디어를 실현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게 된다. 따라서 전문 심사위원회를 조직하여 사업계획서 및 아이디어 실용화 가능성을 평가하고 입주 선정의 기준으로 활용한다.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산하의 전국 14개의 여성창업보육센터('04년 현재)를 '10년까지 30개로 확대하여 입주업체 수를 늘리는 것과 동시에 적정한 작업공

간을 제공한다. 이는 현재 하나의 사무실을 2개의 업체가 사용하는데 따른 비효율성을 해소하고 적절한 공간을 확보함으로써 효율적 경영체제 구축을 가능하게 지원한다.

- 여성창업자의 기업 생존을 제고를 위한 경영지원 체제를 마련한다. 여성창업보육센터 등에 전문지식을 갖춘 창업 상담사를 배치하여 예비 창업자 및 보육센터를 졸업하는 여성기업인에게 종합적인 상담기능을 제공한다. 구체적으로는 보육센터 졸업 후 준비해야 할 사무실 임대, 사업소재지登記이전, 인력확충에 따른 사회보험과 세무관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상담창구가 마련되어야 한다.

2) 여성 전문인력 대상의 창업자금 지원방안

□ 여성 전문인력 대상의 창업자금 규모를 확대하고, 기존의 창업자금 지원을 지식집약형 산업에서의 여성창업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유도한다.

- 여성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창업자금 지원금의 예산 규모를 확대한다.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여성대상 창업자금의 예산을 대폭 확대하여, 여성 전문인력의 고부가가치 산업에서의 창업기회를 넓힌다.

-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신기술 창업자금 등(중소기업청의 중소벤처창업자금)의 지원대상에서 여성 창업자를 30% 할당하는 제도를 잠정적으로 실시한다. 이러한 우대 제도는 여성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금액이 전체의 30%가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미국의 중소기업청(SBA)을 예로 들면 전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자금중 여성중소기업인에 대한 대출자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16%를 차지하고 있는데 반해서 우리나라의 경우 중소기업청의 중소·벤처창업자금중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비율은 전체의 10%를 넘지 못하고 있음.

- 여성부의 여성기술인력자금의 지원대상에서 지식집약형 업종의 비중을 확대한다. 특히 지식기반서비스업종의 여성 전문인력들의 창업을 촉진할 수 있도록 자격기준을 재검토한다. 즉, 국가 기술자격증 중심의 자격요건을 완화하고, 해당 전문분야의 경력과 사업화 가능성 등의 사업관련 요인에 대한 평가

비중을 확대한다. 또한 중소기업창업자금 및 저소득 생계형 창업지원과 차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식기반 서비스업종의 창업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 정부계 금융기관을 활용하여 지식기반산업의 여성 전문인력 대상의 창업 자금지원의 대출요건을 대폭 완화한다. 이를 위해서는 신용보증재단을 거치지 않고, 담보 부재와 취약한 재무구조의 지원대상자가 믿을만한 거래기업과의 납품실적 및 납품계약 등으로 상환능력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 여성창업 지원기금(가칭)을 조성해서 지식집약형 산업중심으로 여성 창업자에 대한 자금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 여성창업지원기금의 조성을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예산에만 의존하지 말고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 여성창업 지원기금 ((가칭) 여성기업인 100인 펀드)을 조성한다. 이는 매년 창업에 성공한 여성기업가 100인이 기부금을 적립하여, 지식집약형 산업에서의 여성창업 자금을 지원한다.

- 국제기구, 기업, 시민단체, 대학과 재정지원 파트너쉽 관계를 유지해서 기금을 조성한다.

* 세계여성은행(Women's World Banking)의 경우 재정지원파트너로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위스, 독일, 영국과 같은 국가들뿐만 아니라 세계 유수의 금융기관, 포드재단 시티그룹 재단 등으로부터 기부를 받아서 2001년 총 3600만 달러의 기금을 조성했음.

- 개인들의 자발적인 기부금 제도를 활성화하는데, 그를 위해서 소액기부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강구해본다.

* ACCION의 경우 온라인을 통해서 50 달러, 75 달러, 100 달러 등의 소액 기부금을 받는 방식으로 1992년에서 2003년 사이에 총 58억 달러의 자금을 조성하였음.

□ 여성 공동 창업자에 대한 소액 대출제도를 마련하고, 유동적 상환방식을 도입한다.

- 여성 공동 창업자에게 분기별로 일정액을 상환해 나갈 수 있는 소액대출

제도를 도입하는 동시에, 창업한 기업의 성장경과에 따라 수년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본다.

- 여성들이 공동출자한 창업기업에게 각 개인에게 1,000만원 이하의 소액 창업자금을 지원하고, 공동창업자가 연대하여 매달 또는 분기별로 일정액을 상환해 나갈 수 있는 소액대출제도를 도입한다. 여성 예비 창업자들이 연대보증 형식을 취하게 되어 대출기관에서는 담보 확보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여성 공동 창업자들에게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독려하게 되는 장점이 있다.

- 지원대상은 지식기반산업의 3명 이하의 여성 공동 창업자들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의 전국 지회를 통한 저리의 소액(3천만원 이하) 창업자금을 지원받게 된다.

* ACCION에는 소득이나 기업자산규모가 5,000달러 미만인 사람을 대상으로 소액대출을 해주는 소액자금대출제도가 있으며, 이 제도를 통한 대출금의 상환율은 97%에 달하고 있음.

- 창업초기에 1회에 한해서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방식보다는 대출금을 창업기업이 안정화되기까지 3년간에 걸쳐서 대출금의 상환이 원활하고 성장잠재력이 있는 기업에 한하여 지속적으로 자금을 지원을 하는 방안을 강구해볼 수 있다.

- 이러한 창업자금의 확대와 대출 및 상환방식의 변화는 담보 능력이 없고 재무구조가 취약한 여성 창업자들이 건전한 신용공동체를 구성하고, 여성창업의욕을 고취시키는 동시에 창업한 뒤의 여성기업의 생존율을 제고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3) 여성창업가의 정보 및 네트워크 접근성 증대방안

□ 「여성기업 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통하여 여성창업자에 대한 종합 상담 및 전문교육 기능을 제공한다.

- 한국여성경제인협회의 「여성기업 종합지원센터」의 예산과 기능을 설정하고, 센터를 통한 다양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 초기 창업단계의 여성 창업자들과 7년 이상의 기업경험을 가진 여성기업

인들과의 후견인(Mentoring)제도를 지역별로 마련하여 시장 및 기술 관련 정보를 얻고 기업경영의 문제를 상담할 수 있도록 한다.

- 각 분야별(법률, 노무, 세무, 회계, 특허 등) 5명 정도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가칭)여성기업 경영자문단을 조직하여, 창업 후 3년 미만의 여성기업 또는 여성창업보육센터를 졸업하는 여성기업인을 대상으로 홈페이지 또는 전화를 통한 상시적 상담창구를 마련한다.

- 창업 후 3년 미만의 여성기업체에게 조직관리, 시설 및 고객관리 등의 경영문제 해결 및 기업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경영 컨설턴트' 파견제도를 도입한다. 이는 경영전문 컨설팅 회사와 협약 하에, 컨설팅을 신청한 여성기업체에 분기별로 컨설턴트를 파견하고 제반 비용을 지원하도록 한다.

- 현장지향형 One-stop 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창업준비 과정 및 성공적 기업경영의 지원뿐만 아니라 부도(파산), 기업정리(청산과정) 등과 관련된 기업경영의 전과정을 상담하고 지원할 수 있는 종합지원 기능을 강화시킨다.

- 여성 전문인력의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한다. 대학 및 연구소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기업의 성장단계별 자금운용계획 교육프로그램, 재창업 준비프로그램 등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육 콘텐츠를 발굴하고 전공별 세분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를 여성창업 관련기관들에게 보급한다.

□ 온라인 여성창업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창업정보를 제공하고, 국내외 여성기업인 연결망 구축을 지원한다.

- 여성전용 온라인 창업지원센터를 설립하여 분야별 창업정보를 제공하고 여성기업인 커뮤니티 개설을 통해 네트워크화를 지원한다. 여성 창업자들이 유사 업종이나 타 업종의 시장 및 상품, 인력확보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경험과 아이디어를 교류할 수 있는 온라인 체계를 구축한다.

- 세계화시대에 발맞추어 해외시장의 변화와 추세를 포착할 수 있도록 해외 여성기업인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온라인 여성창업지원센터의 홈페이지에 해외 여성창업 지원기관의 사이트를 연계하고, 해외의 여

성창업 정보 및 소식을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재한다.

* 미국의 SBA에서는 원탁회의(The Round Table)를 통하여 국가가 여성창업자들 사이의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는 정례모임을 주선하거나 소식지를 발간하고 있음.

참 고 문 헌

- 고봉상·용세중·이상천(2003), “벤처기업의 성과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연구”, 「벤처경영연구」, 제 6권, 2호.
- 권명중(2000), “창업중소기업의 생존 및 성장에 관한 연구”, 「중소기업연구」, 22(2).
- 김영옥(1998), 「여성의 창업과 기업경영: 현황과 정책과제」, 한국여성개발원.
- _____(2000), 「정부의 여성경제활동 지원정책 모니터링: 여성창업관련 정책」, 여성특별위원회.
- 김철교(2001), 「벤처기업 창업」, 삼영사.
- 문근찬(2002), 「벤처창업과 기업가 정신」, 도서출판 대응.
- 문숙재·최자경(2001), “여성창업기업의 기업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5(1).
- 박상문·이재희·이달환·배종태(2000), “소상공인 창업성공요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 「벤처경영연구」 3(1): 39-71.
- 박윤재·윤현덕·김영수(2001), “한국의 창업여건과 활성화에 관한 국제비교 연구”, 「중소기업연구」, 23(3).
- 박정기 외(2001), 「창업과 취업전략도」, 도서출판 대명.
- 배병렬·최관신·황윤용(2001), “벤처기업의 성장단계별 성공요인에 관한 연구”, 「논문집」 제 32권, 전북대학 산업경영연구소.
- 빈봉식·박정기(2002), “소상공인 창업의 성공요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 「중소기업연구」, 24(3).
- 성태경(2001). “벤처기업의 창업특성과 기술전파모형에 관한 연구”, 「한국산업경영연구」, 제14집.
- 송광선(2000),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의 특성에 관한 연구”, 「벤처경영연구」, 3(1).
- 양인숙·이소연(2003), 「지식기반산업의 여성 지식근로자의 경력개발」, 한국여성개발원.

- 양현봉(2002), 「중소기업의 구조전환과 정책시사점」, 산업연구원.
- 양현봉·송하율·김홍석(2002), "우리나라 창업보육센터 평가에 관한 연구", 「중소기업연구」, 24(1).
- 이규금·강판국·이철현·조준희(2003), 「중소·벤처기업의 창업과 경영」, 도서출판 대경.
- 이상석(2003), "여성기업의 성장단계별 컨설팅에 관한 연구", 「중소기업연구」, 25(3).
- 전방지(1997), 「중소기업과 여성: 창업과정의 성차」.
- _____(2002), "여성 중소기업의 창업과 경영방식", 「중소기업연구」, 24(2).
- 정성한·김해룡(2001), "소상공인 창업성공요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 「중소기업연구」 4(2).
- 정승화(1999), 「벤처 창업론」, 박영사.
- 조영복·곽선화(2000), "고학력 여성인력과 여성벤처의 육성", 「여성학연구」, 10(1).
- 최영숙(2000), "여성기업의 창업지원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숙명여대정책대학원, 석사논문.
- 통계청(2002), 「2001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전국편)」.
- _____(2003), 「2002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전국편)」.
- 한국여성경제인협회(2003), 「2003 여성기업 실태조사」.
- 한정화·백윤정(2003), "여성벤처기업의 창업동기와 경영특성에 관한 탐색적 연구", 「중소기업연구」 25(3).
- Behm, A., L. Bennington & J. Cummane(2000), "A value-creating model for effective policy service." *The Journal of Management Development* 19(3/4): 162-178.
- Bush, G. W.(2004), "Remarks to the Women's Entrepreneurship in the 21st Century Forum in Cleveland, Ohio." *Weekly Compilation of Presidential Documents* 40(11).

- Buttner, E. H. & B. Rosen(1992), "Rejection in the Roan Application Process: Male And Female Entrepreneurs's Perceptions and Subsequent Intentions."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30(1).
- Buttner, E. H.(2001), "Examining Female Entrepreneur's Management Style: An Application of a Relational Frame." *Journal of Business Ethics* 29(3): 253-269.
- Carter, S.(2000), "Improving the Numbers and Performance of Women-owned Business: Some Implications for Training and Advisory Service." *Education & Training* 42(4/5): 326-333.
- Cook, J.(1998), "Flexible Employment: Implications for Gender and Citizenship in the European Union." *New Political Economy* 3(2): 261-277.
- Cromie, S.(1987), "Motivations of aspiring male and female entrepreneurs." *Journal of Occupational Behavior* 8(3): 251-261.
- Dana, L. P.(1999), "Small Business as a Supplement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PRC)."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37(3): 76-82.
- _____(1997), "A Contrast of Argentina and Uruguay: The Effects of Government Policy on Entrepreneurship."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35(2): 99-104.
- Devins, D. & S. Johnson(2002), "Engaging SME managers and employers in training: Lessons from an evaluation of the ESF Objective 4 Programme in Great Britain." *Education & Training* 44: 370-377.
- Early Business Revival Study Group(2003), *Early Business Revival Study Group Report*.
- Eshima, Y.(2003), "Impact of Public Policy on Innovative SMFs in Japan."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41(1): 85-93.
- Finnegan, G.(2000), "Developing the Knowledge Base on Women

Entrepreneurs: Current work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n Women's Entrepreneurship Development and Gender in Enterprise." *NFWBO Paper*.

Helene, L. G. & G. Jacques(1990), "Are Women Owner-Managers Challenging Our Definitions of Entrepreneurship? An In-Depth Survey." *Journal of Business Ethics* 9(4): 423-433.

Hughes, K. D.(2003), "Pushed or Pulled? Women's Entry into Self-Employment and Small Business Ownership." *Gender, Work and Organization* 10(4): 433-454.

Kalleberg, A. L. & K. T. Leicht(1991), "Gender and Organizational Performance: Determinants of Small Business Survival and Success."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34(1): 136-161.

Kolvereid, L.; S. Shane; P. Weathead(1993), "Is it Equally Difficult for Female Entrepreneurs to Start business in All Countries?"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31(4): 42-51.

Lee, Sang Suk & J. S. Osteryoung(2001), "A Comparison of Determinants for Business Start-Up in the U.S. and Korea."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39(2): 193-200.

Lerner, M. & T. Almor(2002), "Relationships among Strategic Capabilities and the Performance of Women-Owned Small Ventures."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40(2): 109-125.

Lussier, R. N. & S. Pfeifer(2001), "A Crossnational Prediction Model for Business Success."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39(3): 228-230.

MacDonald, S. & I. Hardill(1999), "Targeted Small firms Policies: The Case of Affirmative Action in the US." *Regional Studies* 33: 576-580.

Maysami, R. C. & V. P. Goby(1999), "Female Business Owners in Singapore and Elsewhere: A Review of Studies." *Journal of Small Business*

- Management* 37(2): 96-105.
- Mead, D. C.(1991), "Review Article: Small Enterprises and Development." *Economic Development and Cultural Change* 39(2): 409-420.
- Nelton, S.(1992), "Women in Business: Showing Their Staying Power." *Nation's Business* 80(5): 65-70.
- Nielsen, P. B.(2000), "Statistics on Start-up and Survival of Women Entrepreneurs: Danish Experience." The 2nd OECD Conference.
- OECD(2000), "The Partial Renaissance of Self-Employment," *OECD Employment Outlook* 155-199.
- Orhan, M.(2001), "Women business Owners in France: the Issue of financing Discrimination."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39(1): 95-102.
- Parker, R.(2002), "Coordination and Competition in Small Business Policy: A Comparative of Australia and Denmark." *Journal of Economic Issues* 36(4): 935-952.
- Vincent, V. C.(1996), "Decision-Making Politics Among Mexican-American Small Business Entrepreneurs."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34(4): 1-13.
- Weeks. J. R.(2000), "The Face of Women Entrepreneurs: What We Know Today." The 2nd OECD Conference on Women Entrepreneurs in SMEs: Realising the Benefits of Globalisation and the Knowledge-based Economy.
- Zapalska, A.(1997), "A Profile of Women Entrepreneurs and Enterprises in Poland."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35(4): 76-82.



부 록

<부록 1> 여성 전문인력의 창업활동 심층면접지	175
<부록 2> 해외 여성창업지원기관	184
<부표 1> 남녀사업체의 종사상 지위 및 산업별 분포	187
<부표 2> 남녀사업체의 규모 및 산업별 분포	188
<부표 3> 남녀사업체의 지역 및 산업별 분포	189



<부록 1> 여성 전문인력의 창업활동 심층면접 설문지

조사일시	2004년 월 일	회사명	
면접시간	: ~ :	업종	
조사자		전화번호	

여성 전문인력의 창업활동 심층면접지

연구기관: 한국여성개발원 노동·통계연구부

연구자: 양인숙 연구위원 (02-3156-7134 / insyang@kwdi.re.kr)

장미혜 연구위원 (02-3156-7133 / mhchang@kwdi.re.kr)

김난주 연구원 (02-3156-7136 / string@kwdi.re.kr)

8. 창업준비기간 동안에 무엇을 준비하셨는지(창업준비내용)?

()

9. 대표(이사)님의 창업동기는 무엇입니까(복수응답가능)?

push 요인	이전 직장에 대한 불만	차별적 대우때문에	
		승진, 경력개발 불리	
		업무가 적성에 맞지 않아서	
	소득	소득에 대한 불만	
	실업	전 직장에서 해고되어서	
	유동적 스케줄의 선호	고정된 근무시간에 맞추기가 어려워서	
pull 요인	독립성	직접 경영 관리하고 싶어서	
		구속없이 자유롭게 활동하고 싶어서	
	자아실현	책임감 있는 나의 일을 위해서	
		잠재능력을 발휘하고 싶어서	
	기업가충동	사회에서 인정받고 싶어서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	
		타인을 좋게 하고 싶어서	
		사업위험을 충분히 감수가능	
	소득	돈을 더 벌 수 있어서	
	사회적 지위와 명예	사회에 공헌을 하고 싶어서	
보다 나은 사회적 지위 향유			
기타			

10. 대표(이사)님의 창업유형은?

	기술창업자	기회창업자
정의	기술중심의 아이템을 가지고 숙련된 전문기술을 토대로 한 기술자중심의 창업	기회중심의 아이템을 가지고 후 넓은 사업경험을 토대로 한 관리자중심의 창업
특징	-교육적, 관리적 경험이 부족한 경우 -기술적인 일 선호 -안락한 삶을 영위함 즉, 일차적인 동기요인을 지님 -위험회피성향을 지님, 변화수용하지 않음	-폭넓은 경험과 고학력의 특징 지님 -미래지향적이고 관리적, 도전적인 성향 가짐 -변화 수용, 혁신추구 -외부자금조달에 적극적 -재무적 이득과 성공적인 조직을 구축하기 위한 기회에 의해 동기유발

11. 대표(이사)님은 자신의 경영능력을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경영능력 구분		문항	낮음	보통	높음
창업자의 의지 및 자질	모험성	모험성이 높다			
		위험감수성이 높다			
	가능성에 대한 집념	성취욕구가 강하며 진취성이 높다			
	리더십	주변사람들에 대한 통솔력이 있다			
	의지력	사업경영 전략적 추진의지가 강하다			
	신뢰성	대내외 신뢰성이 높다			
경험과 지식	창업관련 분야의 지식과 경력	고객, 공급자, 경쟁자, 그리고 관련 산업에 대한 지식의 보유정도가 높다			
		창업자의 동업계 종사경력이 있다			
		현재사업이 전공과 관련성이 높다			
	창업환경을 둘러싸고 있는 인과관계	나는 창업 업종에서 충분한 인맥을 가지고 있다			
업무수행 능력	서비스 및 기술혁신 능력	신제품 개발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제품/기술의 우위성을 점하고 있다			
		제품기술의 특성, 소요생산설비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환경적응 능력	소비자, 경쟁자, 공급자, 제품, 기술, 정부 등 외부환경변화에 대한 대응능력이 높다			
	경영능력	인사·재무, 생산·판매에 대한 관리능력이 있다.			
	자금능력	자금 조달 능력을 지니고 있다			
기타	가정유지 능력	나는 가정과 직장생활에서 양립을 이루고 있다			
	창업멤버의 구성 및 통제능력	나는 대인관계능력이 높다			

12. 귀사의 초기자본금은? ()만원

17. 현재 귀사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컨설팅 지원분야에 V표시해 주십시오.

(복수응답)

① 기업의 진단·지도	경영 및 기술의 진단, 지도, 상담, 자문 및 조사	
	기업 경쟁력 제고와 체질개선	
	기업 애로사항 및 자문, 사업타당성 검토	
② 중소기업 상담	중소기업의 진단, 지도, 상담, 자문	
	경영, 기술관련 교육, 평가	
	정부 창업지원금 사업	
③ 중소기업 금융자문	자금조달 및 운용, 주선, 기업설명회	
	경영애로, 경제법률 및 세무자문	
	자금계획 수립, 투자자문	
④ 경영 · 기술 지원	사업타당성 분석 및 계획수립(ex: 사업타당성 분석, 사업전망, 시장조사, 사업구조조정 등)	
	재무관리(ex: 정책자금 상담, 지방조세 전문가조력, 재무 및 원가분석 등)	
	경영·기술 진단/지도(ex: 판매 및 마케팅 전략 관리, 생산 및 기술관리, 구매, 물류 관리, 전사적 경영혁신 전략수립 및 진단 등)	
	벤처확인 지도 및 자문(연구개발비 또는 특허 매출액관련 벤처증명, 기술 및 경영혁신 능력 진단, 지도, 기술성 및 사업성 평가지도 등)	
	기획, 총무 업무(기업경영전략 수립, 지도, 문서관리 대행, 중·단기 사업계획 수립)	
	인사조직 진단, 지도(인력진단 및 소요판단, 직원충원, 급여 결정 자문, 직무분석 등)	
	세무경리업무(기장관리, 세무관계 자문, 경리업무 등)	

18. 대표(이사)님이 회사를 경영하는데 있어 영향을 주는 환경요인은?

환경요인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다소 그렇다	매우 그렇다
외 부 환 경	소비자의 수요 및 욕구변화를 예측할 수 있다					
	신제품의 도입속도가 빠르다					
	기술변화 속도가 빠르다					
	경쟁자의 전략적 변화가 빈번하다					
	경쟁자 및 공급자 행위변화를 예측할 수 있다.					
	제품 수요를 예측할 수 있다					
내 부 환 경	기술변화 및 정부규제 변화를 예측할 수 있다					
	제품 및 기술의 우위성이 높다					
	자금조달이 용이하다					
	기술 및 생산인력의 풍부롭다					
	물적 및 인적자원의 여유정도가 높다					
	재료 및 부품의 효율성이 높다					

19. 대표(이사)님은 창업에 어느 정도 성공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성공적이다(14번문항) ② 다소 성공적이다(14번문항)
 ③ 보통이다. ④ 별로 성공적이지 못하다(15번문항)
 ⑤ 전혀 성공적이지 못하다(15번문항)

20. 대표(이사)님의 창업성공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21. 창업에 성공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

<부록 2> 해외 여성창업 지원기관(Women Business-Related Organizations and Sites)

- AIDDA - Associazione Imprenditrici e Donne Dirigenti d'Azienda
<http://www.aidda.org>
- Alliance of Business Women International
<http://abwi.org/>
- American Association of University Women
<http://www.aauw.org/>
- American Business Women's Association
<http://www.abwahq.org/>
- Association of Women's Business Centers
<http://www.womensbusinesscenters.org/>
- Business and Professional Women/USA
<http://www.bpwusa.org/>
- Businesswomen's Association
<http://www.bpwusa.org/>
- Canadian Women's Business Network
<http://www.cdnbizwomen.com/>
- Center for International Private Enterprise Women's Initiative
<http://www.cipe.org/>
- CEO Express
<http://www.ceoexpress.com/>
- The Committee of 200
<http://www.c200.org/>
- Deutes Grunderinnen Forum
<http://www.dgfev.de/>
- Digital Women
<http://www.digital-women.com/>
- FCEM - Les Femmes Chefs d'Enterprises Mondiales
<http://www.fcem.org/>
- Independent Means
<http://www.independentmeans.com/>
- Institute for Women's Policy Research
<http://www.iwpr.org/>
- The International Alliance
<http://www.t-i-a.com/>
- National Association of Women Business Owners - NAWBO
<http://www.nawbo.org/>

- National Commission on Entrepreneurship
<http://www.ncoe.org/>
- National Women Business Owners Corporation
<http://www.nwboc.org/>
- National Women's Business Council
<http://www.nwbc.gov/>
- New Jersey Association of Women Business Owners
<http://www.njawbo.org/>
- OECD: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 Development (SME page)
<http://www.oecd.org>
- Online Women's Business Center
<http://www.onlinewbc.gov/>
- Organization of Women in International Trade
<http://www.owit.org/>
- Prowess: Promoting Women's Enterprise Support
<http://www.prowess.org.uk/>
- Seton Hill University's National Education Center for Women in Business
<http://www.e-magnify.com/>
- Springboard - Venture Capital Forums for Women
<http://www.springboardenterprises.org/>
- UNIFEM - United Nations Development Fund for Women
<http://www.unifem.org/>
- United Nations WomenWatch
<http://www.un.org/womenwatch/>
- US Census Bureau: Survey of Minority and Women-Owned Business Enterprises - 1997
<http://www.census.gov/csd/mwb/>
- U.S. Department of Commerce Women in Trade
<http://www.usatrade.gov/>
- U.S.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Office of Women's Business Ownership
<http://www.sbaonline.sba.gov/financing/special/women.html>
- VDU - Verband Deutscher Unternehmerinnen
<http://www.vdu.de/>
- Women Entrepreneurship in the 21st Century
<http://www.women-21.gov/>
- Women Impacting Public Policy
<https://secure.securepages.com/wipp/>
- Women In Technology International
<http://www.witi.com/>
- Women Presidents' Organization

<http://www.womenpresidentsorg.com/>

- Women's Business Enterprise National Council

<http://www.wbenc.org/>

- Womenbiz.gov

<http://www.womenbiz.gov/>

- Womens calendar

<http://www.womenscalendar.org/>

<부표 1> 남녀 사업체의 종사상 지위 및 산업별 분포

(단위 : %, 개)

	여성사업체											
	자영업주		무급가족		상용		임시및일일		무급종사자		전체	
농림어업/광업	4.6	70	2.3	35	69.7	1,056	16.8	254	6.6	100	100.0	1,515
제조업	21.6	47,636	8.3	18,288	57.8	127,493	11.8	25,976	0.5	1,056	100.0	220,449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0.8	3	0.0	0	86.0	338	0.5	2	12.7	50	100.0	393
건설업	7.1	3,168	3.8	1,717	55.7	24,965	32.0	14,349	1.4	625	100.0	44,824
도소매업	49.2	327,898	14.3	95,042	19.7	131,012	5.7	37,959	11.2	74,585	100.0	666,496
숙박 및 음식점업	44.6	431,644	15.3	147,580	24.0	232,244	13.6	131,738	2.5	24,246	100.0	967,452
운수업	20.9	8,196	3.3	1,310	63.1	24,800	6.3	2,477	6.4	2,504	100.0	39,287
통신업	7.3	564	2.1	162	65.5	5,031	11.4	873	13.7	1,053	100.0	7,683
금융 및 보험업	3.8	1,388	0.9	310	28.2	10,292	2.2	787	65.0	23,690	100.0	36,467
부동산업 및 임대업	43.8	24,062	10.6	5,800	33.1	18,186	6.8	3,729	5.7	3,108	100.0	54,885
사업서비스업	12.6	6,800	4.0	2,141	60.8	32,870	18.4	9,929	4.3	2,352	100.0	54,092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0.0	0	0.0	0	83.2	4,951	16.4	977	0.4	23	100.0	5,951
교육 서비스업	22.5	57,736	2.1	5,484	57.6	147,786	8.9	22,886	8.9	22,791	100.0	256,683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13.9	14,174	1.2	1,235	78.6	80,065	4.5	4,574	1.7	1,782	100.0	101,830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산업	49.2	37,902	18.4	14,159	17.0	13,112	14.1	10,896	1.3	1,025	100.0	77,094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53.0	111,746	6.5	13,601	29.1	61,278	6.7	14,158	4.7	9,871	100.0	210,654
전산업	39.1	1,072,987	11.2	306,864	33.3	915,479	10.3	281,564	6.1	168,861	100.0	2,745,755
	남성사업체											
	자영업주		무급가족		상용		임시및일일		무급종사자		합계	
농림어업/광업	2.6	1,409	1.3	673	69.1	36,960	11.3	6,064	15.6	8,346	100.0	53,452
제조업	7.2	227,127	2.0	61,935	84.0	2,665,404	6.7	211,916	0.2	6,034	100.0	3,172,416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0.3	149	0.0	6	96.2	56,631	3.5	2,061	0.1	40	100.0	58,887
건설업	6.4	41,772	1.2	7,539	60.1	394,164	31.1	204,008	1.2	7,955	100.0	655,438
도소매업	25.6	499,004	11.6	226,055	45.7	89,0645	8.2	159,455	8.9	174,078	100.0	1,949,237
숙박 및 음식점업	26.4	201,288	17.4	132,458	34.8	265,287	17.7	134,954	3.8	28,895	100.0	762,882
운수업	34.1	281,137	0.4	3,610	58.7	484,515	4.0	33,022	2.8	22,765	100.0	825,049
통신업	2.0	2,797	0.4	608	85.2	121,889	9.4	13,439	3.0	4,360	100.0	143,093
금융 및 보험업	0.8	4,991	0.1	537	64.6	384,969	3.5	21,045	31.0	184,609	100.0	596,151
부동산업 및 임대업	19.0	58,928	3.5	10,856	68.9	213,203	5.1	15,889	3.5	10,758	100.0	309,634
사업서비스업	5.9	47,467	0.8	6,029	80.4	645,806	10.5	84,219	2.4	19,570	100.0	803,091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0.0	0	0.0	0	90.6	449,014	9.1	44,931	0.3	1,722	100.0	495,667
교육 서비스업	3.9	30,837	0.9	6,816	81.1	643,284	9.6	76,341	4.5	35,948	100.0	793,226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9.6	40,956	0.6	2,371	85.8	366,173	3.5	14,748	0.6	2,549	100.0	426,797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산업	29.4	75,002	7.4	18,864	44.5	113,549	17.3	44,105	1.5	3,712	100.0	255,232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25.5	143,515	7.1	39,797	55.8	313,883	5.1	28,608	6.5	36,512	100.0	562,315
전산업	14.0	1,656,379	4.4	518,154	67.8	8,045,376	9.2	1,094,805	4.6	547,853	100.0	1,1862,567

자료 : 통계청(2003), 『2002 사업체기초통계조사 보고서』, 원자료.

<부표 2> 남녀 사업체의 규모 및 산업별 분포

(단위 : %, 개)

	여성사업체													
	1~4인		5~9인		10~49인		50~99인		100~299인		300인 이상		전체	
농림어업/광업	48.3	86	25.8	46	24.2	43	1.7	3	0.0	0	0.0	0	100.0	178
제조업	79.5	40,780	11.5	5,917	8.4	4,305	0.4	204	0.1	53	0.0	5	100.0	51,264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23.1	3	15.4	2	46.2	6	0.0	0	15.4	2	0.0	0	100.0	13
건설업	51.3	3,049	29.4	1,749	18.3	1,087	0.7	40	0.3	19	0.0	3	100.0	5,947
도소매업	95.9	322,234	2.9	9,672	1.1	3,712	0.1	238	0.0	104	0.0	9	100.0	335,969
숙박 및 음식점업	93.2	402,015	5.8	25,061	0.9	4,057	0.0	37	0.0	5	0.0	3	100.0	431,178
운수업	87.2	8,423	7.3	709	4.4	418	0.4	37	0.7	66	0.0	3	100.0	9,656
통신업	59.6	717	31.0	373	8.4	101	0.5	6	0.5	6	0.1	1	100.0	1,204
금융 및 보험업	54.9	1,789	11.0	359	32.4	1,056	1.4	45	0.2	6	0.0	1	100.0	3,256
부동산업 및 임대업	94.7	24,179	3.4	856	2.0	491	0.0	12	0.0	4	0.0	4	100.0	25,542
사업서비스업	75.9	6,368	14.6	1,224	8.1	674	0.8	68	0.5	45	0.1	13	100.0	8,392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16.9	29	16.3	28	59.3	102	4.1	7	0.6	1	2.9	5	100.0	172
교육 서비스업	82.1	53,391	11.9	7,767	5.1	3,314	0.8	503	0.1	51	0.0	13	100.0	65,039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72.7	14,427	20.2	4,012	6.5	1,298	0.4	83	0.1	24	0.0	11	100.0	19,855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산업	97.0	37,215	2.4	919	0.6	230	0.0	11	0.0	1	0.0	0	100.0	38,376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96.1	116,822	3.1	3,743	0.9	1,037	0.0	16	0.0	4	0.0	1	100.0	121,623
전산업	92.3	1,031,527	5.6	62,437	2.0	21,931	0.1	1,310	0.0	391	0.0	68	100.0	1,117,664
	남성사업체													
	1~4인		5~9인		10~49인		50~99인		100~299인		300인 이상		전체	
농림어업/광업	48.8	1998	18.3	749	28.9	1,182	2.8	115	1.0	39	0.2	8	100.0	4,091
제조업	63.2	178,662	17.0	48,177	16.5	46,739	1.9	5,370	1.0	2,921	0.2	788	100.0	282,657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28.9	426	17.6	259	31.6	466	12.5	184	8.4	123	1.0	15	100.0	1,473
건설업	55.6	40,393	23.0	16,691	19.3	14,012	1.3	957	0.7	476	0.1	106	100.0	72,635
도소매업	87.0	489,628	8.8	49,416	3.9	21,909	0.2	1,152	0.1	627	0.0	173	100.0	562,905
숙박 및 음식점업	83.5	170,696	12.2	24,988	4.0	8,149	0.2	355	0.0	97	0.0	34	100.0	204,319
운수업	94.8	283,254	2.3	6,876	2.1	6,234	0.3	1,017	0.4	1164	0.0	152	100.0	298,697
통신업	44.0	3,037	28.9	1,998	18.4	1,271	4.0	274	3.8	260	1.0	62	100.0	6,902
금융 및 보험업	27.8	9,159	20.8	6,840	47.3	15,562	2.8	922	1.0	313	0.4	145	100.0	32,941
부동산업 및 임대업	82.3	63,158	9.4	7,184	7.8	5,994	0.4	318	0.1	99	0.0	8	100.0	76,761
사업서비스업	56.9	40,508	24.7	17,616	15.0	10,731	1.9	1,322	1.1	800	0.3	272	100.0	71,249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14.3	1,692	16.4	1,948	58.2	6,899	4.0	469	4.0	476	3.1	368	100.0	11,852
교육 서비스업	48.5	23,242	19.6	9,390	22.2	10,681	8.5	4,064	1.0	470	0.3	123	100.0	47,970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65.5	30,246	22.5	10,413	9.9	4,612	1.1	523	0.6	281	0.3	123	100.0	46,198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산업	92.8	73,464	4.2	3,321	2.4	1,867	0.4	291	0.2	170	0.0	22	100.0	79,135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90.6	194,282	6.1	13,006	3.2	6,832	0.1	283	0.0	104	0.0	7	100.0	214,514
전산업	79.6	1,603,845	10.9	218,872	8.1	163,140	0.9	17,616	0.4	8,420	0.1	2,406	100.0	2,014,299

자료 : 통계청(2003), 『2002 사업체기초통계조사 보고서』, 원자료.

<부표 3> 남녀 사업체의 지역 및 산업별 분포
(단위 : %, 개)

여성 사업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충청	전라	경상	강원/제주	전체	
농림어업/광업	3.4	4.5	0.6	1.7	0.0	1.7	0.6	7.9	12.9	36.5	13.5	16.9	100.0	178
제조업	20.5	10.4	6.9	5.8	3.4	2.7	2.0	17.7	6.1	8.1	12.8	3.7	100.0	51,264
전기, 가스및수도사업	38.5	0.0	7.7	7.7	0.0	0.0	7.7	15.4	0.0	7.7	0.0	15.4	100.0	13
건설업	20.0	7.4	4.9	4.7	3.4	2.5	2.3	17.3	7.8	7.9	14.6	7.3	100.0	5,947
도소매업	21.5	9.7	5.4	4.5	3.1	3.0	2.3	15.1	7.0	9.2	13.1	6.0	100.0	335,969
숙박 및 음식점업	18.0	8.8	5.6	4.9	2.8	3.0	2.7	16.6	7.9	8.2	14.9	6.7	100.0	431,178
운수업	23.7	12.6	6.7	7.7	3.8	2.8	2.1	14.6	4.9	7.0	9.6	4.5	100.0	9,656
통신업	24.9	7.5	3.2	3.3	3.0	3.9	2.2	15.0	8.2	10.1	13.3	5.4	100.0	1,204
금융 및 보험업	23.7	11.9	4.8	4.9	3.4	3.1	2.4	17.5	6.4	7.4	10.3	4.1	100.0	3,256
부동산업 및 임대업	27.4	7.7	4.5	7.6	2.5	3.7	1.6	26.1	4.2	4.6	6.9	3.2	100.0	25,542
사업서비스업	38.6	8.3	4.9	3.7	3.7	3.7	1.9	14.2	5.0	4.6	7.8	3.5	100.0	8,392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10.5	8.1	1.7	5.2	2.9	1.7	1.7	18.0	11.0	13.4	15.1	10.5	100.0	172
교육 서비스업	19.4	8.5	6.0	4.4	3.8	3.1	2.8	19.2	6.5	8.4	13.4	4.5	100.0	65,039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22.9	7.2	5.7	3.9	3.1	3.5	2.0	20.8	6.2	7.8	12.0	4.9	100.0	19,855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산업	20.5	9.2	5.7	5.2	3.8	3.1	3.4	18.2	5.8	7.6	12.9	4.6	100.0	38,376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19.7	9.2	6.3	5.1	3.6	3.4	2.4	17.2	6.9	8.3	12.8	5.2	100.0	121,623
전산업	20.0	9.2	5.7	4.9	3.1	3.0	2.5	16.7	7.1	8.4	13.5	5.8	100.0	1,117,664
남성 사업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충청	전라	경상	강원/제주	전체	
농림어업/광업	1.9	2.6	0.6	1.4	0.4	0.3	0.6	6.4	14.3	38.7	14.7	18.0	100.0	4,091
제조업	22.5	8.5	7.5	6.4	2.0	2.0	1.4	23.7	5.9	5.8	12.0	2.4	100.0	282,657
전기, 가스및수도사업	12.1	5.4	4.2	4.1	1.6	2.3	2.0	13.8	8.7	18.1	18.9	8.6	100.0	1,473
건설업	24.2	7.1	5.6	4.2	3.3	2.8	2.1	16.3	7.8	8.0	13.0	5.7	100.0	72,635
도소매업	28.0	8.6	6.2	4.4	2.9	3.0	1.7	15.0	6.9	8.1	11.1	4.2	100.0	562,905
숙박 및 음식점업	21.7	7.6	5.0	4.7	2.8	2.9	1.9	18.2	7.4	7.9	13.4	6.5	100.0	204,319
운수업	29.2	9.2	5.8	5.5	3.1	3.1	1.7	16.3	5.8	6.2	9.6	4.4	100.0	298,697
통신업	23.7	7.6	3.8	3.9	3.5	2.8	1.4	13.4	7.7	11.6	14.4	6.1	100.0	6,902
금융 및 보험업	23.6	8.6	5.7	4.0	3.4	3.0	1.9	13.9	7.9	8.9	13.3	5.8	100.0	32,941
부동산업 및 임대업	30.7	7.2	4.6	5.7	2.5	2.8	1.5	24.5	4.9	4.4	7.7	3.4	100.0	76,761
사업서비스업	40.0	7.8	5.3	3.3	3.3	3.3	1.8	13.7	5.0	5.1	7.9	3.4	100.0	71,249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12.0	5.6	3.6	3.7	2.1	2.1	1.7	12.5	11.5	16.6	19.0	9.7	100.0	11,852
교육 서비스업	18.7	7.0	5.4	4.0	3.4	3.1	2.6	18.8	8.2	10.0	13.4	5.5	100.0	47,970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23.8	8.2	5.5	4.6	2.8	3.4	2.1	17.8	7.3	8.4	11.8	4.4	100.0	46,198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산업	23.1	7.7	6.0	5.1	3.6	3.0	2.1	18.6	6.5	7.8	11.6	5.0	100.0	79,135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18.6	8.0	5.5	4.7	3.2	3.1	1.9	17.3	8.6	10.4	13.6	5.1	100.0	214,514
전산업	25.4	8.3	5.9	4.9	2.9	2.9	1.8	17.6	6.8	7.7	11.5	4.5	100.0	2,014,299

자료 : 통계청(2003), 『2002 사업체기초통계조사 보고서』, 원자료.

2004 연구보고서 230-18

여성 전문인력의 창업 활성화 방안

2004년 12월 25일 인쇄
2004년 12월 28일 발행

발행인 : 서명선

발행처 : 한국여성개발원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 1-363
전화 / 3156-7000 (代)

인쇄처 : 도서출판 한학문화
전화 / 313-7593 (代)

ISBN 89-8491-117-8 93330

<정가 7,000원>